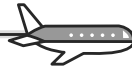


★ Kore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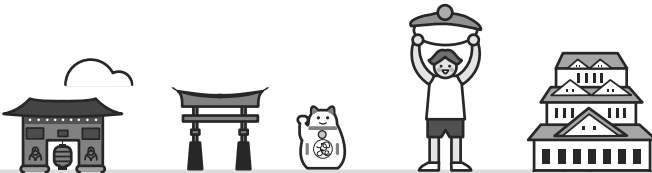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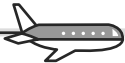


2018 CAMPUS A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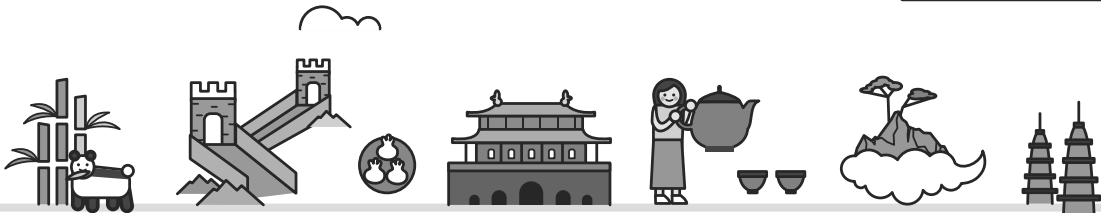
# 한·일·중 사업 체험수기 수상집

Collection of CAMPUS Asia Korea-Japan-China  
Essay Prize Winners 2018

★ Japan ★



★ China ★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 CONTENTS



**CAMPUS Asia, 동아시아와 나의 꿈** ..... 08

김수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The CAMPUS Asia Program made me know more about others and myself** ..... 14

Wang Nan 푸단대학교



**오카야마에서의 6개월을 돌아보며** ..... 26

안유진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캠퍼스로** ..... 32

이소라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나의 향기로운 CAMPUS Asia 생활** ..... 36

Hao Xiguang 지린대학교

**나의 아시아유학** ..... 42

Takahashi Nozomi 오카야마대학교

**The journey to Fukuoka** ..... 46

Wang Sirui 상해교통대학교

**‘방 안의 코끼리’를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 ..... 54

고동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DBIA-Don't Be (afraid) If (you are) Afraid : ... 58**  
**두렵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김현민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베스트 프로그램과 함께한 2년** ..... 64

박이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b>그동안 왜 몰랐을까?</b> .....	68
박수진 한국예술종합학교	
<b>한·일·중의 ‘물’을 먹다</b> .....	71
오창엽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b>뒤이어 일본을 방문할 후배님들에게 드리는 시답잖은 수기</b> .....	75
임성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b>다시 또 시작의 시점에서 1년을 돌아보며</b> .....	81
이현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b>2018 규슈대학교 Summer School 체험수기</b> .....	88
정영빈 부산대학교 에너지환경	
<b>일주일이 쏘아 올린 작은 공</b> .....	94
정재연 서울교육대학교	
<b>My studying and life in Korea University</b> .....	98
Du Mengzhen 푸단대학교	
<b>Fantastic Busan</b> .....	102
Jiang Chunyan 상해해양대학교	
<b>Creation and Connection – Study abroad in Korea</b> .....	107
Zhang Yongzhe 지린대학교	



CAMPUS Asia(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한일중 사업은 한일중 대학(원)생 교류 및 3국 대학 간 공동 복수학위 활성화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및 아시아 대학 간 교류 활성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학생 Cross-Border Mobility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한일중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세대는 학술, 언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며 친숙해지고 있습니다.



CAMPUS Asia 한일중 사업은 시범사업 이후 본 사업 3년차에 이르렀으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우수 국제 교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3국을 대표하는 학생들이 CAMPUS Asia 한일중 사업을 통해 국제적인 마인드를 성장시킬 수 있었으며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2018년 CAMPUS Asia 한일중 사업 참가자 체험수기 공모전은 학생이 경험한 우수한 공동 교육과정 및 타문화 이해에서 비롯된 경험을 나누고 확산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그 결과물로 CAMPUS Asia 한일중 사업 참가자 체험수기 수상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선정된 19명의 학생의 열정과 도전이 CAMPUS Asia 사업에 참여하는 17개 컨소시엄 대학(원)과 참여 학생들에게 유익한 지침서가 되기 바랍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CAMPUS Asia 사업이 한일중 3국을 넘어 아시아로의 확대를 모색하고 본 사업 운영기간 동안 공동교육과정, 공동·복수학위 취득, 인턴십을 확대하여 아시아 대표 Cross-Border Mobility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CAMPUS Asia

## 한·일·중 사업 체험수기 수상집

### CAMPUS Asia, 동아시아와 나의 꿈

김수진 성공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The CAMPUS Asia Program made me  
know more about others and myself**

Wang Nan 푸단대학교







# CAMPUS Asia, 동아시아와 나의 꿈



김수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업단

성균관대학교 - 나고야대 - 인민대

## 1. CAMPUS Asia, 그 이전

누구나 한번쯤은 대학 생활 중 교환학생으로서의 생활을 꿈꿀 것이다. 나 또한 대학 입학 전부터 교환학생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 2년 임기였던 교내 언론사 생활을 마친 직후, 교환학생에 도전해야겠다는 결심은 결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선배들로부터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일반 교환학생 프로그램과는 달리 풍부한 재정지원 아래 학부생이 아닌 석사생들과 함께 양질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러나 나에게 이것은 서양 국가로의 교환학생을 포기하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는 되지 못했다. 어릴 적부터 알게 모르게 생겨난 서양에 대한 환상이 있었고, 교환학생을 가는 이유가 타 문화를 접하고 시야를 넓히는 것이라면 이왕이면 유럽이나 미국 등 우리 문화와는 완전히 상반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2018-1학기 일반 교환학생 모집 당시 필요한 공인영어성적을 준비하지 못했고, 내가 원하던 서양 국가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되려면 최소 3학년 2학기는 되어야 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다.

당시 나는 진로 방향에 대한 선택지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교환학생 기간동안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보다 더 깊이 성찰하고 싶었다. 그런 나에게 3학년 2학기에 교환학생을 가는 것은 꽤 불편한 일이었다. 그래서 비교적 늦은 시기에 모집하는 2018학년도 1학기 캠퍼스 아시아 교환학생 모집에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마음 없이 지원한 결과는 뻔했다. 그러나 정말 운 좋게 TO가 생겨 감사하게도 2018학년도 1학기를 중국 인민대학교에서 수학하게 되었다. 지원 합격에 대한 기쁨은 있었지만 마음 한 켠에는 서양 국가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고, 동아시아의 한중일이라는 낯선 공동체는 나에게 그다지 큰 감흥을 주지 못했다.



첫 학기 어학당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수업 시간 토론 중에 가끔 감정이 격해지기도 했지만 수업 후에는 다같이 밥도 자주 먹고 여러 군데 놀러 다니기도 했다.

게다가 내 마음은 중국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깝게는 학교 수업에서 무임승차를 하는 중국인 유학생들, 종종 보이는 시끄러운 중국인 관광객들부터 가짜 식료품, 사드 문제 등 뉴스에서 접한 여러 이슈들이 중국에 대한 나의 인식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베이징에 도착했다.

## 2. 중국에 대한 이해와 조각난 환상

인민대학교에서는 캠퍼스 아시아 학생들에게 중국어 수업과 전공 수업을 제공하고 있었다. 어학당에서 듣는 중국어 수업은 필수였고, 전공 수업은 정해진 필수과목들과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었다.

### ① 중국에 대한 이해

전공 필수 과목은 중국에 대한 개괄적이고 기초적인

이해를 돕는 수업과 다양한 나라의 제도와 법에 관해 알 수 있는 비교정치 혹은 비교법 수업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Chinese Politics’ 과목은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상당 부분 도와주었다. 중국 초기 하은주 시대부터 현재까지 중국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고 그에 따라 체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중국이 왜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현재 공산당이 어떻게 정당성을 가지고 나라를 유지하는지 공부하며 중국인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었다.

### ② 조각난 환상

한편, 중국어 수업은 중국에 대한 편견과 서양에 대한 동경으로 가득 찬 나에게 생각의 전환을 선물했다. 어학당 담임선생님의 수업에서는 매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우리 반에는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코스타리카, 짐바브웨, 몽골까지 총 8개국 학생들이 있었고, 각 나라의 문화와 서로의 관점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수업시간이 다 지나가 있었다. 각국의 시간관념, 부모-자녀 관계, 결혼문화, 서비스직에 대한 대우, 교육제도, 취업 상황 등 타국의 문화와 제도에 대해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그러나 토론을 하면서 서서히 내가 서양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음을 느꼈다. 내가 생각하던 서양 국가는 늘 민주적이고 사회문제의 해결이 용이하여 사람들이 행복하고 여유롭게 사는 세상이었고, 내가 생

각하던 서양 사람들은 개인의 생활을 중시하지만 동시에 남을 나와 같은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려 깊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서양에서도 우리 사회가 겪는 문제를 똑같이 겪고 우리가 하는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서양 친구들이 동양 문화는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며 동양과 서양 사이에 선을 긋고, 심지어는 동양 문화를 비하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중국인 담임선생님은 그들과는 반대로 문화 차이에 대한 존중을 전제하며, 각국의 문화 및 제도의 차이가 왜 발생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고 약간은 격양된 목소리의 우리들을 중재하셨다. 또한, 자국인 중국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근거를 통한 비판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러한 경험은 내가 가지고 있던 서양에 대한 환상과 중국인에 대한 색안경을 서서히 벗기고 있었다.

### ③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인식

인민대학교는 캠퍼스 아시아 학생들에게 전공 수업으로 외국인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한 LLM Program 수업과 인민대 법학대학원 석사 생들을 대상으로 한 Master Program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 수업은 서양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업도 있었고 캠퍼스 아시아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양인 위주의 수업도 있었다. 서양인 학생들은 대다수가 영어가 모국어인 학생들이어서 영어가 뛰어나게 유창하지는 않았는데, 나는 특히 서양인들 앞에서 내 생각을 영어로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첫 학기 전공 수업에서 일본인 교수님 초청 강의를 한 날. 영어를 잘 하는 친구들이 많아 초반에 지레 겁을 먹었던 수업인데, 시간이 지나며 학생들과 친해지면서 두려운 마음은 사라졌다.

에 사로잡혀 용기 있게 내 의견을 이야기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 반면, 동양인들이 대다수인 수업에서는 똑같이 서툰 영어지만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 자체에 집중할 수 있었다. 또한, 영어나 중국어로 대화할 때 서양인보다는 동양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좀 더 편하다고 느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자 나는 그 이유가 궁금해졌고, 그러던 중 문득 내가 '동양인', 혹은 '동아시아인'이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 참여한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VANK) 활동이나 중학교 때 참가한 위안부 수요집회는 당시에는 우리나라를 위해 한 활동이었지만 동시에 동아시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활동이기도 했고, 나는 그 활동들에 참여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동아시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렇게 내가 속한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깊어지고 있었다.

## 3. 한중일 협력과 마침내 찾은 꿈

나는 영토분쟁, 역사왜곡과 역사인식 등 한중일 3국 간의 갈등으로 동북아의 평화가 위협받고 당사국 국민들 간 감정만 악화되어가는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동아시아 각국의 협력은 필요하지만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생각을 접하고 전공수업을 통해 남북통일에 대한 마음을 품으면서, 한중일 협력의 가능성이 피부에 닿기 시작했다.

### ① 세계 속 대한민국

우선,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기대 이하였고, 내가 듣던 한국의 위상은 없었다. 외국인 친구들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도 김정은이 희화화되기 일쑤였고, 한국에 대해 물어보면 북한 때문에 골치 아픈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또한, 같은 수업을 들으며 친해진 한 스위스 친구는 중국에 온 이유를 물었을 때 중국이 동양을 대표하는 나라로서 시장이 크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반면, 한국에 대해 물었을 때는 별 말이 없었다.

수업을 통해 알게 된 한국도 이와 마찬가지로였다. 'Comparative Politics in East Asia'라는 전공 수업에서는 한중일을 넘어 북한과 대만까지 동아시아 다섯 나라의 외교정책 방향성 및 관련국의 역할에 대해 공부하였다. 이에 대해 저명한 미국 및 중국의 정치학자들

이 쓴 여러 논문을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대다수 학자들에 따르면 한국은 그야말로 나쁜 국가였다. 또한 미국이라는 강대국과 중국이라는 떠오르는 국가, 단단한 동맹으로 미국과 함께하는 일본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만 하는, 북한이라는 폭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리그에 간신히 끼어 있을 수 있는 국가였다. 마침 남북정상회담이 진행 중이기는 했지만, 세계적인 정치학자들이 한국을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주류를 이룬다는 점은 나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다.

이처럼 동북아 관련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외교전략을 공부하면서, 복잡하고 위협적인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이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며 정체성을 잃지 않고 보다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며, '누군가와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북경에서의 나의 첫 학기가 끝이 났다.

### ② 우리의 소원은 통일, 왜?

사실 우리 세대는 항상 통일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배워왔지만 통일한국을 경험해본 적도, 북한 사람을 만나 교류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나 또한 통일은 그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고, 여태까지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할 생각도, 통일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도 없었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지던 것처럼 38선이 없어지는 그 날은 우리가 직면한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것이었다.



중국 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NGO에 관해 발표한 것은 나에게 큰 도전이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법학도들이 모인 작은 국제 사회에서 북한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한 경험은 오랫동안 내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믿는다.

그럼에도 나에게 와 닿은 '누군가와 협력'의 첫 당사자는 북한이었다. 첫 학기에 중국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보며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의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실감한 것도 있지만, 두 번째 학기 'Foreign Investment Law in China' 수업이 나에게 총체적 생각의 전환을 선물해주었다. 중국의 외국 투자 법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고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중국의 해외NGO법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자료조사 과정에서 중국 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NGO들의 활동과 현실을 접하고 중국, 북한, 한국 등 관련국들의 입장과 대처방식을 보면서, 북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솟아났고 남북통일의 당위성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그저 상징적인 명분이 아닌 현실적인 명분이 이해되었고, 민족적 차원이 아닌 인도적 차원에서 통일을 바라보게 되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체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북한 정부를 보며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통일만이 그들을 살리

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③ 남북통일의 열쇠, 한중일 공동체

이는 자연스럽게 '북한과의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으로 이어졌다. 우선적인 통일은 양국의 협정으로 이루어지겠지만 그 이후는 사실상 국민들이 이루어가는 것인데, 지난 70년 간 남북은 서로를 부정하고 각자의 국가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서로를 미워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를 알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나 또한 중국이나 일본을 접할 기회는 있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부해본 적이 없었고, 준비되지 않은 남북이 통일된다면 더 큰 혼란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더하여, 통일 한국이 주변국과의 관계 정립과정에서 겪을 갈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북한 문제의 직접당사국이자 관련국인 한중일 공동체가 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까? 3국이 지금처럼 각자의 이해관계를 주장하며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및 동북아 평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은 같은 이념을 가진 나라로써 지속적인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중국이 통일에 힘을 실어준다면 남북 관계의 개선이 용이해질 것이고, 한국은 일본과 북한의 관계를 중재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동북아질서에 대한 공통인식을 형성하고, 한중일 민간 연합체 등을 통해 통일을 준비한다면 주변국과의 수월한 관계 정립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과 남한만의 단독적, 독립적 통

일이 아닌 관련국들의 협력이 함께하는, 자주적이지만 다자적인 통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 모두를 위한 방법이라 생각했다.

## 4. 글을 마치며: 더 나은 CAMPUS Asia,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하여

이렇게 CAMPUS Asia 프로그램은 나와는 관계없던 역사 속 일을 나의 비전으로 바꾸어 놓았다. 통일 이전의 제도적 정비, 통일 과정 중 양국이 의논하여 세워야 하는 통일법제,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통일 이후의 안정된 삶을 위한 제도들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통일법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필요한 제도들을 세우고 통일한국을 현실화하는데 보탬이 되겠다는 비전을 품게 되었다.

표현의 부족으로 CAMPUS Asia가 얼마나 가치 있는 프로그램인지 충분히 담지 못했지만, 경제적 지원과 석사 생활과의 수업 기회는 물론이고 진로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해하던 나에게 비전을 선사했다는 점에서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었다. 이 자리를 빌어 좋은 기회를 주신 각국 정부와 사업단 관계자 분들께 감사 드리고 싶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캠퍼스 아시아 차원의 1:1 버디(buddy) 제도가 확립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수업을 비 파견국 학생들과 함께 듣기 때문에 파견국민인 학생과는 교류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인민대학교의 경우 교내 문화교류 동아리에서 현지 중국인 학생과 교환학생을 무작위로 연결해주고 있었는데, 그 학생들은 대부분 신입생이기 때문에 바쁘고 관심사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 학기 일본에서 파견된 캠퍼스 아시아 친구들과 밥 먹기 전에 찍은 사진. 인원이 많았지만 중국식 원형 식탁 덕분에 다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나를 제외한 한국 친구들은 연락을 지속하지 못했다. CAMPUS Asia 프로그램이 머지않은 미래에 각 나라들 간 밀접한 협력에 기여할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만큼 파견국 학생들과의 교류가 매우 중요한데, 1:1 버디 시스템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20년 간 간접적으로만 경험하던 중국 및 일본 학생들과의 직접적 교류는 그 자체로 이미 작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경험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나의 경우, 캠퍼스 아시아 일본 학생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귀던 중국인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서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공통된 목표를 가진 우리가 유대감을 형성하고 목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우리 각자의 인생의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과 동아시아 공동체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아울러 각국 정부와 사업단, 그리고 우리 참여학생들의 노력들이 모여 같음을 기반으로 차이를 인정하고 윈윈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한다.



# The CAMPUS Asia Program made me know more about others and myself



Wang Nan

푸단대학교

사업단

고려대 - 고베대 - 푸단대

I am an exchange student in Korea University, and one semester is so short for me to experience such a historical and colorful university. Different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set up by Japanese and Yonsei University set up by American missionaries, Korean University was established by Korean, with more Korean national traditional culture. For example, the tiger as a typical animal in Korean culture, is the symbol of Korean University. At the same time, Korean University is an international university with lots of foreign professors and students from all the world. In this semester the experiences of CAMPUS Asia program made me know more about myself.

## I. Courses

I have selected three courses, including North-

South Korean Relations, Politics of Southeast Asia and Korean Language I. Three courses all made me feeling full and know more new knowledge. After I finished learning North-South Korean Relations. Now I will introduce these courses in details.

First, the course North-South Korean Relations was selected because I was in South Korea and I could feel more about the course. The course examined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in historical, comparative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with special attention to structural dynamics surrounding Korean Peninsula. The course covered the latest decades since the early 90s in regards of political and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is course illustrated the efforts of South and North to ease the tension within

Korean peninsula and their cooperative manner to seek rapprochement and reconciliation. Also, it covered unavoidable conflicts among countries which are deeply involved in Korean peninsula issues. The requirements of the course include: (1) to do the assigned reading each week; (2) to participate actively in the class; (3) to make a presentation twice based on different topics; (4) to submit proposal and complete one final paper.

Actually, it was a challenge for me to read all materials (about 100 pages) of every week, but I tried to complete all reading tasks, which promoted my reading speed. Moreover, the practice of writing a proposal to present the main theme of the paper push me to specific my points and paper theme. Of course,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waiting to be solved that I need to improve my English speaking and listening to participate the brainstorming and free-talks in class.

In general, this course helped to understand dynamic transi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its implication on Korean peninsula and

periphery countries. I have learned the history of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 can think more and deeper about events happened among North Korea, South Korea, the U.S., Japan, Russia and China, and how important denuclearization and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are.

Second, in the course Politics of Southeast Asia, the professor Jaehyon gave a history and Southeast Asia studies introduction firstly; then we learned Malaysia, Indonesia, Singapore, Thailand, the Philippines, Vietnam and Myanmar of 11 Southeast Asian states; at last, some contents about all Southeast Asia were introduced, including pre/post-colonization in Southeast Asia, democracy, political economy and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The course requires: (1) to do the assigned reading each week; (2) to participate actively in the class; (3) to make a presentation once to introduce a country based on materials; (4) to submit a mid-term paper to introduce a country in Southeast Asia; (5) to submit the proposal and complete one final paper.

It was not difficult to finish reading papers of every week because they were easy to understand and not too many. However, there was a challenge for me to complete the proposal of my final paper, because there were so many interesting themes can be selected as a paper topic. What I have learned from the proposal and the final paper of the course is that I should make sure



In the class near the Mid-autumn Festival, we got mooncake from the professor Ahn. And at that class, I just finished my first presentation of this semester.



The last class of the professor.

the topic as early as possible to spending enough time preparing. Besides, what impressed me was that the last class. In the last class, the professor Jaehyon insisted on making up missed lessons and finished all the themes the course included. At last, he said that it was his last teaching class in his life. I am honored to be one of the last students of the professor Jaehyon and very moved by his attitude toward the course.

Third, the course Korean Language I is my favorite course this semester. I have never learned Korean before and the professor Park just told us no worry. He conveyed a pretty superior idea to us that the exam was not important, so just enjoy it. I understood his words once I tried to relax and enjoy learning Korean. The least of things with a meaning is worth more in life than the greatest of things without it, while the meaning needs to be given by oneself. Enjoying the things you are doing is such a beautiful choice and the most important meaning. There are 6 levels in



After the last Korean Language (I) class.

Korean Language studying, and this semester we have finished half of Korean Language I. For learning Korean better, I took part in a practiced speaking Korean with my language partner who is a Korean student. She learned Chinese from me and I knew more about Korean culture, not just language. Now I plan to continue learning it by myself online and to take part in the 63th TOPIK test in China in April of the next year. Of course, enjoying the process is the most important.

## II. Academic Activities

There were a lot of academic activities in CAMPUS Asia, and they were very helpful to learn affairs and knowledge about Japan, Korea and China. I will introduce the typical three activities as follow.

First, 2018 CAMPUS Asia Student Workshop. The workshop was held on OCT 12th 2018 (10:00-17:10). It was about present and future of Campus Asia. About



Our teams in 2018 CAMPUS Asia Student Workshop.

50 students in the 17th Campus Asia project and government officers (Education department) took part in the workshop. After ice-breaking, I knew the students who came from Korea, Japan and China now studied in universities in Seoul and Busan. We chatted with each other and communicated our own opinions about relations among Korea, Japan and China. At last, we were divided into several different groups to propose the questions we wanted to talk about, then we exchanged the questions with other groups, later every group got their own only question to talk about. Finally, every group made presentations to show the results. It was very interesting to propose the question and talk about freely to come into the conclusion.

Second, 2018 CAMPUS Asia Annual Symposium. The CAMPUS Asia Annual Symposium is held by Korean University, Kobe University and Fudan University in turn once per year. This year the theme of the symposium was about new risks and new opportunities in East Asia. Professors from three universities shared their papers and proposed some questions to talk about. And



2018 CAMPUS Asia Annual Symposium.



The after-symposium party.

then some students who had participated the CAMPUS Asia project last year presented their opinions about the educational risks and disaster risks in South Korea. They have prepared for the presentation for a long time and did very well. Learning from these students, I also want to make an outstanding presentation on the next



The after-TCS tour party.

symposium in Kobe University.

Third, the field trip to TCS. The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 i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established with a vision to promote peace and common prosperity amo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We visited TCS in Seoul for a short tour and the officers here gave us a general introduction. They were so nice and patient to answer all kinds of questions from us. For students studying in CAMPUS Asia, to know more about development affairs among Japan, Korea and China is helpful. After the tour, we have a dinner together.

### III. Regular studying clubs

Beside the courses and academic activities mentioned as above, there were also other studying clubs, including East Asia Society presentation(EAS) and Book club. I joined both and now share the experiences here.

First, East Asia Society(EAS) is a club in G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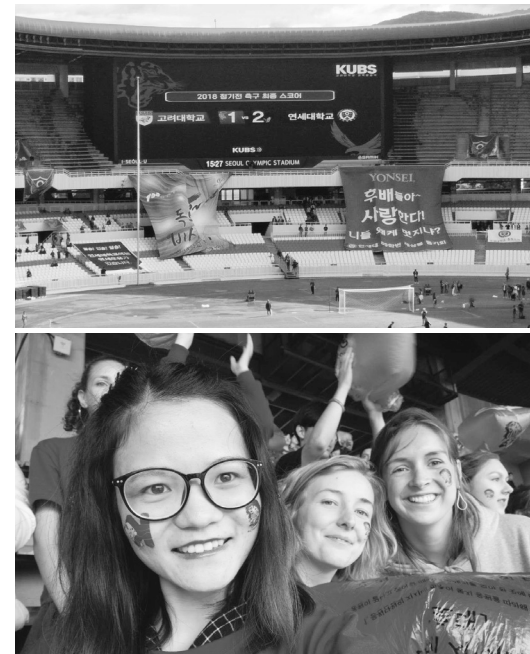
one of members in which shared their ideas by making presentations about East Asian countries every Wednesday. Then other members can propose some questions to the presenter, and later all members discussed together. What impressed me was the theme about the president Duterte's anti-drug policy in the Philippines. A Filipino girl made the presentation and introduced people's lives under the policy. I had heard about the event before, but I never experienced the true feelings of Filipino under the policy. The survey data were not just the data, behind which I can feel the emotion. Thus, this club can offer an opportunity for who want to learn more about East Asia. Moreover, after the presentation, we, students came from Asian countries, European countries, African countries and America, ate dinner and talk freely together. It was pretty good to know new culture and customs which pushed you to try in the future. Of course, the dinner is free, so just come and no worry about the expenses.

Second, Book club was organized by a phd. Student Wu Hao, and Professor Potter as an instructor. We tried to read Michel Foucault's Discipline and Punishment: The Birth of the Prison, and then we decided continue reading this book this semester. In this club, the members need to read one chapter a week. To tell the truth, it was an after-class burden to read it except that you enjoyed it. Although this book

was not easy to understand, I would be happy



Presentation; After-presentation parties.



2018 Sport Game between Korea university and Yonsei University.

when I finished reading a chapter in weekend. And then we would talk and share their opinions in the club also on every Wednesday. I felt free and relaxed to share my opinions when others were listening to me carefully. Professor Potter would give us some guidance when we could not



The Anam Street party.



The Firework Show in Han River Park.





(In the dance contest held by Cheong-bok District, we got the second prize.

find any points. In general, it was a good chance for me to read and think over difficult books, to practice delivering opinions in public.

#### IV. After-class life

My life here was not just academy and study. Actually, I took part in a lot of colorful and interesting after-class activities, including 2018 Sport Game between Korean University and Yonsei University, Buras-Latin dance club, and lots of other events.

First, the Sport Game between Korean University and Yonsei University is the most famous event in Korean University, held once per semester. In 2018, I went with classmates organized by KUGSIS Student Council together to watch the last soccer game. All Korean University

students wore red skirts and Yonsei University was blue. Thus it was clear that who were “family” who were not. Well, both sides of audience tried their best to cheer for the game when soccer players were chasing the ball. Finally, we failed and it made me a little disappointed. However, I thought the players had try their best, and there was no regret. After this, I went to Han River Park to watch the beautiful firework show with my friends and later went back to Anam Street to take part in the after-game party. Everyone here was very happy, including Korean University and Yonsei University students.

Second, I took part in Buras Club, a latin dance club in Korean University. I learned Latin dance in Fudan University before and wanted to continue in exchanging, thus once I got to



Jingfu Palace and me with the Hanbok



(The seaside and the sunset in Busan.

Korean University I started to find if there was a Latin dance club. I found it in Facebook and connect them. After watching their performance in September, I decided to take part in the club. Since then I have Latin classes on Tuesday and Thursday, which brought me much fun and relaxation. Although the next performance was in March of next year that I could not take part in because I had came back to China then, I practice dancing carefully with Korean classmates and teachers. They spoke Korean, and classmates helped me to translate into English. We took part in the dance contest held by Cheong-bok District in Seoul together and got the second prize. Now I keep contact with some friends in the club, and I hope they can travel to China and we can meet again.

Third, there were lots of other activities, samely made my life colorful. In Seoul, there were lots of traditional palaces and all kind of museums. I wore the Hanbok and went to the



Ganchuan Cultural Village and me.



The first party of CAMPUS Asia



The Spring and my farewell.



The delicious grilled meat.

development of Korea. Besides, I went to Busan or traveling by KTX with my friends. Ganchuan Cultural Village there were impressed, composed by traditional colorful house and the sunset at the seaside was so charming.

## V. Life-changing after the program : From anxiety to enjoying

In the first party of CAMPUS Asia, professors

and teachers in GSIS said they were very happy to meet us. I was happy too. The grilled meat in Korea was so delicious and professors were so kind. I felt difficult to leave when professor Kim and Nam invited CAMPUS Asia students who ended the program to tried sauce noodles in Korea. We said goodbye to each other. I will miss them. They organized a pretty good CAMPUS Asia program, and the program offered an opportunity for me to contact with Korean and Japanese, and people from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other countries. We can exchange our opinions about some topics like East Asia, Korea-Japan-China relations and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Besides, there were some life perception after the program. Just as my Korean Language teacher said, the exam was not important, so just enjoyed it. The pendulum of the mind alternates



The Summer, Autumn and Winter in Korean University.

between sense and nonsense, not between right and wrong. In the life, the least of things with a meaning is worth more in life than the greatest of things without it. (Carl Jung)

When I left Korea and sit in the plane, the island started to become small and disappeared finally. The life in Korea University for four month occurred in my mind, and I started to cry. Later, I saw the further sunset in the plane, the red light was soft and beautiful. This year was too hard for me, especially in the first half of 2018. I did not well in grades, and there were some other personal reasons making me anxious and unconfident. The four-month life in Seoul was just like a holiday for me to relax, and then rethink about the meaning of life. And the activities of CAMPUS Asia offered me a windows

to know more about other countries. In the process, my situation was becoming better and I could arrange my life fully. It was not easy, I knew.

My tears fell once I remembered the mood that I always failed but tried to finished reading all course materials all the time, the last class in which the professor said it was his last class in his life after he made up all missed lessons, the morning in which I read Korean aloud, and the autumn raining night in which I finished the Latin dance class with a full feeling.

If there is any regret in CAMPUS Asia, it is probably to communicate more with others. If there is any regret in Seoul, it is probably to visit a few more palaces, climb several more mountains, and sway several more museums.



2018 CAMPUS Asia

## 한·일·중 사업 체험수기 수상집

### 오카야마에서의 6개월을 돌아보며

안유진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캠퍼스로

이소라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 나의 향기로운 CAMPUS Asia 생활

Hao Xiguang 지린대학교

### 나의 아시아유학

Takahashi Nozomi 오카야마대학교

### The journey to Fukuoka

Wang Sirui 상해교통대학교





안유진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사업단

성균관대-오카야마대-지린대

## 오카야마에서의 6개월을 돌아보며

중학생 때부터 역사를 전공하고 싶었고, 계속 공부해서 역사 연구자가 되고 싶었다. 고등학생 때는 주위에서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부럽다는 말을 매일 같이 들었다. 성균관대에 입학해 오랜 목표였던 사학과에 무사히 진입했으니 나의 예상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이 달랐다. 대학 공부는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았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았다. 과제도 다른 일상도 시간에 쫓겨 매일매일 겨우 해치웠다. 대학에 다닐 동안 많은 걸 경험해보자는 기대감은 뭐라도 한 가지 더 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바뀌었다. 동경하던 교환학생은 포기한지 오래였다.

대학생이 된지 2년이 다 되어갈 때쯤 내 목표는 최대한 빨리 졸업해서 최대한 빨리 석사 학위를 따고 역사 관련 일자리를 찾는 것으로 바뀌었다. 연구자의 꿈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점점 불투명해져 가고 있었다. 그때 나는 제법 심한 무기력의 굴레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

그때 캠퍼스 아시아 모집 공고를 봤다. 학점도 좋지

않고 어학 성적도 없는, 그리고 무엇보다 당장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나에게는 정말 솔깃한 제안이었다. 학교를 한 학기 더 다니더라도 외국에 가 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했고, 1주일 뒤 합격 메일을 받았다. 그렇게 아주 갑자기 교환학생 준비를 하게 되었다. 갑자기 결정한 일인 만큼 준비 과정도 갑작스럽고 정신 없었다. 학기가 끝난 뒤 자취방을 정리하고 본가로 내려오니 그제야 실감이 났다. 가기 직전이 되어서야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인지, 내 능력에 너무 큰 일을 벌인 건 아닌지 혼란스럽고 겁이 났다. 그렇게 출국 날이 되었고, 나는 기대보다는 불안을 안고 비행기를 탔다.

### 왜 일본인가?

교환학생 파견이 결정되고 나서 왜 하필 일본에 가냐는 질문을 아주 많이 들었다. 내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가 한국사, 그 중에서도 근대사이기 때문이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나도 비슷한 생각이었고, 처음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한국사만을 생각했다.

그러나 사람이 타인의 영향을 받듯 나라 역시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 대학 입학 후 계속 참여하고 있는 사학과 예비대학원 세미나에서 한국 근대사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한 만큼 일본 쪽 자료도 많고, 연구 성과도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연스레 나의 관심사는 한국에서 동아시아 전체로 확장되었고, 한 번쯤은 일본에서 공부를 해 보고 싶어졌다. 역사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인문학 수준이 높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연구 환경을 체험해 보고 싶었다.

실제로 일본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며 연구 환경이 정말 잘 되어 있다는 점을 크게 느꼈다. 대중화된 각종 입문서와 체계적으로 정리된 연구 자료집을 보며 어떤 지식이 필요할 때 그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번역 수준의 차이도 많이 느꼈다. 일본 친구에게 '일본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아니지만, 세계에서 가장 번역이 많이 된 언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도서관이나 서점에 갈 때마다 피부로 와 닿았다. 접할 수 있는 세계가 넓으니 학생들의 관심 분야가 다양하고 연구 수준이 높은 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을 선택한 또 하나의 이유는 언어 공부다. 기회가 있다면 일본어를 현지에서 제대로 배우고 싶었다. 듣거나 독해는 어느 정도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일본어를 처음 시작할 때 기초를 탄탄히 다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 문법이나 어휘 실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오카야마 대학의 유학생 전용 일본어 수업은 일본어 수준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데, 사전 시험에서도 문법 때문에 낮은 반에 배정받았다. 냉정한 점수의 성적표를 받고 나니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이왕 일본에

왔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야 하는 언어이니 기초부터 다시 다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기 전 문법 기초를 확실히 끝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문법 수업을 집중적으로 들었다.

일본에 와서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한국어로는 자세하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이 일본어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문법 체계가 잡히기 시작하니 회화도 독해도 더욱 늘었다. 일본어 실력이 늘면서 소통의 내용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넓어지는 것을 점점 실감할 수 있었다.

### 새로운 도시, 새로운 만남

오카야마에 도착한 것은 늦은 저녁이었다. 기숙사 앞까지 가는 마지막 버스를 겨우 탈 수 있는 시간이었다. 평화롭고 조용한 도시라는 첫인상도 잠시, 버스에서 내리니 가로등이 띄엄띄엄 있는 어두운 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작은 가방 하나를 끌고 기숙사로 걸어가는 5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앞으로의 내 생활도 이렇게 낯설고 어둡기만 한 건 아닌지 걱정을 했던 것 같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고 오카야마에 익숙해지니 걱정에 짓눌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고향은 부산이고 학교는 서울이라 평생 대도시에서만 살던 나에게 조용하고 공기 좋은 작은 도시는 딱 재충전에 좋은 곳이었다. 매일 아침이 상쾌했고 마음도 오랜만에 여유를 되찾았다.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 봤다가 태어나서 처음 북두칠성을 본 밤의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물론 대도시에서 살다가 소도시에 오니 불편한 점도 있었다. 가장 큰,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문제가 대중교통

통과 자전거였다. 오카야마는 자전거가 없으면 생활이 불편한 곳이었고, 대중교통 배차 간격은 한 번 놓치면 허송세월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저런 문제들로 오카야마에 익숙해지고 나만의 생활 방식을 찾기 전까지는 해맸던 것 같다.

교환학생에 대한 환상 중 하나가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이었다. 그러나 낮을 가리는 성격이라 막상 아는 사람이 없는 외국에 오니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일본어 실력도 한국어처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기에는 부족하게 느껴졌다. 캠퍼스 아시아의 장점은 한 중일 3국의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4월에 캠퍼스 아시아 사무국에서 다양한 교류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일본에 오기 전 3월에 오카야마 대학에서 성균관대로 워크숍을 왔던 친구들과 다시 만났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다. 학기가 끝나가는 7월 말에 한국인 언니들과 일본 친구들과 같이 스시 파티를 했는데, 우리도 돌아가는 사람이 많았고 일본 친구들 중에서도 다른 나라로 교환학생을 가는 친구들이 많아 모두의 송별회가 되어 아쉬웠던 기억이 난다.

오카야마 대학에서 나는 문학부 동양사연구실에 소속되었다. 교수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연구실도 마음대로 쓸 수 있었고, 튜터로 같은 학년 친구를 소개받기도 했다. 다행히 튜터 친구와 마음이 잘 맞아 친하게 지낼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6개월 후에 일본에서든 한국에서든 곧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다. 어디에서 만날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번 겨울의 만남과 추억을 기다리고 있다. 튜터 친구 외에도 교수님들부터 같이 재미 수업을 듣는 2학년 학생들까지 연구실의 모두가 친절했다. 한국의 사학과도 자주 모이고 서로 잘

챙겨주는 분위기였는데, 사학과는 어딜 가든 다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일본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어 행운이었지만, 가끔 한국이 그리울 때가 있었다. 그때마다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으로 성균관대에서 같이 온 언니들에게 많이 의지했다. 다들 생일이 봄이라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하기도 했고, 시간이 나면 기숙사에 모여 새벽까지 수다를 떨기도 했다. 또, 길림대에서 온 중국인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일본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 공통 언어는 영어였지만, 친해지면서 고등학교 때 배운 짧은 중국어로 말을 걸기도 하고 중국인 친구들도 새로 배운 일본어로 말을 걸며 장난을 치기도 했다. 캠퍼스 아시아라는 하나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유학 생활의 즐거움과 고충을 공유했던 시간들이었다.

### 신칸센보다는 버스, 관광지보다는 시골

교환학생에 대한 또 다른 환상은 외국에서 여행을 마음껏 다니는 것이었다. 실제로는 학교에 다니느라 할 일도 많고 시간도 없어 생각보다 많이 다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꼭 고속버스를 탔던 것 같다.

여행지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한국에서 쉽게 갈 수 있는가?’였다. 오카야마에 살지 않으면 가기 힘든 곳을 둘러보고 싶었다. 또, 거리가 멀지 않더라도 큰 도시보다는 작은 도시나 시골에 가고 싶었다. 그래서 오카야마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현 내를, 신칸센을 타기보다는 버스나 재래선을 타고 돌아다녔다. 많은 여행지 중 기억에 남는 곳을 꼽으라면 쓰야마시

조토 지구가 생각난다. 에도 시대 상점가였던 보존 지구로 화려한 곳은 아니지만 고즈넉한 매력이 있는 곳이었다.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카페가 마침 마을 주민들의 합주 연습실로 쓰이는 곳이라 작은 콘서트를 볼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다시 길을 나설 때 사장님께서 남은 교환학생 생활에 행운을 빌어주시면서 기회가 있다면 또 오라고 배웅까지 해주셨다. 1시간 반에 한 대 꼴로 다니는 오카야마행 기차를 놓칠 뻔했지만 역무원 분들의 도움으로 아슬아슬하게 탈 수 있었던 것까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여행이었다.

귀국 전 일본에서의 마지막 여행도 여러 곳을 고민했다. 가고 싶은 곳은 많았지만 종강이 늦어 시간이 부족했다. 마지막까지 고민한 곳이 산인 지방과 히로시마였는데, 히로시마는 큰 도시라 앞으로 갈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았다. 여행이 가능한 방학에는 대부분 고향인 부산에 있기 때문에 김해공항과의 노선이 있는 오사카와의 접근성도 큰 요인이었다. 버스를 타고 나서도 방향을 틀지 고민했던 만큼 이 선택이 맞는 건지 걱정되었다. 그러나 이 고민은 요나고와 사카이미나토에서 즐거움으로, 마쓰에에서 호리카와 유람선을 타고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면서 마침내 행복으로 바뀌었다.

여행의 좋은 점은 ‘다시 오고 싶은 곳’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과 다음을 기약하면서 헤어지는 순간부터 다음 만남이 기대된다. 그리고 시골 여행이었기 때문에 더 좋았던 점은, 현지 주민에게 그 지역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쓰야마의 카페 사장님께 쓰야마 방언을 배웠고, 사카이미나토에서 버스가 끊기는 바람에 탄 택시 기사님께 섬을 잇는 다리에 얹힌 이야기를 들었다. 커다란 관광지에서는 하

기 어려운 경험일 것이다. 여행을 할 때마다 일본 속으로 한 발 더 들어 놓은 기분이 들었고, 일본 문화와 정서를 더 잘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 내가 만들어 가는 수업

한국의 대학 생활이라는 하나의 현실에서 도피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다. 단 6개월, 주어진 시간 동안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싶었다. 그래도 아직 일본어보다는 영어가 익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일본에 왔으니 모든 수업을 일본어로 듣기로 했고, 한국에서는 들을 수 없는 수업을 최우선으로 골랐다. 한국과 다르게 교수님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하고 이수등록(수강신청)을 마쳐야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고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모든 교수님들께서 흔쾌히 수업을 허락해주시고 기본적인 수 있는 질문에도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듣고 싶은 수업을 다 들을 수 있었다.

한국에서 할 수 없는 경험이라면 단연 재미(ゼミ)였다. 하지만 처음에는 재미 수업을 포기할 생각이었다. 들어 보고는 싶었지만 일본어 실력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망설이던 중 지도교수님과의 상담에서 교수님이 일단 한 번 와 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고, 결국 아시아사 재미 수업을 듣게 되었다. 2학년과 3학년을 합쳐 10명 정도의 적은 인원이 매주 돌아가며 관심 분야에 대해 간단히 발제를 하고 내용을 발표하는 방식이었고 외국인은 나 혼자였다.

첫 시간에 교수님이 힘들 것 같으면 발제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셨다. 나도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생각해 보고 말씀 드리겠다고 했지만, 수업을

듣게 되었으니 부족하더라도 참여해 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내셔널리즘'에 대해 발제를 했다. 근대의 이데올로기에 관심이 있기도 했고, 한일 양국 한 쪽의 입장이 아닌 객관적 시선에서 비교해 보고 싶기도 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아직 일본어로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 발표 대본을 썼고 한자 위에 후리가나까지 달았다. 대본을 읽다가 막히는 부분도 있었지만 발표와 질의응답까지 무사히 끝났다. 교수님께서는 피드백과 함께 외국어로 발표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용기를 낸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칭찬해주셨다.

한 학기 동안 재미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다양성이었다. 나에게 동양사는 중국사와 일본사가 중심이었고, 그 밖의 아시아 역사는 중학교 세계사 시간에 잠깐 스쳐 지나가듯 배운 뒤로는 공부할 기회가 없었다.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 자연스레 관심도 사라졌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의 관심 분야는 동아시아를 넘어서 동남아시아, 몽골, 서남아시아, 그리고 고대 오리엔트까지 아올랐다. 생소한 내용을 외국어로 들으려니 힘들기도 했지만 수업이 진행될수록 지식의 폭이 넓어지는 기분이었다. 학생들의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숙사에 돌아와 더 자세히 찾아 보기도 했다. 나의 아시아는 더욱 넓어졌고, 아시아 곳곳의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 일본인과 역사 이야기를 하다

교양 과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린이의 역사를 배우는 방법(子どもの歴史を学ぶ方)'라는 수업이다. 이 수업은 교육학부 교수님이 강의하는 교양 과목이었는데, 일본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서술 방식 변화를

비교하면서 바람직한 역사 교육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업이었다. 원래 주tem으로 수강이 결정되는 수업이지만 교수님의 배려로 추첨 절차 없이 수강할 수 있게 되었다. 수업은 자료를 읽고 조별 토의를 진행한 후 어떤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발표하는 방식이었다. 짧은 시간 안에 일본어 자료를 읽어내야 한다는 게 조금 어렵기도 했지만 조원들이 많이 배려해주었다.

'일본의 역사 교육학 수업을 듣는 한국인'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을 꽤 들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국가와 교과서에 따라 내용에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궁금했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 교과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을 것 같아서 꼭 듣고 싶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은 나라가 달라도 똑같은 것 같다. 식민 지배 관련 내용이 나왔을 때 교육학을 전공하는 조원들이 한국 교과서의 내용은 어떤지, 한국인들은 근대 역사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 본 적이 있었다. 영토 분쟁처럼 서로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도 사실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다들 경청하며 그대로 받아들여주었고, 그 뒤에도 종종 역사와 사회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놀랐던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일본인들이 일본의 조선 식민 지배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에 호의적인 일본인이 많다는 걸 알면서도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긴장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면서 먼저 조심스럽게 물어 보는 모습에 긴장이 풀렸고, 덕분에 마음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교양 수업 외에도 일본 친구들과 역사 이야기를 할 기회가 종종 있었다. 전공 수업에서도 있었고, 같이 관광지나 박물관을 돌아볼 때도 있었고,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서로 배려하고 인정하면서 이야기했던 경험이 인상적으로 남아 있다.

### 진정한 동아시아의 일원 되기

6월부터 캠퍼스 아시아 수업인 동아시아리더십론을 듣게 되었다. 이 수업은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혹은 참여했던 한중일 학생들과 다른 외국 학생들이 함께 듣는 수업이었다. 이 수업에서 '동아시아의 공동 문제와 협력'에 관한 조별 과제가 있었다. 원래 7월 초 예정되어 있었던 학생 포럼에서 발표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폭우로 취소되어서 귀국 전 한 학기 동안의 교환학생 생활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었다.

우리 조는 한국인 2명, 일본인 1명, 중국인 2명으로 구성되었다. 발표 주제는 '동아시아의 해양 오염과 국제 협력'이었는데, 발표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매년 세 나라의 환경부 장관들이 모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아시아 3국은 역사적, 정치적으로는 관계가 안 좋아 보일지 몰라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돕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발표 준비도 그렇게 진행되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공동의 프로젝트를 멋지게 완수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국인 조원들이 일본어를 거의 못 해서 주 사용 언어는 영어였지만, 논의 내용이 이해

가 안 되거나 영어로 정확히 의사 전달이 어려운 경우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를 섞어 가며 서로가 이해한 것을 전달하고 조율했다. 모두 함께 노력한 만큼 발표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국제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학생들의 작은 발표였지만 하나의 공동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작용이 일어났고, 때로는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결국 모두 힘을 합쳐 만족스러운 합의점을 찾아냈다. 외국어로 발표를 준비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동아시아 협력의 일원이 된 것 같아 기쁘고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다.

한국에 돌아온 지도 4개월, 다시 한 학기가 끝나간다. 일본에 다녀온 후 나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재미 수업 마지막 날, 동양사연구실의 교수님께서 대학원 진학 후 지원할 수 있는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셨다. 국내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것도 좋지만 할 수 있다면 다시 일본에 돌아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졌다.

오카야마에서 보낸 한 학기 동안 나의 내면도, 학업에 대한 자세와 문제 의식도, 세계를 대하는 태도도 모두 바뀌었다. 새로운 세계와 부딪히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쌓인 경험들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협한 생각을 부숴주었다. 이른 봄 오카야마로 떠나기 전처럼, 다시 봄을 기다리는 지금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전처럼 불안하지는 않다. 새로운 봄은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나를 위한 무대였다. 앞으로 더 넓은 동아시아, 더 넓은 세계에 당당히 서서 한 뼘 더 성장할 나를 스스로 기대해 본다.



#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캠퍼스로



이소라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사업단

고려대-고베대-푸단대

## 관심 없던 일본, 1년간의 유학을 결정하다

여행 다니는 것을 참 좋아하지만, 일본으로는 여행을 갈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딱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나라였다. 그러던 중 캠퍼스 아시아로 고베대학교에 다녀온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고베대는 공부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고, 특히 교육 개발에 관심이 있다면 얻을 것이 많으니 꼭 다녀와야 한다는 말이었다. 당시 나는 교육개발 분야의 전문가를 꿈꾸며 학부 시절 교육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개발학을 공부하며, 경제학 공부의 필요성 또한 느끼고 있던 시기였다. 교육개발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다는 말에, 고려대와 고베대의 생활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때문에 고베대에서 교육 개발에 대해 공부하고 경제학 석사까지 취득하고 올 수 있다는 사실은 꽤 매력적이었다. 경제학을 바탕으로 개발학을 이해하고, 그 중에서도 교육 개발 분야를 위해 공부하면 교육 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영어로 공부를 한다고 해도 히라가나 한 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본에 가는 것이 망설여졌다. 일본은 영어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함께 파견되는 학생도 없는 터라 잘 해 낼 수 있을 지 확신도 없었다. 그렇지만 선배들의 긍정적인 후기를 듣고 많은 조언을 구한 뒤, 일본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살아 남아야 한다는 생각에 파견 전 두 달 동안 열심히 일본어를 공부했고 기초적인 일본어 의사소통 능력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 일본에서의 석사 생활, 2년에 할 일을 1년에 하다

일본에서의 생활은 기본적으로는 한국에서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수업을 듣고 논문을 준비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석사들의 일이기 때문이다. 수업은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고, 경제학 석사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거의 경제학 관련 과목들을 수강하게 되었다. 경제학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낯설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다. 게다가 1년 안에 학위 과정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수업을 많이 들어야 했다. 첫 학기에는 8과목이나 들어야 했다. 낯선 학문을 외국어로 공부하다 보니 자신감이 떨어지는 순간들이 자주 있었지만, 조교들이 보충수업을 해주는 TA 세션이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어렵다고 생각했던 경제수학은 함께 수업을 듣는 다른 친구들과 조교의 도움이 상당히 컸다. 10년만에 하는 수학 공부였고, 미적분학이나 기하와 벡터와 같이 아예 처음 배우는 부분은 TA 세션이 없었다면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덕분에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고, 좋은 성적도 얻을 수 있었다.

1년 안에 논문까지 쓰는 일은 벅찰 것이라 생각했지만, 역시나 생각한 것처럼 쉽지 않았다. 양적 연구이다 보니 데이터를 구하는 것도, 논문 주제를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첫 학기에는 8과목을, 두 번째 학기에는 5과목을 들으며 수많은 논문을 읽는 작업도 벅차기만 했다. 그 때마다 박사 과정에 있는 선배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선배들은 석사 과정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현재도 공부 중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이해해 주었다. 그리고 언제 도움을 요청하든 선뜻 나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내 논문을 나보다 더 열심히 들여다봐 주었다. 또한 통계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교수님들과 박사 과정 선배들, 그리고 또 다른 석사 과정 친구들과

이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줘서 연구 결과도 제대로 낼 수 있었다. 논문을 쓰다가 힘들어서 무작정 찾아가 힘들다고 하소연을 할 때도, 토닥여 주고 위로해주며 용기를 북돋아준 선배들이 없었다면 논문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공부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들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행정적인 업무를 모두 영어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다. 간혹 영어에 서툰 직원들이 일본어로 소통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때마다 캠퍼스 아시아 사무실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고, 영어 소통이 가능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또한 다행스럽게도 한국어를 잘하는 일본인 친구를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

## 재난 관리, 그리고 실제로 지진을 겪다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은 Disaster Management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참가 학생들은 재난 위기 관리 관련 수업을 들어야 했다. 수업 외에도 유수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위기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특강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고베는 한신 대지진의 여파로 재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도시였다. 실제로 파견 중 고베 바로 옆에 있는 오사카에 큰 지진이 일어나 내가 있던 고베 지역에서도 리히터규모 4~5 정도의 지진을 겪게 되었다. 이 때문에 도로 곳곳의 공사가 불가피했고, 전철 운행에도 차질이 생겨 학교 수업도 휴강이 되었다. 마트에는 밥과 물이 품절되었고, 뉴스에는 사상자

가 계속 늘어났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고 실제로 지진을 겪으니, 재난 위기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었다.

재난과 관련해 들은 특강 중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한 먹거리에 관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일본 정부는 이젠 후쿠시마 지역 먹거리가 안전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여전히 후쿠시마 지역 먹거리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일본에 있었던 한 외국인 교수님께서도 경험담을 나누어 주셨다. 당시 유학생이었던 시절, 마트에서 유독 저렴하게 판매하는 농산물이 있어서 사 먹었는데, 일본어를 하나도 몰랐던 교수님께서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나중에서야 그것들이 모두 후쿠시마 산이었다는 것을 아셨다고 한다. 지금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굳이 후쿠시마 산 농산물을 피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에게 먹이는 음식만큼은 후쿠시마 산을 피한다고 하셨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재난 위기 관리 수업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강을 들은 것은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들을 다룰 수 있는 수업은 많이 부족해, 동아시아 위기 관리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걸맞은지는 모호해 보였다.

### 일본,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가 캠퍼스였다

고베대 국제협력연구과는 말 그대로 글로벌 캠퍼스 그 자체였다. 국제협력연구과에는 일본어 코스와 영어 코스가 있는데, 내가 속해 있었던 영어 코스는 전부 외

국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이 동남아나 아프리카에서 장학금을 받고 온 현직 공무원들이었다.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의 전문성 있는 이야기들은 이론으로는 채울 수 없는 부분을 메울 수 있었다. 특히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을 책상 앞에서는 알 수 없었는데, 수업 중 토의를 통해, 실질적인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들은 또한 좋은 친구이기도 했다. 서로가 경쟁자가 아닌 조력자가 되어 공부를 하다가 잘 모르는 부분은 서로 알려주며 함께 성장하고, 같은 유학생의 심정으로 서로의 생활을 걱정해주기도 했다.

고베대에서는 매년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교육 전문가들을 초청해 트레이닝 하는 JICA Training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프로그램은 견학과 강의 등 다양한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강의를 학생들도 들을 수가 있다. 개발도상국의 교육개발에 관심이 많은 나는 개발도상국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교육개발의 이론과 실제, A 부터 Z까지 배울 수 있는 값진 기회라고 생각하여 적극 참여했다. 프로그램이 논문 제출 직전까지 계속되어서 논문 마무리 작업을 하며 강의를 듣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매우 큰 도움이 되어서 놓칠 수 없었다. 몇 년째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 내 논문 지도 교수님인 오가와 교수님께서도 월드뱅크에서 교육 전문가로 활약하신 것을 포함해 다년간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교육 개발의 이론과 실제에 능통하신 분이다. 따라서 실제로 국제기구에서 교육 전문가로 활

동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트레이닝에 참여한 교육 전문가들도 자국 교육 개발의 현실을 자세히 이야기 해 주었고, 그들과 함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었다.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니 일반 수업에서 토의하는 것보다 더 넓은 시야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은 활동은 심포지엄이었다. 수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개발과 관련한 심포지엄을 마련했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연구를 발표하면 각국의 교육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포지엄 일정이 논문 제출 일주일 전이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어서 부담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논문 심사 준비도 하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내 연구는 우간다의 HIV/AIDS 교육의 효율적 방안에 대한 내용이었다. HIV/AIDS는 우간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도상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모두가 관심 있게 내 발표를 들었다. 그리고 중요한 피드백들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논문 주제가 신선하고, 개발도상국 내에서 중요하고 심각한 이슈를 다루어 주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내 연구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자신들의 나라의 상황과 관련하여 피드백을 주었다. 사실 책상 앞에서 논문을 쓰다 보면, 내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는 순간이 종종 있다. 그러나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내 연구가 탁상공론이 아닌 실제로 현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실용적인 연구라는 사실에 뿌듯했다. 그리고 교육 개발 전문가라는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 보람찼다.

### 정(情), 영어에는 없지만 외국인 친구들의 마음 속에는 있다

흔히 영어에는 우리말 정(情)에 상응하는 단어가 없다고들 한다. 그렇지만 나는 1년 동안 외국인 친구들과 영어로 소통하면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한 번은 몸이 너무 아파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기숙사 밖을 혼자 나가는 것도 힘이 들었다. 그 때, 한 일본인 친구가 기숙사까지 와서 나를 병원에 데려가 통역을 해 주었다. 나중에 또 다시 몸이 아팠는데, 그 때는 그 친구가 수업이 있어 나와 함께 병원에 갈 수 없었다. 친구는 계속 미안해 하며 내 증상을 A4용지 한 장 빼곡히 일본어로 적어 주었다. 그 도움으로 나는 혼자서도 병원에 잘 다녀올 수 있었다. 그리고 결석한 나를 위해 다른 외국인 친구들은 수업 자료를 대신 받아주고, 필기를 복사해 주기도 했다. 또 자주 아픈 나를 보며 지도 교수님과 캠퍼스 아시아 사무실 선생님들, 친구들이 내 안부를 물어 주기도 했다. 혼자 낯선 곳에서 외로워서 힘들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그곳에는 나에게 정을 나누어 주는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통해 또 하나의 학위를 얻고,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나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었던 친구들의 정 또한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 나의 향기로운 CAMPUS Asia 생활



Hao  
Xiguang

지린대학교

사업단

성균관대 - 오카야마대 - 지린대

한국을 떠올리면 무슨 냄새가 가장 먼저 떠오를까? 김치 냄새? 마늘 냄새? 아니면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다는 불고기의 냄새? 달콤한 커피의 향? 세상에는 다양한 향이 있다. 한국에서 지내는 나의 캠퍼스 아시아 생활도 다채롭고 여러 향기가 풍긴다.

## 캠퍼스 아시아에 지원하며

2017년 가을에 나는 길림대학교 문과대학원에 입학했다. 1년 뒤에 전공수업을 다 마치고 마침 논문 주제를 정하고 프로포절을 준비해야 했다. 관심 분야는 조선시대의 한시 작가 및 작품인데 중국에서 찾을 수 있는 참고자료가 너무 부족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지도교수님을 찾아갔다. 교수님의 소개로 '캠퍼스 아시아'란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한국의 성균관대, 중국의 길림대, 일본의 오카야마대의 3국 학생들이 교류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그 밖에도 여러 사업단이 있었는데, 길림대에 연관된 본 프로그램은 인문

학 소양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핵심 인재의 양성을 위한 것이다.

중한비교문화를 전공하는 문과출신의 학생으로서 나는 언젠가 꼭 한번 성균관대를 방문하고 싶었는데 이번 교류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꼼꼼히 신청서류를 준비하고 길림대 국제교류처에 제출했다.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다행히 최종합격을 했다. 발급된 D-2 유학비자의 비고에는 '성균관대'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이 네 글자를 보며 설레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파견기간은 6개월이지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출국 전날에 다이어리 노트를 펼치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적어 놔다. 첫째, 성균관대의 도서관뿐만 아니라 한국국립중앙도서관 등도 활용하여 논문을 쓸 때 필요한 참고자료를 충분히 수집한다. 둘째, 논문 주제를 정하고 연구하고 싶은 한시 작가의 출

생지 및 생가를 탐방한다. 셋째, 적극적으로 교류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같은 이웃나라인 일본에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 세 가지 큰 목표를 다 세우고 곧 시작할 나의 캠퍼스 아시아 생활에 대해 기대하기 시작했다.

## 문화향기에 빠지다

내가 파견된 성균관대학교는 620년 역사에 빛나는 한국 명문대학교이다. 조선 태조 7년 1398년에 설립되었고, 유교를 건국이념으로 하는 조선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이다.

도착하자마자 짐을 기숙사에 놓고 바로 캠퍼스투어를 시작했다. 우선 정문에 놓인 1398년이라는 연도가 눈길을 끌다. 정문 왼쪽에 하마비와 탕평비각이 있는 것만 보아도, 이곳 성균관이 조선시대에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곳이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명륜당이 있다. 성균관에서 유생들을 교육하던 강당이었던 곳이다.

앞마당에 500년 이상 된 은행나무가 하나 있다. 나는 이 은행나무 밑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나무는 지난 오백여 년간 역사의 발전과 시대의 변천을 묵묵히 내려다보았으리라. 내가 서

있는 이곳에 지난 500년간 어떤 분들이 서있었을까? 한국 역사교과서에 나오는 조선시대의 유명한 유학자들이 나랑 똑같은 자리에 서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묘했다. 또한 오른쪽과 왼쪽에는 동재와 서재가 있는데, 성균관 유생들의 기숙사이다. 명륜당 마당을 직접 걷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 전에 재미있게 봤던 한국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에서 나왔던 장면들이 떠올랐다. 이곳에 서있는 내가 신기하다.

명륜당에서 나와 쪽 올라가면 중앙 학술정보관이 보인다. 지금 돌이켜보니 여기는 내가 4달 동안 제일 많이 이용하고 다녀본 곳이다. 나를 엄청 놀라게 한 것은, 중국에서 출판 년도가 오래돼서 구하기 힘들었던 책도 여기서는 쉽게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도서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한국학술지는 물론 해외 연구 자료들도 실컷 다운로드 할 수 있다는 점은, 너무 편리하고 논문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도서관에서 없는 책이라도 희망도서로 신청 가능하다.

어느 날 조선 고종 19년 때의 기록을 찾으러 도서관에 갔다가 우연히 제1서고를 발견하고 들어가게 되었다.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오래된 책 냄새가 코끝을 감쌌고, 이 장대한 지식의 숲을 거닐고 싶은 마음에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아직도 말로 다할 수 없는 설렘

에 가슴이 뛰는 것을 보니 나에겐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 같다.

도서관 이외에 또 자주 드나든 곳은 바로 성균관 박물관이다. 600주년 기념관 지하1층에 있는데 선비들의 문방구류, 문인화류, 사랑방용 가구류, 안방용 가구 등 조선시대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유물을 비롯하여 신석기시대의 마제석검, 청동기시대의 토기, 근현대의 민속품 등 다양한 분야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실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 내가 9월쯤 방문했던 당시에 기획전시실에서는“(Homo-Examicus)-시험형 인간”이라는 주제로 조선 후기의 이색 풍경 ‘소과시험장의 우산’, 정조의 독주를 견딘 ‘오태증의 백패’, ‘개천의 용’ 사범고시의 추억 홍남순의 법복, 어사화(御史花), 복두(幅頭), 팔환은배(八環銀杯) 등을 전시했다. 견문과 시야를 크게 넓히는 시간이었고 많은 공부가 되었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온 캠퍼스에서 문화의 그윽한 향기가 풍긴다.

### 가을 향기 가득히

가을학기부터 시작한 나의 캠퍼스 아시아 생활은 울긋불긋 단풍잎처럼 다채롭고 향기로웠다. 10월이 되면서 온 캠퍼스가 가을 세상으로 변했다. 가을 비 뚝뚝 내

리는 날에 우리는 국어국문학과와 한국 학생들과 함께 1박 2일로 강원도 춘천으로 여행을 떠났다.

춘천은 나한테 낯설지 않는 곳이다. 처음 본 한국드라마가 바로 가을동화였는데 드라마 때문에 춘천이란 지역이름을 인상 깊게 기억했다. 그리고 한국문화수업 시간에서 많이 들어봤다. 가을의 춘천은 아름다웠다. 부슬부슬 내리는 가을비, 땅에서 나오는 흙 향기, 나무 향기, 그리고 사방에 붉게 물든 단풍들을 보면서 사람과 자연이 하나로 된다는 느낌이였다.

우리가 처음에 방문한 곳은 김유정 문화촌이었다. 김유정은 1908년에 춘천 실례마을에서 태어났고, 소설 봄봄과 동백꽃이 대표작인 대한민국의 유명한 작가이다. 문화촌에는 기념관과 함께 나지막한 뒷산을 배경으로, 김유정이 태어난 생가와 디딜방아, 정자 등이 그 시대 모습대로 재현되어 있다. 잔잔한 목소리로 김유정의 일대기를 설명하는 비디오풀을 감상하며 그의 불행한 삶과 그 속에서 꽃피운 예술세계에 빠졌다.

그 다음에 우리는 청평사(淸平寺)로 이동했다. 배를 타고 10분쯤 호수를 가르고 가니 오봉산 기슭에 포근히 안겨 있는 청평사가 보였다. 청평사로 오르는 길, 가을비에 젖은 붉디붉은 단풍이 길섶을 물들였다.

청평사에 들어가서 먼저 눈에 보인 것은 공주와 상사뱀의 동상이었다. 안내문을 보니 중국 당나라 공주



공주와 상사뱀.



상사뱀이 윤회를 벗어난 회전문.



미나 어머니 주신 선물.

와 관련한 설화이다. 공주와 상사뱀으로 환생된 청년의 사랑 이야기를 읽고 공주탑과 회전문 등 명소의 유래를 알게 되었다. 웬지 청평사 내에 낭만적인 향기가 풍기는 느낌이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춘천 음식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닭갈비랑 막국수를 싣고 먹고 돌아왔다. 한중일 아시아 삼국 사람이랑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게 처음이었다. 처음에는 언어장벽 때문에 서로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1박2일 동안 함께 돌아다니고 밤새도록 술도 같이 먹고 놀면서 정이 많이 들었다. 타 문화와의 소통,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얻은 서로간의 이해와 공감은 바로 캠퍼스 아시아가 우리에게 준 값진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 구수한 승능의 향

승능은 밥을 지어 푸어낸 후에, 바닥에 늘어붙은 누룽지에 물을 붓고 데운 물, 즉 누룽지의 국물을 말한다. 구수한 맛이 있으며, 흔히 식사를 한 뒤에 마신다. 캠퍼스 아시아와 함께 하는 네 달 동안에 인상 깊게 남긴 에피소드가 2개가 있는데, 지금 뒤돌아보니 기억 속에 승능의 구수하고 따뜻한 향기가 풍긴다.

하나는 이번 추석 때의 이야기이다. 중국에서 추석은 가족들끼리 보내는 명절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내는 날이다. 그래서 가족과 떨어져 한국에서 혼자서 보내는 2018년의 추석을 외롭고 쓸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명절 전날에 아는 한국인 언





추석 때 한국 가정집 방문.



나랑 미나 언어교환 시간.

니가 전화가 왔다. 같이 대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친해진 한국인 언니다. 언니는 추석 때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집으로 놀러 오라고 했다. 한국 가정집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언니네 가족들은 아주 반갑게 나를 맞아 주셨다. 나를 불편 할까 이것저것 마음을 써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것이 느껴졌다. 한국과 중국의 명절 이야기, 가족 이야기, 한국 생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보로 즐겁게 보냈다.

밤늦게까지 있으면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언니네 가족들과 인사하고 기숙사로 돌아왔다. 그런데 가방이 이상하게 나갈 때 보다 무거워졌다. 가방을 열어보니 송편 등의 간식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나는 순간에 뭉클했다.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일본친구 마나에 관한 것이다. 마나는 일본 나고야대학교에서 교환 온 법학과 학

생이다. 처음에 마나를 만난 곳은 기숙사 1층에 있는 공용주방이었다. 모국어의 차이로 우리의 첫 대화는 한국어와 보디랭귀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헤어질 때 자기의 나라에서 가져온 과자들을 서로 선물했다. 점점 더 친해지면서 우리는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더 원활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 일요일마다 언어교환 공부를 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과 일본문화, 일본사람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서로 문화가 다르면서도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의 언어교환 수업은 네 달 동안 계속 유지되었다.

12월 첫째 주의 일요일 아침이었다. 한국은 이미 첫눈이 내렸고 완전 겨울 날씨였다. 우리의 언어교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마나가 뭔가를 가방 안에서 꺼내면



서 나한테 주었다. 며칠 전에 자기 어머니가 잠깐 한국에 오셨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에 오시기 전에 특별히 날 위해서 직접 준비하신 선물이었다. 일본에서 산 핫팩들이었다. 투명한 선물봉투 안에 핫팩이 가득 차 있고 편지도 한 장 들어 있었다. 어색한 중국표현으로 "그 동안 마나랑 친하게 지내는 것을 늘 감사한다고 기회가 된다면 꼭 일본으로 놀러 오라고" 썼다. 마나가 자기 어머니가 중국어를 전혀 모르셔서 번역 어플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했다. 선물도 중요하지만 직접 번역해서 쓴 편지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 제일 마음에 닿는 것이었다. 올 겨울에 이 핫팩을 쓰면 웬지 몸부터 마음까지 다 따뜻해질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캠퍼스 아시아 생활을 지내면서 느끼는 한중일의 정(情)에 관한 에피소드들이다. 생각날 때마다 마치 송송이 입에 들어갈 때 풍기는 구수하고 따뜻한 향기처럼 내 기억 속에서도 이런 향기가 풍긴다.



## 끝맺음

추억은 필름처럼 시간이 오래 될수록 해상도가 떨어지고 모호해지는 법이다. 하지만 그 추억 속에서 풍겼던 향기는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다. 나중에 비슷한 향기를 맡을 때면 그 향기와 연관된 추억이 쑥쑥 떠오르게 된다.

시간이 빨리 흘러가지만 캠퍼스 아시아와 함께 하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향기로웠다. 도서관과 강의실에서 풍기는 서책들의 향기, 캠퍼스 안에 풍기는 역사 및 문화의 향기, 그리고 같이 여행 갔던 날들에 맡았던 즐거운 향기, 따뜻한 사람의 마음 향기 등등은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것 같다.

이별해야 할 때가 다가온다. '캠퍼스 아시아, 고맙다!' 너의 향기를 오래오래 기억하겠다고 약속한다.

再见!



Takahashi  
Nozomi

오카야마대학교

사업단

성균관대-오카야마대-지린대

## 나의 아시아유학

### 캠퍼스 아시아에 만나게 된 계기

나는 어린 시절부터 전학을 많이 했다.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싶어서 international communication course라는 국제 교류에 특화된 고등학교에 다녔다. 거기서 처음으로 가봤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다. 그때는 영어로 한국인들과 소통을 하면서 1주일 정도 지냈다. 당시 한국인 가족과 함께 홈스테이를 한 것이 나중에 유학의 계기가 되었다. 나는 대학교에 입학한 후 무미 건조한 생활을 보냈다. 그런데 그 한국인 가족이 나에게 한국에 놀러 오라는 연락을 했다. 4년만에 보게 될 가족을 기대하며 한국에 갔다. 오랜만에 간 한국은 낯설었고 일본과 너무 달랐다. 대구에 도착해 오랜만에 그 가족과 만났다. 그 가족에는 10살짜리 동생이 있었다. 그 동생은 4년전의 나를 기억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영어와 일본어를 배웠다. 일본어로 자기소개를 하고 편지까지 써준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반면에 나는 한국어로 말을 할 수 없어서 속상했다. 그 때의 일이 계기가 되어 캠퍼스아시아로 한국유학을 하게 되었다.



### 아시아 유학의 시작

2017년 9월에 한글조차 읽을 수 없는 상태로 한국 유학을 시작했다. 서울에서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걱정 없이 한국에 갔다. 그러나 내가 사는 동네에는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마트에서 현금으로 계산을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



서 뒤에 있는 한국아줌마들이 답답해 했다. 결국 빠른 걸음으로 나를 앞질러서 계산을 해버렸다. 나는 한국아줌마의 급한 성격이 너무 무서웠다. 반면에 아메리카노를 한 손에 들고 다니는 한국대학생을 보고 멋지다고 생각했다. 나는 쓴 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달콤한 스무디를 들고 다니며 한국대학생의 모습을 따라 했다. 언어 때문에 불편한 것도 많았고 빨리 한국어를 배워야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 목표는 반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남은 반년 동안 한국어로 한국학생과 같이 수업을 듣는 것이었다. 내가 1년동안 한국유학을 한다면 얼마나 한국어를 잘 할 수 있게 될까 궁금했다.

### 언어의 원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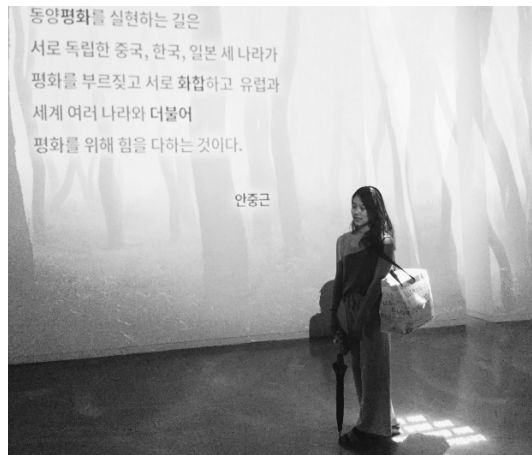
캠퍼스아시아는 좋은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같은 반 친구들은 대부분 중국인이었다. 그래서 한국어로 중국친구와 대화하면 할수록 서로 많이

알게 되어 재미있었다.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운 가장 좋은 점은 배운 단어를 바로 실제 생활에 써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은행에 대한 단어를 배우면, 은행에 가서 실제로 계좌를 만들었다. 병원에 대한 단어를 배우면, 병원에 가서 배운 단어를 연습했다. 배웠던 단어가 들릴 때 마다 즐거웠다. 사실 한국어 수업에서 한국친구와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다. 한국 대학생이 어떤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에서 캠퍼스아시아를 담당하는 선생님의 일본역사 수업에 참여했다. 당연히 한국어 설명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수업에서 학생이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 수업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학생이 있었다. 그래서 다 함께 일본어와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나는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한국학생은 일본어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공부하는 문화는 일본의 대학교에서는 보지 못해서 너무 신기했다. 서로 다른 언어를 공부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차이를 이야기하거나 고민을 상담했다. 그 수업에서 만났던 친구들은 유학 중에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 한국어를 통해 갖게 된 시야

겨울이 오자 유학생들이 익숙해졌다. 한국어도 많



이 늘어서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다. 생활에 여유가 생기자 한국은 이전보다 다르게 보였다. 2학기에는 한국어로 세계화에 대한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세계화를 공부하면서 동아시아의 경제에 관심이 생겼다. 도서관에 가서 동아시아 경제를 공부했다. 책을 한국어로 읽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경제를 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동아시아의 경제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정치적 대립이다. 내가 캠퍼스아시아로 유학하며 배운 것은 역사를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자, 여러 박물관과 기념관을 다니며 교과서에서 얻을 수 없는 지식을 얻었다. 한국이 소장한 전시물을 보고 당시의 상황을 알게 됐다. 현지에서 역사 전시물을 보고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됐다. 앞으로 한국인과 더 깊은 신뢰 관계를 쌓기 위해서는 한국의 예민한 부분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캠퍼스아시아가 선사 해준 것

이러한 경험으로 캠퍼스아시아가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일본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한국의 문화가 한국에서 지내면 지낼수록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국인처럼 행동하며 말할 수 있도록 한국인의 모든 것을 따라 했다. 하지만 상당히 어려웠다. 특히 자기의 의견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마음 속에서 다른 의견이 있어도 말하기가 어려웠다. 한국친구가 보기에는 왜 아무 의견이 없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할 때도 있었다. 특히 조별과제를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역할이나 의견을 말해야 했다. 이러한 문화차이가 일상의 사소한 오해를 일으켜도, 서로 알고 지내다 보면 오해를 풀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는 예전보다 더 성장하며 한국인에게 가까워졌다고 느꼈다.

또한 캠퍼스아시아는 나에게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주었다. 한국어를 잘 하고 싶다는 이유로 시작했던 유학이었지만, 중국인과의 함께 한국어를 배웠다. 일상생활에서 서로 부딪혔지만 한국어로 오해를 풀 경험이 있었다. 한국에서도 중국과 교류하고 있다고 느꼈다. 이러한 이유로 캠퍼스아시아를 통한 유학은 한국유학이 아니라 동아시아유학이었다. 한국에서 만났던 친구들 덕분에 중국에 흥미가 생겼고 중국을 더 잘 알고 싶게 됐다. 이제 중국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내년부터 중국유학을 하기로 결심했다. 캠퍼스아시아는 나에게 아시아를 향한 관심을 선물해주었다.



## 일본에 돌아온 후에도

지금은 오카야마 대학교에 돌아와 L-cafe라는 언어교환카페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 카페에 아시아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다. 또한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오카야마 대학교에 온 한국유학생과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내가 한국에서 했던 언어교환 스터디 그룹처럼 언어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서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아시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다.

## 캠퍼스아시아를 계기로 열린 꿈

나는 동아시아에서 활약할 수 있는 비즈니스맨이 되고 싶다. 비즈니스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다. 비즈니스를 할 때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그 나라의 상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에 일본의 기술이나 제품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런 기술과 제품을 아시아시장에 충분히 알리지 못하고 있다.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 중에 어느 곳에 있어도 그 나라의 상식이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비즈니스맨이 되고 싶다.

## 캠퍼스 아시아 유학

한국에 유학한 1년동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것을 경험하며 생각을 했다. 캠퍼스아시아는 시간과 나라를 더 알기 위한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한일중에 대해 생각을 할 계기를 많이 주었다. 아시아인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동아시아에서 활약할 수 있는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 항상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1년동안이었다. 캠퍼스아시아를 이용해온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시아인으로써의 책임감이 커졌다. 지금은 이런 귀한 경험을 선사해준 캠퍼스아시아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언젠가 동아시아에 갚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 원동력이 되며 오늘도 동아시아의 리더가 되도록 한걸음 한걸음 걷고 있다.



Wang Sirui

상해교통대학교

사업단

부산대 - 규슈대 - 상해교통대

## The journey to Fukuoka

On 17th, August 2018, stepping off the plane, I was on the land of Japan with a feeling of uneasiness. In this island nation, everything around me was so intriguing but unfamiliar. Because of the time difference, I got up one hour earlier each day here than in China, reading unfamiliar Japanese words and communicating with local people in unskilled Japanese. My 12-day journey to Fukuoka and CAMPUS Asia activity officially began.

The first impression of Fukuoka was clean, tranquil and beautiful. Few people in the tidy street and the azure blue sky dotted with white clouds formed a particularly peaceful landscape in this little town. The tourist attractions in Fukuoka were a must for me. During this 12-day journey, I have visited Fukuoka Tower which is the tallest seaside tower in Japan. From the

tower's observation deck, I was able to overlook the whole Fukuoka street and Hakata harbor clearly, which made me astonished. I also visited Dazaifu, which exposed me to Japanese history and culture. Roaming around Dazaifu, I felt that I was in the PS4 game world rather than reality for the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layout inside Dazaifu are almost the same as that in 'NIOH', which is a famous PS4 game. Located in the North of Kyushu, the Nokono Island, to which my classmates and I excused in our spare time, is also one of the top tourist spots in Fukuoka. We enjoyed the great beauty surrounding this place and had a fantastic view of coastal scenes. In the island central park, we could listen to cicadas chirping, smell the fragrance of flowers and watch dragonflies flying across the low sky, which enabled us to immerse ourselves in



My first impression of Fukuoka.



Fukuoka street and Hakata harbor.



I and my classmates on Nokono Island.



Central park on Nokono Island.

a peaceful countryside, getting away from the hustle and bustle of urban life.

The 2018 CAMPUS Asia EEST Summer School was held by Kyushu University in Fukuoka, Japan. This international activity accommodated college students from Korea, Japan and China. As an engineering thermo physics graduate student from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I was glad that I could take part into this activity because I did not have a chance to participate in overseas academic exchange program like th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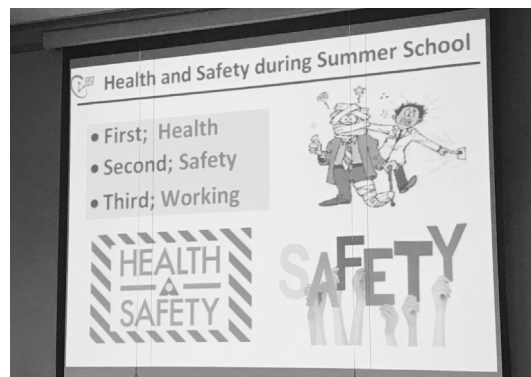
one during my undergraduate study.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CAMPUS Asia activity served as a valuable opportunity for me to learn from and exchange with college students from Korea and Japan. More importantly, making friends with them definitely makes me exposed to other diverse and splendid cultures, thereby broadening my international horizon and improving my intercultural competence.

The summer campus courses covered leading edges of material science, mechanics,



Teachers and students from Korea , Japan and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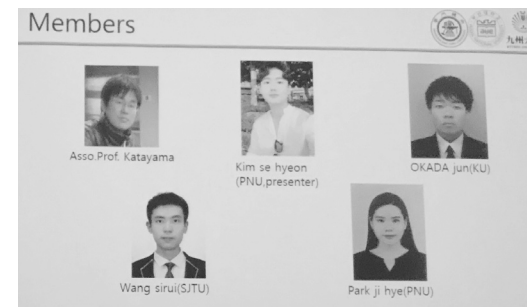
environment and energy engineering, which were delivered by distinguished scholars from Korea, Japan and China. Each class, the background knowledge and technical applications of different scientific fields were explained by teachers in simple language, which had us better grasp the current scientific development trend. What I remembered most was the course delivered by Professor Byung-Koog Jang. 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summer school, he emphasized three important things, which were health, safety and work respectively. His speech was so humorous and interesting that everyone could still remember his words. His course was about the applications of special materials, which was amusing and thought provoking. In his class, some kinds of special materials were shown and demonstrated to us. Frankly speaking, it was the first time for me to touch these high-performance materials by myself, which made



Three most important things in summer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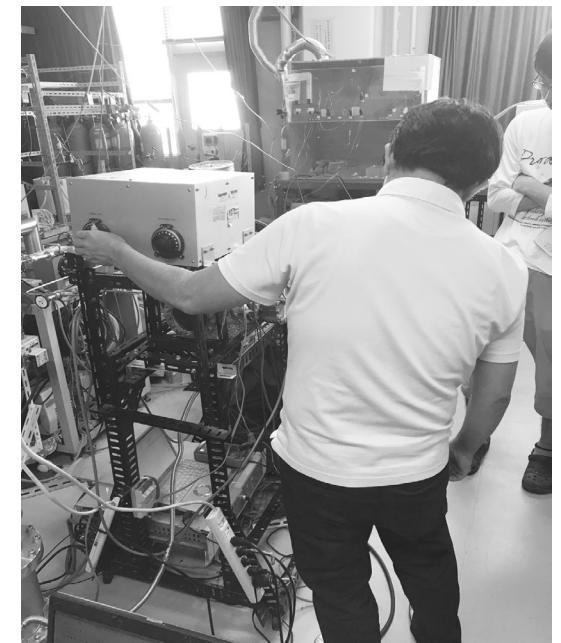
me feel really excited.

At the middle of the summer school, we had 2-day lab experiments, including the group cooperation and final group report. Our team was consisted of one Japanese student, two Korean students and me. Associate professor Katayama, who was knowledgeable and approachable, was our tutor of the lab experiment. He first introduced the background of fusion reaction



Associate professor Katayama and our group.

and the internal structure of hydrogen plasma reactor to us. After 1-day experimental courses, we mastered the basic knowledge and analysis methods of hydrogen plasma reactor and started to prepare for the final group report. As my major is engineering thermo physics, I was chosen to analyze the heat transfer in the whole reaction system. Mr. Okada, Mr. Kim and Ms. Park were responsible for investigating hydrogen plasma reactor's background knowledge, giving final presentation and making PPT slides respectively. All of them had a very strong team spirit, and they never complained about tough tasks. From them, I learnt how to develop teamwork skills and cooperate with others. Thanks to their dedicated efforts, the project was completed very successfully. Through communicating with them, I picked up many valuable insights which activated my creativity. I also realized that English



Associate professor Katayama and our group.

is a bridge of communication which helped us overcome language barriers and share thoughts with each other. It is crucial for us to master this universal language well for it will benefit our future academic careers and have us express ourselves freely with foreigners.

On August 24, we had a scientific tour to Kitakyushu Next Generation Energy Park. Our first stop was Hibikinada wind power electricity generation plant and Kitakyushu solar power generation plant. The local guide told us that the fund of power plant construction came



Hibikinada wind power electricity generation plant and Kitakyushu solar power generation plant.



Exhibits in Kitakyushu exhibition hall.

from citizen donations, enterprise investments and government sponsorships. The electricity generated by this power station will be incorporated into the national grid of Japan. Every year, Japanese government will take parts of the profit from the power generation to provide subsidies for citizens and enterprises that have made donations and investments. This coastal power generation plant has set a successful example for the cooperation between citizens, corporations and government.

At exhibition hall of Kitakyushu Next Generation Energy Park, the background of the Kitakyushu Eco-Town Project was illustrated to us by the staff. In the early 1960s when Kitakyushu

had experienced severe environmental pollution, the government realized this issue and then overcame it together with the city's residents and companies. After years of efforts, the blue sea and clear sky came back again, in which local citizens could enjoy their lives. With the strict waste separation and recovery system, the Kitakyushu Eco-Town can almost achieve one hundred percent waste circulation and zero emission. In recent years, Japanese government also used Kitakyushu Eco-Town as a model to further promot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The successful experience in Kitakyushu was rolled out across the whole nation, which also worth other countries to refer

and follow.

This journey to Fukuoka has left me with numerous wonderful memories. I visited naturally beautiful places and tried a variety of delicious Japanese food. I used my mobile phone to capture every unforgettable moment in Japan and noted down every bit of my exchange life on my computer. This trip also tapped my language potential, enabling me to practice both my English and Japanese. Our group had two Muslims who couldn't eat pork because of their religious taboos. One day, when we had a meal in a local restaurant, they had some difficulties in asking the waiter whether there was pork in the meal. They could not speak Japanese and the waiter could not understand their English, either. In order to tackle this awkward situation, I used my unskilled Japanese to talk with the waiter and finally solved this problem. With the aim of improving my oral Japanese, I seized every chance to chat with local people in Japanese. During the communication process, I got to know about the traditions and customs of Japanese people, which deepened my understanding about Japanese culture and history.

Although my major is not related to foreign



"Thank you" written in four different languages.

language, I am keen on learning a new foreign language. In my spare time, I studied Japanese on my own as I have already regarded it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languages in the world. Learning a new foreign language has given me a new way of thinking, allowing me to see the world through refreshed eyes and helping me overcome cultural barriers. In the future, I am also willing to learn Korean because my Korean classmates let me realize that Korean is a very melodious language and I also have great interest in the Korean culture.

Finally, I would like to give my sincere thanks to all the staff in CAMPUS Asia Program and my classmates from Korean, Japan and China. They have left me with the most unforgettable memories in Fukuoka, Japan.



2018 CAMPUS Asia

## 한·일·중 사업 체험수기 수상집

### ‘방 안의 코끼리’를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

고동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DBIA-Don't Be (afraid) If (you are) Afraid : 두렵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김현민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 베스트 프로그램과 함께한 2년

박이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 그동안 왜 몰랐을까?

박수진 한국예술종합학교

### 한·일·중의 ‘물’을 먹다

오창엽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뒤이어 일본을 방문할 후배님들에게 드리는 시답잖은 수기

임성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다시 또 시작의 시점에서 1년을 돌아보며

이현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8 규슈대학교 Summer School 체험수기

정영빈 부산대학교 에너지환경

### 일주일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정재연 서울교육대학교

### My studying and life in Korea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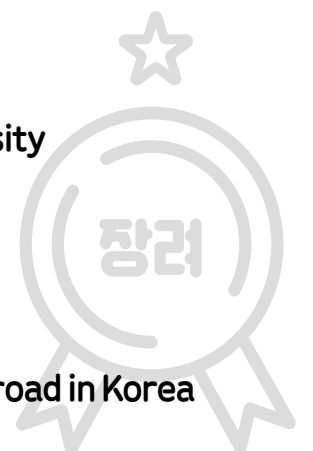
Du Mengzhen 푸단대학교

### Fantastic Busan

Jiang Chunyan 상해해양대학교

### Creation and Connection – Study abroad in Korea

Zhang Yongzhe 지린대학교





## ‘방 안의 코끼리’를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



고동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업단

성균관대-나고야대-인민대

땀땀하지 못한 고백과 함께 글을 시작하려 합니다. 때는 2017년의 무더운 여름. 그 당시 저는 9월 말 일본에 파견되어 1년 동안 공부하게 될 것이라는 것만이 정해진, 정작 일본인과는 대화 한번 나뉘본 적 없는 밤 중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파견이 시작되는 출국일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기대 속에서 보내고 있던 중,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나고야대학교 친구들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한국 일정의 주(主)는 세미나였지만, 밤낮으로 세미나가 열리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는 한국의 이곳 저곳을 방문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를 방문하려 해도, 한국인인 저에게도 복잡하디 복잡한 서울의 대중교통을, 하물며 지리에 낯익지 않은 외국인이 아무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을 리는 만무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반영되어 목적지는 학교에서도 제법 가까운 독립문 근처로 정해졌고, 시간이 되는 한국 학생들 2,3명(저 포함)이 독립문 가까이 위치한 시설의 입구까지 일본학생들을 안내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신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일본학생들을 기다리는 동안 부족한 일본어나 소심한 성격이 그들이 어색하거나 지루해 하지는 않을까, 그들을 불편하게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오히려 제가 불편해할까 먼저 다가와주고, 대화가 끊기지 않게 노력해주는 친구들 덕분에 큰 문제 없이 독립문 역에 도착했고, 목적지까지도 도로 15여분의 거리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 정확히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두 떠오르지는 않지만, 그 날 날씨가 몹시 무더웠기 때문에 나고야의 여름 날씨는 어떠한가 제가 물어보았는데, 한국보다 훨씬 덥고 습하다는 대답에 매우 놀랐던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독립문을 지나, 독립공원에 다다랐을 즈음, 한 친구가 손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예요?”

그 친구가 가리킨 동상은 송재(松齋) 서재필 선생의 것이었습니다. 돌아보면 백 번 천 번 부끄러운 일이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아찔했습니다. 많은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독립운동가’라고 대답하자니 기분 좋게 이곳을 방문했을 일본친구들과의 관계가 꺾여 버릴까 봐 두려웠고, 얼버무리자니 순간의 불편함이 두려워 숨기지 말아야 할 것을 숨기는 비겁한 사람이 될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3, 4초 정도의 짧은 정적 사이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긴 고민 끝에 저는 제 나름의 타협점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타협’을 하였다는 것조차도 끝없이 부족한 제 역사 인식, 무엇이 중한가를 판단하는 잣대의 결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 당시 저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질문이자 시험이었습니다.

우습고 어이없게도, 저는 그 친구의 질문에 ‘언론인’이라고 답하고 말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한 그 대답은 하지 않는 것 만도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에도 도움이 않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질문에 입을 열어 대답하긴 했지만, 독립 공원에 왜 저 사람의 동상이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의 속뜻에 50점도 되지 못하는 답변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땀땀하지 못한, 부끄러운 대답을 하였습니다. 언론이나 친구들과의 대화주제에서 일본 정부, 민간이 위안부나 역사왜곡 이슈를 일으킬 때면 누구보다도 길길이 날뛰며 잘못되었다고 말해왔는데, 정

작 그 이슈의, 일본측 당사자도 아닌 사람 앞에서 아무 것도 말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못나 보였습니다. 앎(知)의 완성은 행함이라 하였건만, 지금까지 마음으로 깊이 느끼고, 분노하며 살아왔는데, 한 순간에 무너진 제 자신이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물론 분노라는 격정적 감정이 일본을 향한 제 의식 전부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잘못된 무언가를 교정하는 과정의 시작은 분노를 느끼는 것이라고 믿어 왔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함이 드러난 제 분노에 대해서 다시 분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2개월 뒤쯤, 중부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에 입국,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들과 살을 맞대며 살아가는 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조금은 두렵기도 했습니다. 타국에서 생활한다는 사실에 설렘만, 앞으로 만나게 될 무수한 일본인들이 곤란한 질문을 던져오지는 않을까, 그때마다 어떻게 대답하고, 반응해야 할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 1년이라는 길다면 긴 시간 동안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이 부분을 제 나름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더 당당하고, 단단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방 안의 코끼리(The elephant in the room)’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방에 코끼리가 들어가 있다면,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코끼리를 보지 않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울기도 하고, 움직여 쿵쿵 소리를 내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런 코끼리를 밖으로 내보내자니 일이 복잡해질 것 같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자니, 일이 커질 것 같아 방 안의 사람들은 모두 이 코끼리를 못 본 체합니다. 이처럼 모두가 다 알지만, 누구도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민감하고 심각한 문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일본에서 처음 일본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갈등은 저희에게 '방 안의 코끼리'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본친구들을 사귀어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꺼내기 두려웠고,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해 코멘트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조금 더 당당해지기로 마음먹었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나고야 대학교에서의 두 번째 학기에, Peer Support Initiative라는, 한 학기 동안 일본학생과 다른 나라 학생들이 한 팀이 되어, 각 나라의 문화와 제도에 대한 지식을 교환하는 세미나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 팀에는 저와, 3명의 일본 학생들, 그리고 베트남 학생 2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세미나 기간에는 매주 각 나라의 사회 제도나, 문화 등을 주제가 해당 나라 학생의 발표를 통해 소개되는데, 그 세미나 기간이 거

의 끝나갈 때쯤, '베트남 전쟁'이라는 주제로 베트남 학생들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고, 어느 때처럼 아무 생각 없이 발표를 듣고 있었는데, 발표가 끝나갈 무렵 2명의 베트남 학생 중 한 명이 갑자기 저를 보며 "물론 베트남 사람들의 심신에 많은 상처를 남긴 베트남 전쟁에 한국의 부대가 참가했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대하는 너의 태도에 조금의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지금 베트남과 한국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 한국이 노력해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 맞은 듯이 멍해졌습니다. '관계에서의 상처' 치료의 출발점은 양 당사자가 모두 그 상처를 똑바로 마주하는 것인데, 그 순간의 찢끄러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그 상처를 마주하는 것을 피해 다녔던 것입니다. 약 1년 전 한국에서 일본 친구들에게 엉뚱한 대답을 했던 저도, 그리고 일본에서 반년을 넘게 생활하고 있었던 저도 그 코끼리를 놓고 상대방과 마주하는 순간의 찢끄러움이 두려워 그것을 못 본 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베트남 친구가 먼저 뻗어준 손을 저는 잡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되게 서로의 존재, 서로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들을 마주보고 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 동안 베트남 친구들과 이야기

를 나누고, 저는 원래라면 돌아갈 기숙사를 지나쳐 한참을 더 걸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은 무척이나 오랜 시간 동안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역사를 공유해왔습니다.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이 위치해있어, 상대국과 활발히 교류할 수 있었고, 서로의 문물을 교환하기에 용이했습니다. 때로는 일국의 멸망에 다른 민족이 개입하기도 했고, 무력으로써 침략해 다른 민족의 역사를 멋대로 써 내려 가려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영토와 세력을 끝없이 넓혀가고자 하는 욕망이 인간의 DNA에 쓰여져 있다는 것, 그리고 '역사'가 인간의 아름다운 면만을 기록하지 않은다는 것을 우리는 수천 년의 동아시아 역사를 통해 목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것만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언제나 불신하고, 반목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비극이 다시 우리를 덮쳐오지 않도록, 우리의 아름다운 면이 최대한으로 발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 제가 이 수기의 주제를 '방 안의 코끼리를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붙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직도 동아시아에는, 해결되지 않은 어두운 과거사 문제가 많이 존재합니다. 긍정과 부정이 대립하기도 하고, 부정과 부정이 대립하기도 하는 많은 문제들에 둘러싸여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을 왕왕 마주하곤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비슷한 곤란할 상황을 마주했고 마주할, 캠퍼스 아시아 학생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훌륭한 학생들은 물론 자신의 단단하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곤란을 잘 극복해내겠지만, 아직 그런 문제에 많이 직면해보지 못한 분들은 적잖이 당황하거나 저처럼 언젠가(또는 직후에) 후회할지도 모를 타협점을 찾아낼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언젠가 우리는 그들과 그 사안들을 가운데에 두고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앞으로도 수천, 수만년(삼국이 존재하는 한) 역사의 페이지를 함께 써내려 가야 할 공동체이고, 협력의 운명을 짊어진 동반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존재인 그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방안의 코끼리를 모른체하는 것처럼 고개를 돌리거나 피해버리기만 한다면 그들에게도 사안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와주기를 바라는 것도 물론 문제해결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마음가짐이겠지만, 우리 역시 그들에게 당당한 태도로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곪은 곳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상처를 똑바로 보고, 살을 찢고 도려낼 부분은 도려낼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요. 감사합니다.



김현민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사업단

서울대-히토츠바시대-북경대

## DBIA-Don't Be (afraid) If (you are) Afraid : 두렵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뜨거운 여름이 물러 가고 어느덧 선선한 가을 바람이 찾아온 길목에서 캠퍼스아시아 후원으로 참가하게 된 DBIA(Doing Business in Asia : 3국 순회하계연수 프로그램) 후기를 작성하려 하니 실감이 나질 않는다. 아직도 30명의 친구들이 바로 옆에 있어 웃고 떠들며 대화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바로 손 닿을 수 없다는 현실이 꿈만 같고 믿겨지지 않는다. DBIA 프로그램을 글로도 말로도 담아 내기엔 역부족이지만 이 글을 통해 열정으로 가득했던 2주 여정의 자취를 다시 한번 따라가 보고자 한다.

### PKU module (북경):

공식적인 수업이 시작되기 전 Welcome session 및 그룹 별 Ice-breaking time은 DBIA 시작이자 6일간 몸담아 공부하게 될 PKU에 대한 정보, 전통 등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같은 PKU 학생들이어도 다른 캠퍼스에서 온 친구들이 있으며 다양한 배경의, 각기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프

젝트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넘어가 3주간 함께 할 친구들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었다.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참여자들을 파악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그룹 멤버들 간 어색함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는 시간이라 좋았다. Welcome dinner 또한 수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PKU에서 대접한 저녁식사는 중국의 손님 대접 문화와 그들의 DBIA에 대한 열정, 유익한 모둠을 이끌어 나겠다는 의지를 대변해주었다. 공식적인 프로그램에 임하기 전 참여자들의 사기를 한층 높여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PKU 학생들이 준비한 Welcome gift는 중국의 문화, 스토리가 담긴 설명과 함께 개인별로 전달되어 저녁식사가 끝날 때쯤 어색했던 공기가 한층 따뜻하게 풀려 모두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공식 일정은 아니지만 각 모듈의 Hospitality가 프로그램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PKU의 사례 깊은 환대는 DBIA 프로그램이 알찬 여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는 단단한 토대이자 기분 좋

은 시작이 되었다. 그 후 PKU모듈의 첫 강의인 Urban Entrepreneurialism: A New Growth Paradigm은 중국의 사업, 경제 활동의 특징적인 배경 형성에 대한 문화와 이를 역사적인 접근으로 이해를 도와주었다. 중국 역사에 대해 공부했거나 중국 친구들을 통해 중국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와 특징은 알고 있다손 치더라도 중국만의 특수한 문화가 형성된 뒷이야기는 외국인으로서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위 강의는 깊이 있는 설명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다. 예를 들어 '관시(關係)'가 생겨난 혹은 생길 수 밖에 없었던 물리적, 심리적 배경을 알려주어 수업 내내 학생들의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다. 나아가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각 국가별 설문조사, 데이터를 비교하여 같은 상황에 대해 상이한 반응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대한 정보도 들 수 있었다. 이러한 수업은 프로젝트의 주제인 Chinese' unique Consumer Behavior를 진행시키는 데 단단한 밑거름이 되었다.

The Economy of China: the State, Economic Reform, and Challenges과 Marketing in China (I, II)는 각각 중국의 경제와 마케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중국 경제에 대해 떠올리면 빠른 경제 성장과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막연하게 그려볼 뿐이었다. 위 강의는 현재 중국의 시장 변동과 경제력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주며 경제 성장과 하락이 발생한 사회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까지 곁들여 한층 깊이 있는 이해를 도왔다. 중국 경제의 현 상황과 위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 앞으로 중국 경제가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시간이었다. 나아가, Marketing in China는 중국 소비자들의 특수한 행동과 여기에 대응한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에 대한 강의였다. 이 수업은 각 그룹들이 새롭게 창의적인 관

점으로 Subject에 접근해 프로젝트를 완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인 IKEA(이케아)는 쇼핑을 일종의 여가생활이자 나들이로 생각하는 중국 소비자들의 행동에 맞추어 매장 밖에 그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정원을 만들어 놓았으며 화요일마다 Senior들을 위한 행사를 마련해 중국에서 사랑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중국 현지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끔 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수업은 중국만의 특수성, 특별한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었다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었다. 수업 내용과 배치 순서에 배려를 느낄 수 있고 실제로도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구성이었다고 생각한다. 강의 외 방문한 천안문 광장, 자금성 그리고 우천으로 만리장성을 대신해 간 이화원은 중국인 (중국 소비자이기 전에) 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역사적 의식과 그것이 바탕이 되어 나타난 이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끝난 후 PKU 친구들이 마련한 Activity로 식당과 변화가를 방문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중국 소비자들의 행태를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시장을 조사하는 기회가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 [참조1]

중국 방문 후 새롭게 깨달은 것은 3국 중 가장 활발하게 IT를 Business와 연계해 시장을 운영한다는 점과 동시에 First taker의 Advantage가 독점하게 되는 platform과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불편함도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새로운 기술을 발 빠르게 이용하는 중국의 움직임이 빠른 성장과 경제 대국의 타이틀을 지니는데 원동력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나라 경영, 경제 시장도 중국의 발 빠른 추진력을 배워 적용한다면 더 큰 도약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SNU module(서울):

PKU와 ICS는 각 국의 Special Consumer behavior, Local Market 비교 분석이 Group Project의 주제였다면 SNU는 조금 특별한 요소가 더 들어갔다. 북한과 한국의 특수한 정치적 관계 속 한국이 새롭게 포착할 시장, 취해야 할 행동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아쉽게도 기후로 인한 비행기 연착으로 Changing the World Order and Korean Peninsula 수업이 취소되었지만 Group Discussion에서 PKU, ICS 친구들이 궁금하고, 잘 모르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그룹 프로젝트에 대한 방향을 정하고 SNU 모듈에 임하게 되었다. FNC Entertainment 기업 방문과 Amore Pacific 기업 인사 강연과 더불어 Samsung way 송재영 교수님의 강의는 현재 주목받고 있는 한국 시장(K-beauty, POP)과 기업의 강점 및 특색에 대한 Wrap up이 되어 외국 친구들은 물론 SNU 친구들이 미처 몰랐던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 격변하는 북한과의 관계 속 새롭게 탄생하게 될 각 산업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은 무엇인

지 고민해 볼 수 있었다. How Korea Works-Bridging Cultural Gap은 외국인(강연자 Todd sample)의 관점으로 느낀 Korea Business의 독특함과 그의 한국 문화 적응기를 이야기 나누는 유쾌한 시간이었다. PKU모듈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중국 문화, 독특한 Business Model이 있었음을 떠올려보며 외국인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Korea Business Model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마지막 강연인 Do Financial Markets know Best?는 재무,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환기해주며 우리 그룹 프로젝트 주제의 방향성을 잡는 데 이정표가 되었다. Business 마케팅, 소비자 행동 관련 내용들이 수업의 주를 이루다 보니 자칫 매물될 수 있었던 시각을 전환시켜주어 새롭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 주제를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 결과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 마주하게 될 금융시장 모델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를 준비하면서 북한의 은행, 금융 시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북한의 경제도 어느 나라와 다를 바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한국인으로서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을 프로젝트를 통해 더 공부하고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정말로 뜻 깊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참조2] 정규 수업 외에 방문한 DMZ 지대와 북한촌 한옥 마을은 SNU Module의 주제와 부합한 장소였다. 더욱이 내국인도 쉽게 방문할 수 없는 DMZ지대를 방문해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고 앞으로 다가올 시장 변화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외국 친구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옹골찬 시간이었다. 비공식적인 단체 활동으로 한강 투어, 남산타워 방문은 2주간 동고동락한

친구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며 한층 두터운 우정을 쌓게 해주었다. 동시에 수업으로 지친 정신을 환기시켜주며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원천이 되었다. 좋은 수업과 유익한 정규 프로그램도 좋지만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요소도 중간에 넣어주는 것이 참 필요했고 그 효과가 컸음을 실제로 체감했다. outdoor activity는 같은 그룹이 아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게 되고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어느덧 진정한 친구로 거듭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식 일정과 더불어 진행된 다양한 활동과 모든 시간은 매 순간순간이 알차고 목직하게 울렸다.

### ICS module(동경):

어색함 보단 프로그램이 끝나간다는 아쉬움이 커져 갔을 때쯤 시작한 ICS모듈은 마지막 모듈이라는 생각과 함께 더욱 큰 열정과 뜨거운 마음가짐으로 임하게 되었다. 동시에 새로운 팀으로 멤버들 교체가 이루어져 그룹 프로젝트를 할 때에도 함께 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적절한 시점에 현명한 계획이었다고 생각한다.

ICS 모듈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Ken Kusunoki 교수님의 열정이었다. 모든 일정과 강의에 참석하셔서 DBIA를 이끌고 진두지휘 하셨다. ICS는 첫날 강의를 제외하곤 기업 방문과 기업 인사 초청 강연이 주를 이루었는데 모든 일정이 좋은 의미에서 '강(強) 강(強) 강(強)'이었다. 매 수업시간은 흥미롭고 재미있었고 강연자들의 열정이 넘쳤다. 단 한 개의 Session도



놓칠 수 없고 알차게 구성되어 기억에 남지 않은 미약(弱)함이라고 찾아볼 수 없었다. Japanese culture session은 일본 저변에 깔린 사상과 정신 여기서 파생된 문화, 일본만의 독특함 등을 차근차근 기초부터 설명해주어 ICS 모듈 첫 번째 그룹프로젝트인 "Unique characteristic of consumer behavior and retailing/service business in district in Tokyo"[참조3]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후에 이루어진 Tokyo Tour는 각 그룹별 프로젝트를 위한 시장 조사와 더불어 생생한 체험과 함께 일본(도쿄)을 둘러볼 수 있는 1석 2조의 기회였다. 여러 곳을 둘러보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을 꼽으라면 "메이드(maid) 카페"였다. PKU, SNU 친구들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이 카페는 젊은 여성들이 메이드 복장으로 '카와이(kawaii)'를 일종의 서비스이자 상품으로 제공한다. 외국인의 시선으로는 카페의 컨셉과 분위기가 참 불편했다. 하지만 이러한 메이드 서비스는 낮은 여성 인권의 문제도 아니며 일본의 geeky, minor 남자들을 위한 카페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단순한 귀



여음이 아니라 예쁨, Petit, 다정함, 친근함 등의 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카와이(kawaii)'한 일본 문화를 반영한 건전한 서비스 산업이었다. '메이드 카페'에 대한 그룹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본 친구로부터 들은 설명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일본인의 사고방식과 그 기저에 깔린 일본 사회 배경과 문화를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 그룹 발표가 끝난 후 유튜브에서 PPAP 영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끈 Pickotaro이자 프로듀서인 Kazuhito Kosaka씨의 초청강연을 들었다. 흔히 사람들이 한국의 싸이와 견주곤 하는 인물이다. 콘텐츠와 이미지 메이킹의 방향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것만큼은 공통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싸이와 관련한 질문이 많았다. 대답을 할 때마다 producer로서 그의 창의력, 성장 가능성,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재치와 유머 또한 빼놓을 수 없었다. 그 외에도 SUNTORY 기업 연사 초청 강연은 일본 기업인 SUNTORY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기업 전략, 운영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기업 방문으로 이루어진 Plan Do see, UNIQULU, GROOVE X는 일본 기업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프로그램에서 들은 강의들을 차치하더라도 흔히 일본 시장에 대해 '정체된, 침체된, already developed- less opportunities, red ocean'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신흥 경제 강국들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보았을 때도 일본의 경제 성장은 여전히 진행중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저변에는 Smart, passionate, Customer-oriented 등으로 점철된 일본 기업들의 노력과 행보가 있었음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이윤 추구는 기업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이지만 기업 방문에서 느꼈던 점은 '경제적인 이익' 보단 각 기업들이 '기업의 비전과 미션'을 주된 목표로 두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었다. Japanese Local Company가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리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일본 특유의 기업 운영의 영향 덕분일 것이라 감히 판단해 본다. 공식적인 프로그램 외에도 ICS 에서 준비한 리셉션과 여러 activity 들은 현재 일본의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고 DBIA 2018의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해주었다. 약 3주간 동고동락한 친구들과 더 친해지고 정이 들었기 때문에 같은 야외 활동 시간이라도 중국, 한국에서보다 더

끈끈하고 목직하게 보냈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는다.

개인적으로 DBIA 프로그램은 2018년을 통틀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망설임 없이 답할 것이다. 마케팅 연구 주제와 방향을 잡지 못해 머리를 싸매고 끙끙대던 나에게 새로운 시각과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해주었다. 단순히 국내 경제 시장과 소비자 행동 분석에서만 연구를 진행하기에 급급했던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중국, 일본을 포함한 3국의 소비자 행동 패턴 분석과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 앞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히 상술할 수는 없지만 DBIA 프로그램 참여로 영감을 받아 진행시킬 연구 주제를 설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고 뜻 깊은 활동이었다. DBIA 프로그램은 '3국간의 아시아 비즈니스 이해'를 넘어서 학문적으로도 경영학을 분석하고 접근하려는 학생들에게도 견문을 넓혀주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맺은 인연들은 아시아 비즈니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표본 모집에도 도움이 될뿐더러, 타국의 경제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조력자가 되어 줄 수 있다.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경영 지식과 이해에 대한 성장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나아가 Doing business in Asia를 실현시키는 데 탄탄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향후에 미칠 파급효과와 잠재력은 가히 파괴적이라고 생각한다.

3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새로운 사실을 많이 발견했다. 3국 중 가장 많이 정보화 움직임이 보인 것은 중국이었다. 중국은 화폐 없는 국가를 선포하면서 모든 결제를 "Wechat pay(위챗페이)"시스템을 도입해 실행하고 있었지만 섬세하고 꼼꼼한 계획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역설적이



게도 가장 비(非)현대화된 곳을 꼽으라면 일본이었다. 전철에서는 아직도 종이 티켓을 발견하고 화장실에 핸드 드라이어보단 휴지를 쓰고 있었다. 더 많은 예시와 인프라들 간의 비교를 나열할 순 있지만 중국과 일본의 모든 모습이 점철된 중간자 역할은 한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특수한 위치를 앞으로 '경영' '시장'에 있어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대처해야 하는 지 등을 고민해보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훌륭하고 멋진 사람들과 함께한 DBIA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경영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더 멀리 보고 넓게 보는 시각을 얻을 수 있었고 개인적인 성장도 이를 말할 수 없을 만큼 거두었다. DBIA는 참여자들의 애정과 소중한 추억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 잊지 못할 전환점이 된 DBIA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많은 이들이 나와 같은 엄청난 경험과 놀라운 체험 그리고 소중한 추억을 얻어갔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DBIA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



**박이현**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사업단**

서울대-도쿄대-베이징대

# 베스트 프로그램과 함께한 2년

## 0. 베스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까지

지난 2년이라는 시간은 나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 나는 명색이 대학에서 외  
교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웃국가  
들에 대해서 별 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다.  
일본어, 중국어는 평균 한국인의 교양 수준에서 몇 마  
디 구사할 수 있는 정도였다. 그랬던 내가 동아시아 3  
개국의 대학들을 돌고 돌아 지금까지 왔다.

1년 반 기간의 소회를 적어 내려가기 앞서서, 프로  
그램에 참여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  
다.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캠퍼스 아시아 사업의 일환인  
베스트(BeST) 프로그램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17년 2  
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베스트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정  
식으로 생겨나기 전,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도쿄대학  
교양학부, 북경대학 원배학원의 한중일 대학생들이 3  
주간에 걸쳐 교류를 도모하는, 제1회 겨울 베스트 프로  
그램에 참가했다. 그 프로그램에서 생전 처음으로 중국  
학생과 일본 학생을 만났는데, 돌이켜보면 이 만남들이

내 인생 역사상 큰 전환점이라 하겠다.

외국 물을 먹어본 적 없는 한국 토박이라, 처음에는  
어설픈 영어로 친구들과 말을 겨우겨우 걸었다. 그 동  
안 영어 공부 좀 더 열심히 해놓을 걸 하는 뒤늦은 후회  
가 들었다. 활동 중간중간 서둘러라도 “밥 먹었어요?”  
나 “감사합니다” 같은 기초 중국어와 일본어를 써 보  
기도 했는데, 친구들이 그걸 용케 알아듣고 기뻐해주  
는 것이 너무 고마웠다. 길지 않은 일정에서 나는 소중  
한 친구들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처음으로 생긴 외국인  
친구들이었다.

그 해 3월부터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도쿄대학 출신  
일본인 친구와 연을 계속 이어갔다. 내 자취방에서 한  
달 동안 살면서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을 가졌다. 이십 몇여 년간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아  
온 두 사람이었지만, 이야기를 할 수록 성격이 비슷하  
다는 것을 알았고, 인생 가치관도 닮은 점이 많다는 점  
을 깨달았다. 그 친구 역시 한국어가 서툴러서, 다 큰  
사내 둘이서 좁은 자취방에 눌러앉아 몸짓, 발짓 다

해가면서 겨우 대화를 해나갔던 기억이 떠오른다. 지  
금 생각하면 그 꼴이 우습지만, 그 때는 나름 진지했  
다. 그 친구를 통해서 나는 일본에 대한 호기심이 점  
점 커져만 갔고,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일  
본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같은 마음이었는지  
그 친구도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다. 같은 시기 때마침  
서로의 학교에, 캠퍼스 아시아 베스트 교환학생 프로  
그램 공고가 떴고, 우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원  
했다. 고작 3주 남짓했던 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이 계  
기가 되어, 향후 1년이라는 시간을 해외에서 보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 1. 한국에서의 베스트 프로그램

자유전공학부 베스트 프로그램은 1년 반으로 구성  
된다. 서울대학교에서 반 년간 필수 지정교과 수강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반 년간의 생활이 끝나면  
도쿄대학, 북경대학 순으로 한 학기씩 교환학생으로 파  
견된다. 서울대학교에서 프로그램에서 6학점, 두 종류  
의 수업을 수강하였는데, 같은 프로그램으로 도쿄대 에  
서 파견된 학생들과 연구분야를 정하고, 해당분야를 한  
학기간 같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행스럽게, 2월 프로그램에서 연을 맺은 친구가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합격하여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한 조가 되었고, 사회학을 전공하는 그 친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한 학기 동안 사회학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연구 테마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서울대학교 시설이 얼마나 장애인들에게 개방적인지를 연구하였고, 나머지는 한국의 노인혐오 현상을 주제로 일본과의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도쿄대학 캠퍼스가 최근 장애인에게 개방적인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에서 영감을 받아 서울대학교의 해당 분야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인 QGIS를 사용하여 서울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지도를 직접 작성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서울대학교의 학부 별, 건물 별 장애인 시설 유무에 관해 통계를 내어, 이를 점수 방식으로 데이터화하고 최종적으로 지도로 시각화하였다. 대학에서의 전공을 뛰어넘어, 사회학은 물론이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세계를 맛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었다.

한편 한일 각국에서 노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현재 대학생들이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해보았다. 한국어, 일본어로 각 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각 나라의 노인 복지 분야의 서적을 읽고, 인식의 변화하는 원인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학문적으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한 학기였지만, 같은 기간 일본어 친구와 함께 언어를 완벽하게 갖고 닦았던 시간이기도 했다. 학기가 끝날 때가 되니, 어느새 나는 일본어 능력시험에서 최고급을, 그 친구는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최고급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 학기 동안, 아니 7개월 동안 일본인 친구와 같은 자취방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친형제 같은 친구를 얻었다. 자란 환경이, 언어가, 문화가 완전히 다른 사람과 이토록 가까워지는 경험은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학문적으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한 학기였지만, 같은 기간 일본어 친구와 함께 언어를 완벽하게 갖고 닦았던 시간이기도 했다. 학기가 끝날 때가 되니, 어느새 나는 일본어 능력시험에서 최고급을, 그 친구는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최고급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 학기 동안, 아니 7개월 동안 일본인 친구와 같은 자취방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친형제 같은 친구를 얻었다. 자란 환경이, 언어가, 문화가 완전히 다른 사람과 이토록 가까워지는 경험은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없을 것이다.

## 2. 정든 친구와의 이별, 그리고 도쿄

정든 친구와의 이별에서 오는 아쉬움 뒤로 한 채, 혼자 새로운 환경에 부딪쳐보기로 했다. 열심히 연마한 일본어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 왔다. 그렇지만 해외에

서 긴 시간 살아보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처음 발 디딜 때 겁부터 났다. 가족도, 친구도 없는 일본에서 4개월을 사는 것을 상상하면 눈앞이 깜깜해져 갔다.

해외에서 생활하는 것이 체질적으로 맞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쪽이었다. 자취만 하다가 기숙사에서 통학하는 것도 어색하고 힘들었다. 서울대학교가 아닌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도 낯설기만 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은 새로운 환경에 노출된 누구나 겪는 성장통 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생활 법을 찾아내 갔다.

내가 찾아낸 해결법은 수업을 무작정 많이 듣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과제나 시험이 닥쳐오는 것이 겁나서 그간 들어보지 못했던 수업들을 일본에서 마음껏 듣고자 했다. 총 7개의 수업을 수강하였으며, 그 중 2개는 영어로 진행되는 캠퍼스 아시아 교류학생 대상 필수 수업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일본어 원어로 진행되는 수업이었다.

학기 초반 교환학생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일본어 테스트에서, 원어민 수준에 가까운 최고급수를 인정받았다. 성적을 기준으로 수업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일본인 학생도 같은 수업에 등록하는 걸 보고, 고작 몇 개월 만에 일본어가 이렇게 늘었다는 사실이 내심 부듯했다. 해당 수업에서는 일어로 논문을 읽고, 보고서를 쓰는 것에 대해 배웠다. 학술적인 일본어는 친구와의 언어교환에서 배우기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수업 과제를 꾸준히 해가다 보니 다른 전공수업에서도 일본어로 기말 리포트를 생각보다 손쉽게 작성할 수 있었다.

나머지 수업에서 내가 얻고자 한 바는 명확했다. 일본의 시각에서 본 한국과 중국의 모습을 알고 싶었다.

일본에 대해서는 지난 학기 프로그램에서 친구와의 교류를 통해 알게 되었지만, 일본이 바라본 한국, 그리고 앞으로 파견될 중국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적었기 때문이었다. 중국에 대해서는 솔직히 무지에 가까웠던 만큼 뭐든지 알고 싶었다. 중국의 헌법 과목과, 중국의 정치사 수업을 들으면서 큰 틀의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의 관계와 각 국의 근 현대사, 현재 중국이라는 국가가 있기까지의 내부에서 어떤 투쟁과 변혁이 진행되어 왔는지 탐구해보았다. 또 다른 수업, 한국 경제론 수업에서는 성장, 복지, 노동, 출산 등 매 세션 각 사회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일본 경제와 비교를 진행하였다. 단순히 일본이 낫다, 또는 한국이 낫다고 하는 비교 방식이 아니라 배울 점은 배우자는 것이 결론으로, 일본의 사회 경제 구조를 한층 깊게 알게 되면서, 일본 학생들과 매 시간 토론을 하면서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첫 해외생활에 점수를 매긴다면, 내 점수는 낙제점에 가까울 것이다. 반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야 쉽게 말하지만, 일본에서의 한 학기는 힘든 시간 이었고,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적도 한 두 번이 아니다. 나중을 생각 않고, 수업을 무작정 많이 신청한 탓인지, 봄이 끝나갈 무렵에는 기숙사 방에서 일주일 정도 폐인생활을 한 적도 있다. 일본어가 얼마나 능숙해졌다 하더라도 매시간 논문을 읽고, 발표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업이 끝나도 기숙사 앞 편의점에서 일본어로 말해야만 하는 생활에 진절머리가 났던 것이다.

학문적 성장만이 교환학생 시절의 목표가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파견 초기에는 이 간단한 것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주위를 둘러보면 한국과는 다른, 매력적이고 신기한 것이 너무 많았는데 학기

초기에는 공부에만 집중했다. 해외 생활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비행기에 탔었는데, 이 역시 무리였다. 유학생들이 구령팅이에 빠져 있을 때 나를 구해주었던 것은 주위의 한국 유학생들이었다. 김치 없는 밥상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인의 원동력은 역시 김치인가 보다. 주말마다 먹으러 간 삼겹살이 그렇게 맛있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북경대학 유학생생활에서는 이때의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알차게 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 3. 북경에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그리고 8월부터 지금 글을 쓰는 이 순간까지 북경대학 원배학원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이번엔 수업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듣고 있다. 한국에서의 경제학과 외교학 전공을 살려 중국 경제론과 국제개발협력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하고 있다. 급속도로 성장해온 중국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중국-아프리카 관계라는 그간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분야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수업 외 남은 시간에는 중국어를 독학하거나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야말로 최고의 휴가를 즐기고 있다. 익숙해진 탓인지 기숙사 생활도 더 이상 외롭지 않다.

2017년 2월 겨울방학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도 그랬지만, 한 학기 도쿄대학에 파견되었을 때 역시 중국은 나에게 있어 미개척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도쿄대학에서 중국에 대해 공부하고, 반년간 중국에서 직접 생활하고 보니 점점 중국이 정겨워지는 것 같다. 애초에 중국에 대해 어떠한 인상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마주하는 중국은 매번 새롭고 흥미롭다.

세계 전도를 봐도 알겠지만, 중국은 너무나도 넓다. 그래서 어디 여행을 다녀와도 다른 기회에 다른 곳에 가보면 완전히 색다른 매력을 맛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학기 내내 향산, 백두산, 태항산 등 중국 각지의 산을 다니고 있는데, 어떤 봉우리에서 내려다보더라도, 그림처럼 펼쳐진 경치들에 감탄하고 있다. 여행지에 따라 말에 사투리 억양이 심한 지역이 있지만, 이 역시 중국의 매력이라. 가끔 말을 못 알아듣거나 하면 미소로 응대하곤 하는데, 투박하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들 친절하게 잘해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름방학 때부터 중국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만해도, 식당에서, 길거리에서 들리는 중국어가 소음처럼 들려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된다. 중국어에 노출된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새 중국어 능력시험에서도 최고급수를 취득하게 되었다. 2년 전에는 중국어와 일본어를 말하는 내 자신을 상상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어디 가서 밥 빌어먹고 살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스스로가 자랑스럽다.

이야기가 처음으로 돌아온다. 2년이라는 시간은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다. 소중한 친구를 사귀기도 하였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취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실컷 보고 즐긴, 꿈만 같던 시간이었다. 남은 유학 기간은 3주, 짧은 시간 동안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것을 경험할지 기대된다. 처음 3주간의 베스트 프로그램이 나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았듯이, 지금의 3주도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 아니겠는가?

마지막으로 뒤에서 항상 응원해줬던 형제 같았던 친구들과, 파견기간 항상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학부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을 남긴다.





# 그동안 왜 몰랐을까?



박수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사업단

한예중-도쿄예술대학-중국전매대학

## 1. 지원동기

중국을 경험해보고 싶다. 이와 같은 생각을 시작으로 저는 본 캠퍼스 아시아 교환학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에서 예술 경영과를 다니면서 중국의 시장에 대해서 익히 들어왔지만, 큰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교환학생 지원자 선정 공고를 본 저는 중국에 대한 편견을 잠시 밀쳐내고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3개월은 그다지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으로서 적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으로 가고 싶다고 결정한 순간부터 저는 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시장에 관심을 토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들에 관심 가졌고, 이와 같은 관심은 중국에 지내는 동안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 2. 지원절차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아시아 측에서 학교 전체에 중국으로 3개월간 교환학생을 갈 학생을 모집하였

습니다. 연말, 연초 사이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중국 학교들이 방학이었고 그래서 서류상 절차가 조금 더딘 점이 있었지만 착오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중국전매대학에 외국인 교환학생 신청서를 인터넷 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 후에 중국으로부터 받은 비자와 입학서류를 바탕으로 단기 유학 비자(X2)를 발급받았습니다.

중국에 도착하면 중국전매대학 내에서 캠퍼스아시아 담당 코디네이터와 학생들과 함께 학생증 발급, 기숙사 등록, 핸드폰 개통,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학금을 위한 통장개설까지 모두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행자 보험은 학교 측에서 필수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먼저 가입하고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 3. 교육경험

중국전매대학에서는 이번 캠퍼스아시아 교환학생들을 위해 따로 수업을 개설해 주었습니다. 개설된 수업은 총 네 강의로, 중국 애니메이션 역사, 모션그래픽

디자인, 실험 애니메이션, 그리고 중국어 수업이 있었습니다. 각 교환학생들은 수업을 자신의 필요에 맞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었고, 모든 강의에서는 영어로 설명이 가능했기 때문에 중국어를 하지 못하더라도 양질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자발적으로 특정 선생님께서부터 특강을 요청하거나 세미나를 받고 싶다면 자유롭게 요청하여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갑작스러운 교환학생들의 요청에도 유연하고 긍정적으로 처리해주었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전매대학 내에서 진행되는 워크샵에도 참여가 가능했기 때문에 다양한 유명인사들의 세미나 참여가 가능했던 점도 좋았습니다.

## 4. 에피소드

이번 교환학생 참여 학생들은 학부생부터 석사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전공이 한데 어우러졌던 점이 조화로웠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도쿄예술대학 대학원생 한 명이 같이 이번 교환학생을 참여했기 때문에 완벽한 3개 국의 교환 프로그램이 성사되었던 것 같습니다. 북경에서의 에피소드를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3개 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와중에 한국인 학생 중 한 명의 생일이 있어, 열명 정도와 함께 하우스 셰어를 하며 사는 중국인 친구 집

에 가서 한국인 학생 생일파티 겸 한국음식 파티를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음식을 해주고, 중국인 친구는 중국음식으로 화답하며 맛있게 서로의 음식을 먹었던 그 날은 시진핑 주석이 연임되면서 북경에 처음으로 가장 큰 눈이 내렸던 날이었습니다. 소복소복 쌓이는 눈 만큼 중국에 대한 정이 쌓였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중국 신장 자치구에 열흘간 혼자 여행을 떠났던 것이 큰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편안한 여행이라고 할 수 없었지만 열흘 정도의 시간을 통해 저는 북경에서 느끼지 못할 중국 소수민족의 삶과 새로운 중국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중국에 대한 편견은 중국인들을 향한 애정으로 변화했습니다. 순수하고 직접적이며, 낯선 땅의 한국인에게 쉽게 다가오며 친근함을 격 없이 보여주는 모습은 나를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어를 배우기 위해 중국인 친구들을 만난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저와 나이가 많게는 10살, 적게는 6-7살 정도 차이가 나는 중국 친구들이었습니다. 제 연령대의 중국 친구들과 많이 다른 그 친구들을 통해서 저는 중국의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에 격 없는 깨끗한 도화지 같은 마음과 열정, 그리고 도전정신으로 저를 감탄하게 하였습니다. 삶에 진지하고 성숙한 사고로 임하는 태도를 보면서 북경에 오기 전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중국의 편견에 대해 많



# 한·일·중의 '물'을 먹다



**오창엽**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사업단**

서울대-도쿄대-북경대

이 부끄러워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유일한 일본인 교환학생이 저와 같은 기숙사를 사용하면서 저는 이번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중·일 삼국을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각 나라의 관점과 견해를 낫선 북경 땅에서 한 번에 마주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번에 경험 할 수 있어 더욱 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 5. 후배 참가자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먼저 캠퍼스 아시아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조금 열떨떨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부터 중국인에 대한 편견까지.. 일반적인 한국인의 인식 속에 중국은 그다지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저 역시 처음 중국을 방문했던 4년 전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 다시는 중국에 여행을 오지 않을 것이라 다짐을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생각지 못한 기회를 통해 3개월 동안 북경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다시 중국에 갈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통해 중국에 가기 전에 주변에서 다들 걱정하기 일수였고, 부정적 인식 속의 중국을 생각하며 각종 우려의 목소리로 저에게 심심찮은 위로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염려와 동

시에 과거 스스로의 부정적인 예상과 달리 저는 북경에서의 3개월을 아주 잘 보내었습니다. 그 시간을 더욱 더 귀중하게 보낼 수 있었던 데에는 언어와, 유연한 문화 수용의 태도에서 비롯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열린 만큼 받아들이고 체험 할 수 있습니다. 그 태도에는 언어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기로 하였다면 즉시 중국어를 혹은 일본어를 기초라도 배우고 가는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혹은 짧은 시간에 무슨 도움이 될까? 라는 태도는 교환학생으로 3개월을 타국에서 살게 될 때 많은 후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당부는 아마도 북경에 가기 이전에 급히 3개월만 중국어를 공부했던 저의 개인적인 아쉬움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전매대학의 친구들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중국어를 하지 못해도 큰 아쉬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중국을 느끼고 싶다면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태도와 생각으로부터 모든 것은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3개월은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또 긴 시간이기도 합니다. 출국 전에 3개월 뒤의 나는 어떤 모습 이길 바라는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귀국할 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동안 왜 중국을 몰랐을까?”

## 1. 들어가며 - 물의 온도 차이만큼 다른 세 나라

중국에서 1년 남짓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내내 적응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식당에서 제공하는 ‘뜨거운 물’이었다. 중국인들은 한 여름에도 뜨거운 물을 즐겨 마시는 까닭에 나는 음료나 생수를 추가로 주문해야만 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도 식사 후에는 찬물로 입가심을 해야 비로소 식사를 마무리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반면 일본은 뜨거운 물, 찬물, 미지근한 물을 지칭하는 단어가 각각 존재하여 각자의 취향에 따라 원하는 온도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되어있다. 뜨거운 물을 천천히 마시는 중국인들로부터 중국 특유의 ‘만단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며, 손님이 원하는 것을 서비스해 주는 일본인들로부터 일본이 자랑하는 ‘오모테나시’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같은 색의 검은 머리, 같은 피부색이라는 이유로 우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 나라의 생활 속에 존재하는 작은 차이로부터 비롯되는 생각의 차이는 적지 않다. 이렇듯 세 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문

화적으로는 결코 가깝다고 볼 수는 없기에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불린다. 이러한 특수한 관계에 놓인 세 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이 동북아가 여러 이슈로 긴장 국면에 처해 있을 때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학문의 영역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은 동북아 협력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한국, 일본, 중국의 일류 대학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은 미래 동북아가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내는 밑거름이 될 가장 이상적인 플랫폼이다. 본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지난 2년여 시간 동안의 경험과 느낀 바를 소개해보려 한다.

## 2. CAMPUS ASIA BESETO - 한·일·중 일류 대학의 국제 관계 전공 프로그램

서울대 국제대학원-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이 참여하는 캠퍼스아시아 BESETO



복수 학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2년 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본 소속 대학에서 1년, 복수 학위 파견 대학에서 1년 그리고 한 학기를 교환학생 파견 대학에서 수학하게 된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학생의 경우, 복수 학위 대학으로 베이징대 또는 도쿄대를 선택할 수 있다. 나의 경우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1학년을 마치고 중국 베이징대에서 1년 복수 학위 과정을 이수한 후, 도쿄대에서 마지막 한 학기를 보내고 있다. 이 기간 내에 학점 이수과 함께 서울대와 베이징대의 석사 학위 논문 총 두 편을 동시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시간적인 부담은 있다. 하지만 각 학교에서 제공하는 타고 수학 학점 인정 기준을 참고하여 효율적으로 시간을 안배한다면 본인의 논문에 집중하며 원하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고, 또한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주는 교외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진행된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 국가의 언어에 능숙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한 소통과 교류가 가능하다. 그리고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이 수학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서 개설한 수업에는 해당 국가의 학생들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도 참여하고 있으므로 그들과 함께 국제 관계를 둘러싼 학문적 토론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베이징대에서는 국제 관계, 국제 정치, 국제 정치 경제 전공에서 개설되는 강좌를 수강할 수 있고, 도쿄대에서는 주로 경제학, 법학과 관련한 수업이 개설된다. 물론 중국어나 일본어에 능통하다면 해당 국가의 언어로 진행

되는 수업도 들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열려 있으므로, 본인의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한편, 베이징대와 도쿄대 모두 중국어와 일본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언어를 접한다는 것은 내 몸에 새로운 피를 돌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한 나라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다. 베이징대와 도쿄대는 각국이 자랑하는 최고 대학만큼 제공하는 언어 프로그램 또한 양질이다. 베이징대의 경우 언어 수업을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각자의 수준에 맞는 반에 배치되어 중국어를 배우게 된다. 도쿄대는 언어 수업을 일반 과정과 집중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본인의 실력과 스케줄에 따라 탄력적으로 언어 수업에 임할 수 있다. 또한 캠퍼스 아시아 학생들이 머물게 되는 도쿄대 코마바 캠퍼스 기숙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일본어 교실을 무료로 가까운 수강료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 어르신들을 선생님과 초빙해 수준별 그룹 학습을 진행하는데, 보다 가벼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일 양국이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직접 느낄 수 있다.

### 3. 캠퍼스 생활 - 자율과 배려, 중국의 진정한 학(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국의 이미지와는 달리, 베이징대는 자유로운 학풍을 자랑한다. 중국 근현대사의

역사적 전환점마다 그 중심부에는 베이징대가 앞장서고 있었고, 학문적으로 자유로운 학교 분위기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베이징대의 교수님들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국제 관계를 분석하고 있었고, 중국 학생들과는 다른 의견을 내는 한국이나 일본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며 동조하기도 했다. 가령, 한동안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드 관련 이슈에 대해서, 한국 측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인정하며 상호간에 논리적인 토론이 가능하도록 이끌어 주셨다. 중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에서는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 중국 학생들이 주로 수강하다 보니 중국 정부에 대한 거침없는 분석도 들을 기회가 있었다.

논문 지도의 경우 교수님들께서는 유학생으로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며 성심껏 지도해주셨다. 논문 상담을 위해 연구실을 처음 방문했을 때, 지도 교수님은 나의 개인적인 배경, 성장 환경, 유학 생활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궁금해하시며 한 시간가량이나 논문 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도 했다. 또한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은 논문 집필에 있어서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었다. 일류 대학의 교수님들의 위상에 맞게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로 인해 서로를 알고 계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나의 경우 서울대와 베이징대 교수님들께서 서로 교류가 있으신 터라 논문을 지도 받기에 수월한 면이 있었다. 덕분에 서울과 베이징을 오가며 양교(兩校) 교수님들의 지도를 동

시에 받을 수 있었고, 보다 내실 있는 논문을 쓸 수 있다는 성취감으로 수고롭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있었다. 그 결과,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에서 수여하는 우수 논문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을 수 있게 되었고, 스스로 만족하며 베이징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 4. 체험 학습 - 과거 그리고 미래

캠퍼스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보고 듣는 흥미로운 경험은 자칫 피로할 수 있는 유학 생활의 활력소가 되기도 한다.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체험 학습을 통한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체험 학습은 단순히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여행이 아닌 학술 교류, 국가기관 방문, 유적 답사 등을 포함해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베이징을 떠나 중원의 '과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고도(古都) 시안, 중국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금융 중심지 상하이, 중국이 자랑하는 자연의 보고(寶庫) 윈난을 둘러보았다. 시안에서는 문화 유적 탐방과 더불어 경제 기술 개발구를 방문하여 중국의 혁신 정책을 주제로 정부 관계자와 소통할 기회도 마련되었으며, 베이징대가 진행하고 있는 신석기 유적지 발굴 현장도 답사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상하이에서는 푸단대에서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반가운 만남을 가지고 학술 교류를 진행했다. 윈난에서는 빈곤 구제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파리(



**임성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업단** 성균관대-나고야대-인민대

## 뒤이어 일본을 방문할 후배님들에게 드리는 시답잖은 수기

大理) 자치주 내 작은 현을 방문했다. 도시에서 자라온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농촌 생활의 애환에 공감하며 정부 정책으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나아지고 있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다. 결국 핵심은 교육 기회의 보장이었고, 정책이 시범 시행되고 있는 중학교를 참관하며 그들의 꿈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오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은 환대와 관심을 아끼지 않았고 그들의 정과 순박한 진심을 가슴에 담아 올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비무장지대(DMZ)와 부산 그리고 동계 올림픽이 열렸던 평창에서 일본, 중국 학생들과 함께 추억을 나누었다. 남북 분단의 현실을 눈앞에 마주할 때에는 함께 ‘과거’를 안타까워하였고, 올림픽을 관람할 때에는 한국, 일본, 중국 선수들이 나올 때마다 세 나라의 학생들이 하나 되어 목청껏 응원하며 우리의 ‘미래’를 보았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한국식 뒤풀이에서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가 한 데 어우러져 국적 불명의 언어가 난무했지만, 모두가 서로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뜻을 이해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신기한 광경이 펼쳐지기도 하였다. 한국, 일본, 중국의 문화가 공감대 속에 하나로 모인 가운데, 우리 모두는 마치 그 날 밤 즐겼던 하나의 맛 좋은 “쌈”과 같은 관계를 다지고 있었다.

### 5. 맺으며 - 이제는 더 넓은 물로

캠퍼스 아시아가 선물해 준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다짐한 것은 편견으로 세상을 바라

보지 말자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진정으로 궁금해했고, 한국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교실에서, 때로는 잔을 부딪치며, 그리고 낮은 곳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만났던 모든 이들은 한국인인 나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싶어 했고, 또 그들의 견해를 전달하고자 했다. 솔직하게 터놓는 마음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그 동안 책에서만 배운 지식들을 전부라고 생각하거나 그것이 옳다고만 여기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기존 사고의 틀에 갇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본 것은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흔히 유학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리켜 “외국 물을 먹고 왔다.”라고 한다. 세 나라의 ‘물’을 맛보며 느낀 것은 그들이 즐겨 마시는 물의 온도 차만큼이나 생각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공감이 요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보다 열린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더 이상 고여있는 물이 아닌, 더 넓은 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나에게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은 큰 물로 향할 수 있도록 물길을 내어준 기회였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참가하여, 캠퍼스 아시아가 동북아 협력의 기반을 다질 마중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기간 동안 관심과 배려로 도움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주신 분들께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 1.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3일에서 4일 길어봐야 일주일인 여행과 달리 1년이란 기간의 국외생활은 생각보다 복잡 다양한 경험들을 야기한다. 출발 전 1년이면 길 것이라 생각했던 자신에게 조소를 보낼 만큼 시간은 날다시피 지나가버렸고, 짧았던 그 파견의 마침표로써 수기라는 도돌이표를 끄적여 본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전해야 할까?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내가 보고 느낀 바를 진솔하게 전하는 것이 다음에 일본을 방문하게 될 후배님들에게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었다. 여행자가 아닌 유학생으로서, 생김새는 비슷하나 그림에도 외국인으로서 보낸 일본의 모든 시간들은 나를 성장하게 했고 파견 이전의 나와는 또 다른 색의 나를 만들어 내었다. 첫 대학원 수업을 들어갈 때 느꼈던 떨림보다 더한 묘한 긴장감과 기대 속에서 자기소개를 했던 기억이 불현듯 떠오른다. 정말 다양하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각국에서 날아온 아이들의 자기소개를 들으며 기대에 부풀었던 나를 돌

아본다. 한국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공부를 해 본 적이 없었기에, 여러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서 진행한 토론들이 지금도 선명하게 뇌리에 남아있다. 각종 수업에서 부족한 회화능력에 몸서리쳐야 했던 1년이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감사한 일이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해 바득바득 이를 갈던 그때의 내가 조금은 더 나은 지금의 나를 만들었으리라 믿는다.

이 글을 읽을 분이 파견이 확정된 분인지 파견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일지는 알 수 없으나, 캠퍼스아시아 교환학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프로그램이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귀한 시간을 들여 조사하고 알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제도라는 점을 힘주어 말하고 싶다. 솔직하고 담백하게 펜 흘려가는 대로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근거들을 가져와 볼까 한다. 다음 장부터 서술될 이야기 들은 모두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개인에 따라 동일한 사건일지라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둔다.

## 2. 파견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하나

‘나는 긍정적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한 번쯤은 해 보시기를 바란다. ‘긍정적이지 않으면 가지 말라는 말이냐!’ 라고 반문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이 질문은 국외에서 장기간 공부를 하려는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준비과정이기 때문에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출발하기 전의 나를 반추해보면 나고야 대학에서 듣게 될 수업들을 가장 걱정했던 것 같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교수님의 약력을 자세히 살펴본다든가 학사 일정 및 수업계획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등 출발 전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대부분 해본 뒤 비행기에 올랐던 것으로 기억한다. 덤으로 일본어학원, 영어회화학원도 열심히 다녔다. 그럼에도 물론 수업은 쉽지 않았다. ‘모처럼 일본에 왔는데 일본 대학원생들이 듣는 일본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마음으로 신청한 일본 지방재정법 수업은 말 그대로 나를 잠 못 들게 했다. 파견을 가게 될 여러분도 나와 같은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수업만큼 혹은 누군가에게는 수업보다 힘든 점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일본이 ‘외국’이라는 ‘사실’이었다.

빙 둘러 이야기하는 꼴이 되어버렸고, 후술할 부분도 난잡하기 이를 데 없을 텐데, 결론을 말하자면 자신이 가진 ‘문화적응력’의 크기를 꼭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문화적응력’ 문제는 생각이상으로 유학생들에게 치명적이다. 기숙사에서 알게 된 캄보디아 친구는 이 문제로 상당한 방황을 했었다. 영어와 일본어 모두 본인보다 뛰어난데도 고국으로 돌아가려 했을 정도로 문화적응은 쉽지 않다. 해당학기에 입학한 모

든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세션을 하나 따로 만들어 ‘문화적응문제’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학교 측에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아무리 가까울 지라도 다른 나라이다. ‘한자문화권’이라고 불리는 문화권 구분개념에 속한다고 보더라도 한국과 일본은 엄연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이들의 문화를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혹은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어디까지 신경 쓰지 않고 지낼 수 있는지 점검해보는 것은 파견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 문제는 비단 일본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 문화에 익숙하고 일본음식을 좋아한다고 자만했던 나 역시 약간이지만 문화적응력으로 인한 슬럼프가 있었다.

피부에 와 닿을 직접적인 예로 ‘음식’을 들까 한다. ‘자장면을 하루에 한 끼씩, 한 달을 먹으면 맛있을까?’ 라는 우문의 현답은 ‘맛없다’이다. 실제로 맛이 없게 된다. 메뉴 하나하나가 다 맛있어 보이던 설레는 학교식당은 그 메뉴가 그 메뉴로 되어버리고, 음식을 자신이 원하는 만큼 덜어가 무게에 따라 돈을 지불하면 되는 훌륭한 학식뷔페는 칼칼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느끼한 뷔페가 되어버린다. 많다면 많다 할 수 있고 적다면 적다 할 수 있는 횡수이지만 본인은 나고야에 오기 전까지 10번이 넘는 일본여행을 했었는데 김치를 찾아본 적이 없었다. 12일간 2000km를 운전하며 훗카이도 여행을 했을 때에도 한국음식을 그리워한 적이 없었지만 나고야의 경우는 달랐음을 시인한다. 불과 두 달이 지나지 않아 마트에서 김치를 주워 담고 있는 자신

을 발견하며, ‘아 나는 한국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다. 덤으로 밝히자면 일본에서 판매되는 대다수의 김치는 현지화가 되어버려서 엄청나게 달다. 너무 달아 다 먹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고 버려야 했던 김치가 한 두 팩이 아니다.

옆길로 빠진 이야기를 다시 되돌리면 한국과 일본은 비슷해 보일지라도 다른 국가임을 이해하길 바란다. 덤으로 나 역시 일본과 다른, 한국에서 산 한국사람임을 받아들이면 금상첨화이다. 일본에서 자전거를 산다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권장되며, 지하철에서 전화통화를 하면 옆에 있는 아저씨에게 전철 내에서는 전화통화를 해선 안 된다고 주의를 받게 될 것이다. 유심을 사서 빵빵 터지는 LTE를 사용하려 했으나 거북이 같은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게 되고 페트병을 버릴 때에는 뚜껑과 페트병껍데기, 페트병 본체를 분리해서 버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재류카드에 전입신고 사항을 기재하기 위해 하염없이 번호가 불리기를 기다릴 때도 있을 것이며, 이미 개설한 통장을 들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러 갔더니 서류 심사에 3일 정도가 소요되어 우편 수령하는데 까지 4일이 걸릴 것이라는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뒤에서 카드를 푹푹딱 찍어서 바로 내어주는데 말이다. 사실 별것 아닌 것들이나 하나 둘 쌓이면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두근거림과 기대는 사라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보이기 시작하는 단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유학생들은 크든 작든 슬럼프를 겪게 된다. 내가 꿈꿔왔던 일본 생활이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 때 필요한 것이 긍정에너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긍정적인 생각은 문화적응력을 높여준다. 내가 가진 시각에서 조금은 이상해 보이는 것들이 있을 지라도 그것을 모두 포함해서 ‘일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조금 더 밝은 유학생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인정은 ‘무조건적인 긍정’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사회 역시 수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회이다. 세상의 어느 사회가 그러하듯이 말이다. 다만 긍정적인 시각으로 주위를 바라보게 된다면 ‘부의 감정’으로 인해 못 보고 지나칠 점들을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다. 부정적인 상태로 있으면 만사가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는 본인의 유학생생활에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전거 보험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유학생들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리스크를 줄여주고, 전차 내에서 통화를 가급적 삼가는 것은 전차가 도떼기시장이 되는 것을 막아준다. 야마테 기숙사에서 강조하는 페트병의 뚜껑과 껍데기마저 분리하는 분리수거 법은 재활용의 효율을 높여줄 것이고 이는 환경보호와 연결된다. 관공서 및 은행의 업무는 느린 만큼 정확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가게 안에서 담배를 태워도 될 만큼 담배에 관대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가는 길에 버려진 궂초를 찾기가 쉽지 않고, 6천만대가 넘는 승용차가 있음에도 골목에 불법주차가 된 차량을 찾아보기 힘든 모습 등도 그들이 만들어낸 생활방식의 결과이다. 각도를 조금 바꿔서 바라볼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긍정적인 부분도 눈에 들어오게 된다. 그 각도를 바꾸는 힘이 긍정적인 생각이고 이 생각이 여러분들의 적응력을 높여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열심히 노력

해서 지원할 교환학생이다. 그리고 파견의 마침표는 금방 다가와 버린다. 후회하지 않을 생활을 위해 긍정의 힘을 키워보도록 하자.

### 3. 일본어 수업

#### (1) 일본어 강좌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통해 나고야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일본어 강좌를 듣게 된다. 일본어를 미리 상당수준 공부하고 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안고 가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학기 시작 전에 치러지는 시험을 통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코스를 등록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 일본어 수업을 만족할 만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였는데 돌아와 생각하니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수동적으로 보낸 듯 하여 따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시험 후 나에게 맞는 반을 배정받아 수업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스파르타식 한국교육을 받아 온 탓인지 내가 생각하는 것 보다 진도가 더디게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 전체 수업의 반 정도를 수동적으로 임했던 것 같다. 사실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것인데 말이다. 수업의 진가는 일본어로 진행되는 지방재정법 수업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느낄 수 있었다. 대학원 수업이다 보니 2주에 1번은 짧더라도 한국의 세법 및 재정법에 관한 발표문을 작성해서 가야만 했는데 한글문장을 일본어로 바꾸어도 무언가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들을 모아 질문을 했던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어순이 같고 사용하는 단어가 비슷할 지라도 적절한 조사 및 적절한 문장구조를 사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

니다. 재정법 수업 중 문장을 읽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교수님의 지적을 몇 번 받았었고 나로선 강좌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는 것 외에 별 뾰족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일본어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들이 상대하는 학생들은 모두가 외국인이다 보니 외국인들이 잘 틀리는 일본문법이나 문장구조에 익숙하신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좀 더 일찍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말 그대로 개떡같이 설명을 하더라도 써서 가져온 페이퍼를 보여드리면 찰떡 같은 설명을 해 주신다. 여유가 된다면 꼭 학교에서 진행되는 일본어를 사용하는 수업에 관한 질문을 하시기 바란다. 학부생의 경우 비즈니스 일본어라는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듣게 될 것인데 이 수업에 관해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일본어 강좌 선생님들께 여쭙보면 좋을 것이다.

#### (2) 일본어로 진행하는 수업

학교에서 진행되는 일본어 강좌 외에 영어 수업이 아닌 일본어 수업을 들어보는 것은 상당히 귀한 경험이 된다. 당연한 이야기이고 두말하면 입 아픈 소리이긴 하지만 구태여 보고서에 적는 이유는 그만큼 어려운 선택이기 때문이다. 캠퍼스 아시아 교환학생은 기본적으로 영어수업들에 대한 안내를 받기에 주로 영어수업 방면으로 수강신청이 이뤄 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어 수업이 실제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1년 동안 있으면서 본 중국에서 온 캠퍼스 아시아 대학원생이 7명인데 이들 중 일본어로만 진행되는 대학원 과정 수업을 들은 학생은 내가 아는 한 아무도 없다. 모두가 일본어에 능한 것은 아니었으나, 일본어 수업을 들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조차 그 선택을 꺼린 것이 사실이다. 아쉽게도 학부수업 쪽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수업이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뭐가 됐던 일본어 수업은 어렵습니다’라는 풍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는데 그래도 본인이 일본어 실력을 향상시켜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다면 꼭 한번은 들어보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본다. 일본어 능력시험에서 레벨 N2 이상을 취득한 분이 수업에 들어간다면 더욱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그 모든 것이 도움이 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우선 듣기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된다. 한 달 이상 멘탈 붕괴 상태로 수업을 들었던 것 같은데 계속 붕괴되어 있더라도 듣다 보면 점점 익숙해진다. 멘탈은 붕괴해도 머리는 돌아가는 것이다. 교수님께서 천천히 설명을 해 주시는 때도 있으나 모든 수업을 그렇게 느리게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평범한 일본인들의 대화 속도를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학기말에 무슨 바람이 불었었는지 방에서 N2 청해를 푼 적이 있었는데 정말 여유로웠던 기억이 있다. 듣기능력이 정말 향상된다.

두 번째는 용어와 읽기다. 일본어를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일상에서 사용되는 단어나 일상회화는 익숙한 수준이 된다. 그러나 그 이상 진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일상회화는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일본어 공부의 뼈대라고 생각할 정도이다. 여기서 나아가 일본어로 진행하는 전공수업은 이 뼈대에 살을 붙여준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문법과 말하기를 토대로 법학 전공수업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수업에서 배우게 된다.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

을 할 수는 있어도 일본어를 일본어로 읽지 못하는 분들이 엄청 많다. 일본어를 공부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표의문자 이기에 발생하는 읽기의 괴리인데, 수업에서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배우더라도 그걸 그 자리에서 사용하고 바로 읽어버리기 때문에 이 괴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복잡한 소리를 했는데 어려운 단어를 새롭게 배우더라도 그걸 그냥 일본어로 말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본인은 ‘원고적격(당사자적격)’이라는 단어의 발음이 정말 안됐었는데 이것마저 수 차례 교정 받았던 기억이 있다.

마지막은 작문실력이다. 수업마다 방식은 다를 것인데 나의 경우 최소 2주에 1번 발표를 해야 했기에 성장하고 싶지 않아도 작문 실력이 성장하게 되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정확한 조사의 활용은 불가능 하지만 어려운 조사에 대해 감을 조금이라도 잡게 된 데에는 이 수업의 영향이 지대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수님이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을 적어갔을 경우 그것을 말로 풀어 설명하면 문장을 직접 교정 받는 기회도 얻게 된다. 한국인인 내가 한글을 일본어로 옮기기 때문에 나는 이해가 가더라도 일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큰 도움을 얻었던 것 같다.

### 4. 나가며

수기랍시고 너무 무거운 이야기들을 장황하게 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무리로 학교 외의 이야기를 적어볼까 한다. 파견을 갈 여러분이 야마테 기숙사에 살든 히가시아마 기숙사에 살든 기숙사 입구의 게시판



# 다시 또 시작의 시점에서 1년을 돌아보며



이현주

성균관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사업단

성균관대-나고야대-인민대

을 열심히 보시기 바란다. 외국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인 만큼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게시판에 공고된다. 작게는 타코야끼 만들기 이벤트부터 크게는 나고야 시 축제까지 학교 측의 행사는 물론이고 시에서 진행되는 이벤트들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 있고 좋았던 이벤트는 '홈스테이'였다. 나는 HIPPO Family Club에서 주최하는 홈스테이에 참가했었는데 정말 좋았기에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꼭 HIPPO홈스테이가 아니더라도 좋으니 홈스테이는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 HIPPO의 경우에는 '7개 국어로 인사를 해보자!'라는 캐치 프라이즈로 외국어에 관심이 있는 가정들이 대거 참가해 있기 때문에 일본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홈스테이를 하는데 큰 부담이 없다.

나는 홈스테이에서 하야시 부부를 만났고 아들인 토라군과 류스케군을 만나 좋은 연을 맺게 되었다. 파견을 가기 전만해도 한국인을 바라보는 일본인의 시선이 모두 따뜻하지는 않을 거란 생각에 걱정이 많았었는데 너무 걱정을 많이 했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어느 사회든 소위 말하는 나쁜 사람들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사회가 붕괴하지 않는 것은 그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간단한 명제를 하야시 상은 1박2일간의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수족관을 가고 밥을 먹고 웃고 떠들며 밤에는 대형 목욕탕에 가 전기탕에도 들어가 보며 이들을 보냈다. 한국이고 일본이고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준 따뜻한 가정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2일을 같이 보내는 것으로 홈스테이가 종료되지 않는다. 모두가 좋은 사람들이기에 홈스테이가 끝나더라도 1달에 한번 2달에 한번 꼴로 서

로의 안부를 묻고 만남을 이어가게 된다. 나의 경우에도 달에 한번 이상은 하야시상을 만났고 하야시상의 친구들도 엄청나게 만났다. 모임이란 모임에 다 초대를 받았던 것 같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분들이 사실 내가 나고야에서 얻어가는 가장 큰 보물일지도 모른다. 연배 있으신 의사선생님부터 젊은 우동가게 사장님까지 나이를 초월한 하야시상의 친구분들과 친구가 되어 가며 우리나라가 너무 나이에 연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다. 처음에는 모임에 나가 하루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다 돌아오면 파김치가 되었는데 그것도 점점 나아지게 된다. 여러분들도 나중에는 나고야 사투리가 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며 많은 것들을 배웠고 여러분들도 배우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모두가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있는 분들이기에 꼭 홈스테이를 통해 현지인 친구를 만나보길 권한다. 다시 나고야에 간다면 만날 친구들이 생겼다는 것, 이것 또한 단순한 여행이 아닌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10월에 하야시 부부가 한국을 다녀갔다. 11월엔 쿠미상을 앞세운 언니부대가 한국을 방문했다. 온사마로 시작된 한류 열풍은 아직 일본 아주머니들 사이에서도 건재함을 느꼈다. 12월엔 내가 건너가 모두와 함께 시끌벅적한 송년회를 할 계획이다. 비행기는 이미 30일로 예약을 마쳤다. 만나면 기본 좋은 그들과 함께 해를 넘기는 소바를 먹을 계획이다. '토시코시소바'라고 해서 장수를 기원하는 소바를 신년을 맞이하기 전에 먹는 것이 전통이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연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 수 있는 성장의 계기가 되어준 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권하며 이 글을 마친다.

안녕하세요? 일본 나고야대학교에 파견되어 수학하고 있는 이현주입니다. 저는 1년 교환학생 과정을 신청했고, 아직 약 한 달 반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1년간의 일본 생활을 돌아보는 이번 수기가 제 남은 날들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1. 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다

지난 학기를 생각할 때, 제게 있어 가장 큰 수확은 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학기 동안 저는 제가 어떤 성격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습관을 가졌는지, 인생관과 가치관은 무엇인지에 대해 찬찬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보다 나고야가 좀 더 한가롭고 평온한 환경이다 보니, 이전의 막연한 조급함과 불안함은 열여지고 편안한게 저에 대해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1) 성찰 노트를 만들다

생각해보니, 대학교 입학하고서부터 교환학생 가기

전까지 바쁘게는 살았지만 시간을 따로 내어 저를 돌아보는 시간은 갖지 못했습니다. 큰 과제를 하나 끝내고 보상의 의미로, 저와 같이 파견된 복현 언니와 스시로(スシロ)에서 스시 접시 탑을 쌓으며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디저트를 먹으면서 천천히 언니에게 제 고민을 이야기하는 도중, 언니가 저도 몰랐던 제 성격을 콕 집어 말했습니다. 명쾌한 그 말을 듣고 그 동안 왜 저에 대해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세리아(Seria)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단정한 남색 컬러의 노트와 검정 수성 펜 등 온통 제 취향의 문구를 샀습니다. 약한 에어컨 바람, 135ml 기린 이치방 맥주와 함께 스탠드 불빛 아래 펜을 들고 노트에 저에 대해 적는 시간은 제 삶을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노트에 적다 보니 주변 환경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크게는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가족, 친구, 선배, 후배에 대한 고마움부터 작게는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 아래 카페 테라스에서 과제를 할 수 있는 여유로운 환경까지, 예전보다 저는 더 감사



그때 쌓은 접시 탑.

하는 삶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변화에 더없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 2) 인턴을 통해 진로에 대한 믿음이 생기자

고등학생 때부터 저의 일관된 취미는 '법정 드라마 시청'이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법정물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덕분에 저는 다양한 판사, 검사, 변호사, 부검의 시점의 드라마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접한 법과 실체는 어떤 점에서 다를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나고야 시 센겐초 역 부근에 위치한 아이치 시민 법률 사무소에서 9월 중순부터 말까지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한국인 변호사님이셨고, 민사, 형사 사건을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특히 변호사님이 일본어와 한국어를 모두 자유자재로 구사하실 수 있어서 일본에서 재일 교포, 한국인 클라이언트와 미팅하는 흔치 않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인턴을 통해

저는 변호사에 대한 직업적 이해와 함께 진로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대부분 변호사의 '재판'만을 다루지만, 변호사님의 일과를 함께 하며 본 실제 업무 영역은 그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재판 전의 변론준비기일, 신문 리허설, 변호사회 활동과 법률 자문에도 참여하면서 변호사는 어떤 사람인지 배웠습니다.

이와 함께, 저는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고민했습니다. 인턴 첫날은 외국인 절도 공범의 선고 기일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범행 대비 일반적인 수준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되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변호사가 받는 마음의 부담이 새삼 느껴졌고 법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본 재판은 제게 변호사의 딜레마에 생각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검사는 '악인은 벌을 받는다.' 혹은 '인과응보(因果應報)'라는 대체로 사회 통상적 감정과 일치하는 직무를 수행하지만, 변호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악범의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비난과 질타를 받습니다. 변호사의 직업윤리 상 변호는 의무이며, 아무리 흉악범일지라도 그들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개인의 양심과 사회 전체적 정의의 갈림길에서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변호사는 정체성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인턴십은 제게 진로에 대한 믿음과 법 공부에 대한 자극을 주었습니다. 저는 검사가 되고 싶고, 형사 사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화 속 잔인한 살해 현장을 제대로 못 보는 겁쟁이인 내가 사건 현장 사진들을 무리 없이 잘 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변호사님께 사건 열람을 여쭙보았고, 변호사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가 본 사건은 피해자가 주차장에서 압사로 사망한 과실치사 사건이었으며, 최초 발견 당시 피해자의 모습, CCTV, 재현 현장, 부검 사진, X-RAY 증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생각보다 더 대답했습니다. 고인의 모습보다는 사건 현장에 묻은 혈액에 더 마음이 아팠고, 걱정했던 만큼 충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드라마와 영화에는 BGM, 효과음 등 사건 현장을 상상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아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해결되어 직업에 대한 열망이 더 커졌습니다. 이와 함께 법 공부를 계속해서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수임 계약서, 준비 서면, 소장, 기소장, 갑호와 을호의 증거 자료, 판결문 등 서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배운 민법, 형법 총론 지식만을 적용하는 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얼른 배워 서류를 온전히 다 이해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잘 챙겨주신 덕분에 저는 인턴 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배운 점도, 느낀 점도 많았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2. 동아시아를 마주보다

고등학생 때 제 꿈은 동아시아 역사 갈등을 해결하는 사학자였습니다. 현재의 꿈이 사학자는 아니나, 제 목표는 변함없습니다. 법적으로 역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일본의 문화와 사상을 배우며 일본을 이해하고 싶어 나고야대학교 교환학생에 지원했고, 감사한 수학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1) 전공 수업으로 시야를 넓히다

한중일 3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하지만 EU와

ASEAN 등 다른 지역 공동체와 달리 결속력이 약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제국주의 하 역사 갈등이라고 생각했고, 이러한 문제의식 하 수업을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캠퍼스 아시아 덕분에 제 목표에 가까워졌습니다.

2018년 1학기, 저는 총 8개의 수업을 들었는데, 그중 강동국 교수님께서 수업하시는 'Politics in Asia'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수업은 크게 각국의 정치제도(비교정치)와 국제관계(국제정치)의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한 수업에서 비교정치와 국제정치를 한꺼번에 배운다는 점은 상당히 특징적입니다. 저는 이 수업을 통해 정치학 분야가 마냥 독립적인 것만은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수업 중 특히 국제관계의 세부 파트인 제국주의, 냉전, 지역 공동체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동북아시아의 현 상황을 '아시안 패러독스(Asian Paradox)'라고 진단하시면서 동북아시아에 제국주의, 과거 냉전과 냉전의 지속, 중국의 성장, 3국의 상호 경제 의존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제국주의의 산물, 역사 갈등, 국가주의만을 생각하고 동아시아를 이해하려 했던 제 편협한 사고를 깨닫게 되는 동시에 저는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폭넓은 시각을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무언가를 이해하고 나면 이해했다는 편안하고 간결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수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삼국의 사정과 그로 인한 현 상황을 이해하고 나니, 어떻게 해야 지역적 협력이 공고해질 것인가에 대해 특별히 이렇다 할 방법을 제시할 수 없어서 더 복잡하고 묵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알수록 복잡하고 풀리지 않는 찜찜한 기분을 느꼈으나 지금 생각해보니

이 또한 배움의 특권이 아닐까 합니다. 해답이 딱딱 떨어지지 않기에 정치학이 더 흥미로운 학문인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 현 상황을 마음에 두고 동아시아 지역의 일원으로 산다는 것은 제게 분명 값진 자산으로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2) 튜터와의 대화로 문제의 무게를 체감하다

한 학기 동안, 저는 매주 수요일 오후마다 학교 공대 건물 쪽 시애틀 카페에서 일본인 튜터와 만나 저는 일본어 공부를, 그 친구는 한국어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튜터가 제게 위안부 문제와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한일의 입장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 놀란 한편, 튜터가 이야기를 먼저 꺼내주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튜터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은 배상했는데 아직도 위안부가 큰 문제인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일본 사람들은 독도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으며, 사실 나는 독도를 한국에 줘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튜터의 말을 듣자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튜터의 말 중 가장 심란했던 것은 Give/あげる였습니다. Give와 あげる는 본래 자기 소유의 물건을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독도를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당연히 생각하듯 일본인도 독도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본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정 역사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튜터가 말한 방식이 이해가 되었지만, 실제로 이를 마주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튜터와의 대화는 제게 자극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제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님을 다시금 느꼈고, 더 많이 조사하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3. 일본에서의 의식주 생활

일본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 잠깐 기술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잘 배정받지 않는 히가시아마 기숙사이다 보니, 기숙사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 1) 의

한국에서 웬만한 옷들을 미리 가져갔지만 일본에 온 만큼 일본의 유행을 따라보자는 생각으로 쇼핑을 합니다. 저는 사카에 역에 있는 ZARA와 야고토 역의 유니클로를 자주 애용합니다. 시즌이 바뀔 때마다 매장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아보면서 꼭 하나라도 사서 기숙사에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 2) 식

기숙사에 가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장을 보신 후 기숙사에서 음식을 만들어 드셔도 됩니다. 이럴 경우 식비를 상당히 아낄 수 있습니다. 마트 기준, 제 예상보다 일본 물가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다. 처음 장을 보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두부 가격이 60엔, 양파와 감자 가격이 50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외식을 하게 되면 물가를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야고토 넷세키 역의 Valor, 모토야마 역의 막스밸류, 이마이케

역의 돈키호테에 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장을 봤습니다. 2시간 정도 쪽 돌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렸습니다. 방사능의 위험을 최대한 피하고자 휴대폰에 일본 현 지도를 넣고 원산지를 확인했습니다. 한 번은 213엔이던 고구마가 갑자기 105엔으로 세일을 해서 원산지를 확인해보니 후쿠시마 근처의 이바라키 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군마, 이바라키, 니가타 등 원전 사고 주변 지역은 피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구장창 마트에 가다 보니 각 마트마다 특화된 분야와 장점들을 알게 되고 상품의 평균 가격을 외우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 3) 주

대부분의 캠퍼스 선배님들은 야마테 기숙사로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기숙사 배정 결과가 나기 전 저도 '야마테겠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히가시아마 기숙사로 배정되었고 기숙사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4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기숙사에 처음 입주했는데, 걱정이 무색하게 마음에 쏙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히가시아마 기숙사의 가장 큰 장점은 1인 1실이라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든, 요리를 하든, 욕실을 사용하든 뭐든지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 크기는 눈대중으로 약 7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며, 커튼을 사이에 두고 방이 현관, 주방, 화장실과 침실, 베란다로 나뉩니다. 7층에는 공용 세탁실이 있어 1회 당 100엔을 투입하고 세탁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 달마다 전기세, 수도 요금, 침구류 비용이 청구되며 가스비는

따로 편의점에 가서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베개, 이불, 깔개 2개를 한 달에 1700엔으로 빌릴 수 있으며 저는 1년 동안 쪽 대여해서 사용할 생각입니다.

히가시아마는 야마테와 달리 방 청소와 쓰레기 분리수거를 스스로 해야 하며, 야마테보다 기숙사가 오래된 편입니다. 또한 히가시아마 기숙사는 수업을 듣는 ALEP 건물에서 약 7분~10분 걸으면 되는데, 경사가 있어 처음에는 정말 오르기 힘들었습니다. 입주 첫날, 복현 언니와 함께 20kg 짐을 끌고 기숙사에 오르며 "몇 분의 몇 남았어?" 하면서 고통스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현재 히가시아마 기숙사에 살면서 제 나름의 낭만들을 소소히 실현하고 있습니다. 변변찮은 요리 실력이지만 볶고 끓이고 부치고 하면서 실력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베란다와 욕조 등 히가시아마 기숙사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 4. 1학기를 돌아보며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일본에 와서 보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깊이 생각함으로써 가치관이 뚜렷해졌고,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을 확실히 알고 하고 싶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신적 여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제 주변 환경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성장과 함께, 학술적으로는 일본에서 동아시아 법학과 정치학을 마주하고 법률 사무소에서 인턴 활동을 함으로써 목직한 감동과 절실함을 느끼고 시





그 때 쌓은 접시 탑.

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홈스테이를 통해 일본 문화를 체험하고 목적지 없이 거리를 걸으면서 새로운 환경을 접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어진 데 대해 뿌듯하기도 합니다.

처음 일본에 도착했을 때 1년은 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약 4개월이 남은 지금 한 학기를 돌아보니 계획한 것보다 천천히, 편안하게 산 것 같아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듭니다.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는 것,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기분 좋은 발전이지만, 혼자 여행하기, 능숙하게 대화하기와 같이 처음 세웠던 목표들은 많이 이루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번 학기에는 저를 직시하게 되었으니, 이번 학기에는 어떤 방향으로 저를 이끌어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지금, 한 학기가 남아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2학기는 제가 더 많이 배우고 느끼는 학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5. 2학기를 돌아보며

중간 수기를 쓴 지 세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중간



그 때 쌓은 접시 탑.

수기를 쓰면서 2학기 계획을 함께 세웠고, 지금은 제가 다짐했던 목표들을 꽤 잘 실현하고 있습니다. 1학기보다는 바쁜 삶이지만 잘 살고 있다는 뿌듯함이 듭니다. 중간 수기에서 저는 혼자 여행하기, 일본어 공부하기, 1학기의 변화를 꼭 간직하기라는 3가지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 1) 혼자 여행하기

교환학생을 오기 전, 저는 혼자 여행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길치인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혼자 여행하는 것에 대한 부모님의 걱정도 있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막상 몇 달 후면 일본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아쉬움이 깊어져 무작정 교토 가는 버스와 숙소를 예매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제가 어떤 스타일의 여행을 좋아하는지, 제가 생각하는 여행은 무엇인지 등등 저를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고층건물, 쇼핑몰, 음식점이 즐비한 곳보다 풍경 좋고 공기 맑고 여유로운 곳을 좋아함을 알게 되었고, 여행은 계획한 관광지를 다 돌아보지 못해도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첫째 날 여행 계획을 교토시를 부지런하게 돌아보는 것으로 짰는

데, 막상 교토 근처의 말차로 유명한 우지시에 가 보니 경치도 공기도 너무나 좋아서 그 뒤의 일정은 취소하고 우지에 머물렀던 기억이 납니다. 우지에서 저는 말차 아이스크림, 말차 젤리, 말차라떼 가루 등등 말차로 만든 상품을 즐기고, 잔잔하고 깨끗한 경치를 보면서 깊은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귀국 전 우지는 한 번 더 가보고 싶을 만큼,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 2) 일본어 공부하기

일본어 공부는 중간 수기에서 가장 아쉬워했던 부분이자, 지금 가장 만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간 수기 직후 절실함을 크게 느끼고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크게 청해/독해/문법/어휘 파트로 나누어 공부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문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를 따라'의 경우, 강가를 따라, 시간의 변화에 따라, 사장님의 기분에 따라, 참고서를 따라 등등의 미가 조금 다른데, 처음에는 그것도 모르고 무작정 외워서 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휘의 경우, 일주일 전에 외운 어휘가 기억나지 않을 때 가장 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반복해서 외우면 결국 외워서 서서히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청해는 중간 수기 전까지의 경우,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모르는 느낌으로 눈치껏 알아듣곤 했습니다. 특히, 일본인 친구들이 빠르게 말할 때는 못 알아듣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재는 지하철에서 예전에는 안 들리던 안내방송이 들릴 때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독해는 어휘를 많이 외움에 따라 자연스럽게 실력이 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독해 시간 단축 연습은 좀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어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니, 길거리에서 한자로 된 간판을 읽는 것에 재미가 붙었습니다. 왜 이런

재미를 1학기 때에는 몰랐는지 후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카페에서 여러 메뉴를 주문하면서 불현듯 여기가 너무 편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약간의 두근거림과 불안함을 안고 주문했는데, 생각 없이 편안하게 주문했음을 알게 된 순간 뿌듯했지만 또 섭섭했습니다. 귀국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체감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3) 1학기의 변화를 꼭 간직하기

캠퍼스 아시아 사업은 세계 국제법과 국제 정치에 대한 배움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국제 정치가 주는 애매 모호함이 흥미로워서 현재, Linley 교수님의 'Postwar Security Issues'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국제정치의 대표적인 시각인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이외에도 종래의 정치학 수업에서 접하지 못했던 주제인 내전, 대학살 등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시각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건을 해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활동도 재미있습니다. 또, Mizushima 교수님의 'International Economic Law'도 수강하고 있는데, GATT, WTO, IBRD, IMF 등등 국제 경제의 틀을 배우는 것도 재미있지만, 국제 협약, 국제 기구에 각국의 역학 관계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귀국까지 한 달 반 정도가 남아 있는 지금, 처음 일본에 왔을 때를 생각해보니 제가 많이 배우고 느꼈음을 체감합니다. 남아 있는 날들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의 캠퍼스 아시아 사업단 관계자 분들께 항상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 2018 규슈대학교 Summer School 체험수기



정영빈

부산대학교  
에너지환경

사업단

부산대 - 규슈대 - 상해교통대

## 1. 지원과 선발

2016년 11월, 파리기후협약이 발효됐다. 참여한 195개국은 협약 이후, 환경을 위한 에너지 신 산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그렇다. 화력발전소 최대 출력 제한과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등을 통해 저탄소와 미세먼지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탈원전 로드맵을 제시하여, 이전과는 다른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은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다. 나는 이러한 흐름을 접하며, 공학적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파급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이 생겼으며, 해당 분야 대학원 진학도 고려하게 됐다.

내가 이러한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말을 들은 같은 학과 선배는, 본인이 참여한 CAMPUS ASIA 프로그램을 추천했다. 에너지 환경 분야를 다룬다는 점과 대학원 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참여하길 권유했다. 게다가 한중일 학생들이 서로 친목을 다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들어보니 프로그램의 콘텐츠



숙소 가는 버스 안에서 찍은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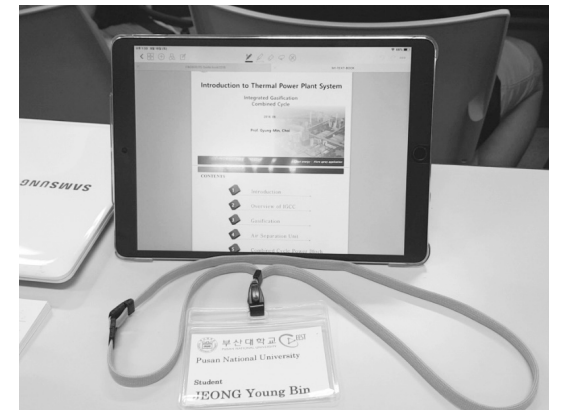
가 마음에 들어 참여를 고민했고, 이 프로그램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 지원하게 됐다. 감사하게도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했고, 8월 17일부터 일본에서의 12박 13일이 시작됐다.

첫 날 일본에 도착하고 나서 호텔로 향했다. 각자 배정받은 방에 짐을 풀었고, 같은 방을 배정받은 6명과 통성명했다. 다들 나와 같은 과에 재학 중이었으며, 그중 세 명은 같은 수업을 들어봤기 때문에 낯 익었다. 덕분에 서로 쉽게 친해졌고, 귀국하는 날까지 친하고 편

하게 지낼 수 있었다. 도착한 당일은 학교에서의 일정이 없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한 친구들과 숙소 근처를 구경하며, 현지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내까지 거리가 멀었으므로 지하철을 타고 나갔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처럼, 현지 음식을 먼저 맛보고 나서야 근처 명소들을 구경했다. 첫 날은 조용히 마무리됐다.

## 2. 기억 나는 수업

다음 날부터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8시 30분까지 3개국 모든 학생들이 모여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으며, 장병국 교수님께서 추후 일정과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셨다. 설명이 끝난 후, M1과 M2로 나뉘어 수업에 참여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총 17개 강의를 수강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나는 수업들이 있다. 첫 번째는 중국 상해교통대 Dong Wang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The shrinking transistors'다. '정보 처리 속도와 용량이 왜 더욱 중요해지는가?'라는 의문으로 수업을 시작하여, 처리되는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할 용량 또한 증가해야 한다는 답을 주셨다. 그리고 그 답을 통해 급속도로 성장하는 현재 산업 흐름에 반도체 산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셨다. 마지막엔 현재 본인 랩실에서 진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장!

행하고 있는 연구를 설명해 주셨다. 현재 삼성전자가 D-RAM 분야에서 세계 1등이지만, 중국에서 이를 따라잡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접했다. 중국의 반도체 개발을 담당하는 교수님께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들어보며, 국내에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생각해볼 수 있는 수업이었다. 다음으로는 부산대 임희창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Fundamental Theory of Wind Turbines'였다. 이 수업을 통해 Wind Turbine의 기초 이론과 전반적 구조에 대해 배웠다. Betz limit과 Carnot efficiency의 공통점과 차이점, Wind energy의 장단점, 분류, 날개 수에 따른 차이 등이 그 내용이었으며, 특히 다양한 종류의 Wind Turbine이 기억에 남

는다. 현재 Wind Turbine은 소음과 풍속 조건으로 인해 설치될 수 있는 지형에 제약이 있다. 그러나 개발 중인 차세대 Wind Turbine은 그 제약을 이겨내고, 바다나 하늘과 같이 설치될 수 있는 지형을 넓혀 나가는 중인 연구들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평소, 풍력 에너지는 지형적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 좋지 않은 발전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위 수업을 통해 기술 발전으로 주어진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배우는 수업이었다. 마지막으로는 규슈대 장병국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Ceramics in Gas Turbine'이었다. 주로 Ceramic 물성에 대해 배웠으며, 특히 Zirconia의 구조, 장점 등에 대해 많이 다뤘다. 또한 Turbine 구동에서 단순히 Steel만 사용할 경우 Exhaust Section에서 Melting down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시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라믹을 통한 Thermal Barrier Coating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이슈를 언급하시며, Thermal Barrier Coating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 수업을 통해선 단일 학문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제품에 한계가 있으며, 여러 분야가 같이 극복해 나가야 빠르고 쉽게 극복할 수 있음을 느꼈다. 이외에도 언급하지 못한 수업들을 통해 에너지, 환경 분야에 대해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됐다. 또한 내 생각보다 신 재생 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개발되어 있음을 알게 됐다.

### 3. 실험

CAMPUS ASIA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뿐만 아니라



열심히 제작 중인 팀원들.



발표에 쓰인 PPT 표지 슬라이드.

전공과 다른 분야도 실험을 통해 경험 해볼 수 있었다. 맡게 된 실험 주제는 'Capacitively Coupled Power Transfer'이었으며, 무선 충전과 관련된 실험이었다. Hattori 교수님 랩실에 배정됐으며, ph.D 과정을 밟고 있는 조교 Tareq이 실험을 도왔다. 실험은 어떤 Resonant Frequency Value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Capacitor를 직접 제작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서 LRC Multimeter를 이용해 Capacitor value를 측정



Wind Turbine이 줄 지어 설치된 Kitakyushu 앞 바다.

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작해야 할 Inductor value를 구하여 Inductor도 제작했다. 만든 요소들로 서로 다른 회로를 구성했으며, 함수 발생기를 통해 다양한 Hz를 입력하고 그에 따른 Resonant Frequency를 비교했다. 우리가 만든 구조는 총 세 가지였으며, Symmetric circuit에서 출력이 가장 컸다. 또한, 세 가지 구조 모두 Resonant Frequency 부근에서 효율과 출력이 최대가 된다는 점과 Q value와 sensitivity가 반비례함을 확인했다. 이 유사성은 유의미한 결과로 판단되었고, 이 결과를 실험의 결론으로 정한 후 PPT를 제작했다. 발표는 상해교통대 친구인 Chen Kai와 내가 절반씩 맡게 됐다. Chen kai는 이 분야에 대해 배경지식이 전무했기 때문에 내가 Result, Discussion 그리고 Conclusion을 맡았다. 발표는 Actual Resonant Frequency가 초기 설정 값 보다 작았고, 그 이유는 회로에 고려하지 않은 coil이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이어서 Symmetrical configuration

이 가장 효율적이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Q value와 Sensitivity가 비례한다는 사실로 마무리했다. 이어서 교수님들께서 질문하셨다. 질문은 'IPT와 CPT의 차이가 무엇인가'와 'Efficiency와 sensitivity가 비례하는데, 어떤 값을 주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인가'였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으나, 주어진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져 교수님들이 하신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는 못한 점이 아쉬웠다. 그래도 이 경험을 통해, 직접 랩실을 경험해볼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감사했다. 한중일 세 나라 교수님들 앞에서 낯선 분야를 영어로 발표한다는 것은 떨리고 조금 두려웠지만, 잘 마무리함으로써 한층 성장할 수 있었다.

### 4. 견학

8월 24일엔 Kitakyushu Next Generation Energy Park를 견학했다. Kitakyushu는 '저탄소', '자원순환', '자연상생'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추진하는 신 재생 에너지 중심 도시라는 설명을 들었으며, 지역 에너지 정책에 대해 살펴봤다. 수소 파이프라인 구축, Wind Turbine 국내 최대 설치, 태양광발전 국내 3위 등 신 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도입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봤으며, 처리되어야 할 폐기물 및 쓰레기가 어떻게 재활용되었는지 실제로 확인해봤다. 버스를 타고 직접 살펴보고, 스케일에 한 번 놀라고, 다양한 설비에 한 번 더 놀랐다. 시설 규모나 재활용되는 제품들의 양, 그리고 품질들을 직접 살펴보고, Kitakyushu시가 내건 3대 슬로건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어서오세요! 아사히맥주 하카타 공장입니다!



Momochi Beach의 노을.



Momochi Beach에서 동기들과 단체사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 재생 에너지 중심 도시가 없으며, 신 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도 오래 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신 재생을 통한 발전 및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해야 함을 느꼈다. 한편, Kitakyushu 방문이 끝나고 Asahi Brewery Factory를 방문했다. 일본을 대표하는 맥주가 생산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설비 공정, 그리고 자동 생산 기계를 살펴보았다. 학술 교류 프로그램이지만 꼭 전공과 관련된 내용만 다루기 보다는, 방문 국가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 느껴 만족스러웠다.

## 5. 자유시간

8월 27일은 자유시간이 주어져, CAMPUS ASIA 친구들과 근처를 탐방해보기로 했다. 미리 고민해보며 장소를 정했고, Momochi Beach와 Canal City를 방문하기로 했다. 우선, 하카타 역 부근 Canal city를 방문했다. 근처 라멘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카페에 방문

했다. 일본을 가득히 체험해보기 위해, 한국인이 없는 카페를 골라서 들어갔고, 짧은 일본어 실력으로 주문도 성공했다. 카페에서 친구들과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겼고, 이후엔 Canal city 내부를 돌아다녔다. 우리나라 아울렛처럼 많은 상점들이 입점해 있었으나, 다양한 볼거리 등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느꼈다. Canal city를 다 살펴보고는 Momochi beach로 향했다. 해변이 출발지에서 꽤나 멀었고, 지하철을 매 통학마다 타봤기 때문에, 버스를 타보기로 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버스를 타보는 것이었는데, 바로 옆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시스템이 많이 달라서 놀랐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일본은 뒷문으로 타고 앞문으로 내리는 시스템이었다. 또한 거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시스템이었다. 우리가 시스템에 낯설어 하며 조금 느리게 행동해도, 친절함 미소로 묵묵히 기다려 주시는 기사님의 너그러움에 참 감사했다. 소소할지도 모르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친절이었다. 해변까지 30분 가량 걸렸고, 도착했을 땐 해가 저무는 시간이라 노을을 볼 수 있었다.

아름답게 지는 타지의 노을을 두 눈 가득히 담고, 동기들과 기념 사진 촬영 후 숙소로 돌아왔다.

## 6. 마무리와 소감

자유시간이 끝난 후, 6개의 수업을 더 수강하고 CAMPUS ASIA 프로그램이 마무리됐다.

마지막 날 밤, Farewell party에서 같은 조원이었던 Chen Kai와 향후 계획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상해교통대와 큐슈대에서 Double degree를 취득 중인 Chen Kai는 본인의 전공인 환경 분야를 더 연구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연구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나는 신 재생 에너지에 대해 더 연구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전했다. 그 동안 서로 수고 많았다고 위로했고, 가능하다면 내년 CAMPUS ASIA에서도 보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그 친구와 낯선 분야를 연구하고 실험하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짧은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감정과 애뜻함이 들었고, 다음에도 꼭 봤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다.

CAMPUS ASIA 프로그램이 의도했던 '외국인 학우와의 교류'에 참 감사한 순간이었다.

한편 13일간 총 17개의 강의를 들었다. 100분짜리 공학 강의를 17개 모두 영어로 듣고 소화해낸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열심히 듣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에너지, 재료, 환경 분야로도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융합적 인재를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 꼭 필요한 경험이었다. 한편, Lab Exercise를 수행한 뒤 결과물을 한중일 교수님들과 학생들 앞에서 발표했다. 이를 통해 Exercise를 수행했던 CPT와 IPT 분야에 대해 알게 되었고,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킬 방법도 탐구해봤다. 게다가 외국 학생들과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했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다른 발표 기회들이 찾아오더라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을 얻었다.

CAMPUS ASIA 프로그램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경험이었으며, 내가 환경 에너지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지도록 해줬다. 주어진 주제에 대해 직접 실험해보며, 대학원 생활은 어떤 식인지 직접 경험해볼 수 있었다. 또한, 이웃나라인 일본을 탐방해봤으며, 중국과 일본 학우들이 엔지니어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교류할 수 있었다. 참 많은 것을 배웠다. 만약, 내년에 다른 학생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추천하고 싶다. 내 선배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밤낮없이 프로그램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 인사 올리며 글 마치겠습니다.



# 일주일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정재연

서울교육대학교

사업단

서울교대-동경학예대-북경사범대

## 1. 준비

누구나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선 환상을 갖게 된다. 타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 하나둘 휴학을 하고 각자 좋아하는 나라로 떠나는 것을 보며, 어떤 기분일까? 얼마나 재미있을까? 무섭지는 않을까? 하고 머릿속으로 그려보지만 하던 나였다. 4년 내내 햄스터 쳇바퀴 돌리듯 교육학 수업, 수업 실연 과제, 교생실습, 과외를 쉬지 않고 하다가 임용고시를 보게 되고, 마침내 이 시험에서 탈출하자마자 든 생각은 나도 짧게나마 다른 곳에서 새로운 공부를 해 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나마 대학원에 가면 무언가 기회가 있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대학원에 입학했다. 다행히 서울교대에는 캠퍼스아시아 사업이 운영되고 있었고, 관심 있던 일본 대학과의 교류도 점점 늘어나는 분위기였다. 대학원 입

학과 동시에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고, 짧은 일본어로 일본 교육에 대해서 조금씩 찾아보며 프로그램 공고가 올라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가장 먼저 올라온 일주일 짜리 일본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보고, 나는 주저 없이 신청서를 써내려갔다.

## 2. 일주일

7박 8일 일정의 단기 연수 프로그램은, 서울교대 대학원생 다섯 명, 북경사범대 대학원생 다섯 명이 동경학예대를 방문하여 다양한 문화체험과 교육교류회를 갖는 일정이었다. 우선 멤버 구성에 관해 이야기해보자면, 서울교대 대학원생은 모두 현직 초등학교 교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고, 외국의 교육에 대해 배워보자는 의지로 모인 것이라 서로 도움을 받고 배워가는 부분이 매우 많았다. 또 북경사범대 학생들은 교사

를 꿈꾸는 열정적인 대학원생들이어서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으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었고, 평소 전혀 교류가 없던 중국이라서 다양한 것들에 대해 교육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교류하는 경험이 새롭고 즐거웠다.

이 멤버들의 합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은 단연 교육교류회였다. 몇 번의 수업을 통해 일본의 교육에 대해서 배우고, 한국과 중국의 교육은 어떠한지 구두발표를 하며 다른 나라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을 돌아봤다. 교육제도의 차이점에 놀라기도 하고, 어떤 것이 더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학생들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일까 장단점을 고민해보기도 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시간은 동아시아 교육 심포지엄이라는, 각국의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교육적 문제에 대한 토론회였다. 여태 느꼈던 여러 교육 제도의 차이점과는 달리, 학교폭력, 사교육, 통합교육, 다문화 학생 지도 등 피부로 느끼는 교육적 문제점들은 세 나라가 너무도 닮아 있었다. 한 나라의 교육적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두 나라가 공감하며 현재 노력하고 있는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그것의 장단점에 대해서 깊게 토론했다. 서로 다른 듯 닮아있는 세 나라가 한곳에 모여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나가는 장면이 진중하고, 유의미하고, 또 따

뜻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면서도, 동경학예대 주변의 역사적 장소 탐방이나 일본의 서예, 다도, 기모노 체험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도 적지 않았다. 동경학예대 측에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현지 대학생 어시스턴트들과 함께 꼭찬 일주일의 일정을 즐길 수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시간 덕분에 일본의 문화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었다. 일본 대학생들이 추천하는 가게에 가서 같이 밥을 먹고, 일본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서로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소통했다. 일정이 끝난 후 자유시간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일본에서는 이렇게 지내는구나, 이런 문화가 있고 이런 매력이 있구나 새롭게 배워가는 재미가 있었다.

교사가 되기 전, 내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주일의 단기 프로그램의 여파는 생각보다 컸다. 그동안 공부한 일본어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즐거움도, 다른 나라의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을 돌아보는 과정도 더 오래, 더 깊게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불확실한 발령 상황 때문에 장기파견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캠퍼스아시아 사업단의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 때 친해진 현지 어시스턴트 학생들도 다방면

으로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에 대한 불안감도 잊을 수 있었다. 이런 든든한 지원 속에서 급하게, 열심히 준비하여 결국 두 달 만에 다시 일본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

### 3. 한 학기

그렇게 시작된 나의 짧은, 첫 유학생살이 이제 삼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유학생살의 처음 일주일만은 아직도 생생하다. 동경학예대말고도 여러 다른 국립대학교들의 유학생이 모여 사는 대규모 유학생 기숙사의 개인실에 배정받았기 때문에, 웰컴파티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 상황이 생소할 정도로 국적이 다양했다. 매일같이 만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을 나누고, 새로운 주제의 이야기를 나누고, 문화적 차이를 느끼고 즐기며 함께 생활에 적응해나갔다. 그러면서도 각자의 공간, 각자의 생활은 존중하기 때문에 외롭지 않게 나만의 생활을 꾸려나가는 느낌이 행복하고 소중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수록 나는 정말 좁은 세계에 살고 있었구나, 한 곳에서 한 가지 일만 평생 한다는 것은 너무 지겨운 일이 아닐까,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교사라는 직업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며 전혀 해보지도 않은 고민이 생기기도 했다.

유학생 기숙사의 즐거운 생활에 빠져 유학생살의 본분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을 때, 동경학예대의 높은 학업열은 나에게 좋은 원동력이 되었다. 학기가 본격

적으로 시작하고, 매주 학과 내 같은 학년끼리 모여 학문적 교류를 하는 세미나에 참가하게 되었다. 정규 수업 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시간에 모두가 참석하여 진지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학생들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토론하며, 연구 방법 및 과정들을 발표하고 보완해나갔고, 지도교수님께서도 그 과정을 지켜보며 끊임 없는 조언을 해주셨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현장 견학을 통해 직접 가서 보고, 느끼는 기회가 매달 여러 번씩 있었고, 덕분에 나도 일본의 초등학교 현장에 꽤 여러 번 방문하여 어떤 교육을 하는지, 어떤 점을 배우면 좋을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처음 교사라는 직업을 꿈꾸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첫 교생실습에서 떨려하며 아이들 앞에 섰을 때, 왜 교사가 되고 싶었는지, 어떤 교사가 되고자 다짐했는지 다시금 떠올릴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나 다른 학과 수업을 통해 초등학교 수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있었다. 덕분에 일본의 초등학생들에게 한국을 소개하고, 한국의 문화를 간단하게 체험하는 등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수업을 여러 번 준비하게 되었다. 서툰 일본어로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앞섰는데, 막상 가보니 직접 한국어로 쓴 이름표를 달고 와서는, 준비한 한국어 인사말을 보여주는 아이들을 보며 거꾸로 일본 초등학생들에게 감동한 적도 있었

다. 한국 아이돌이나 한국 음식, 한국 여행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큰 관심을 보이고, 한국에 꼭 가 보고 싶다고 말하는 아이들을 보며 이런 작은 활동이 모여 서로의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거나 바꿀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 4. 일주일이 쓰아 올린 작은 공

이제 와서 말하지만, 나는 사실 단기프로그램으로 일본에 왔을 때가 이미 8번째 일본 방문이었다. 일본은 워낙 가까워서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해외여행지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때로는 혼자서 하는 자유여행을 즐기고 있었고, 때문에 단기 프로그램에서 했던 다양한 문화체험들도 나에겐 그다지 새롭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퍼스아시아의 일주일 단기 프로그램이 나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은, 그 일정 중에 녹아있는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의 대화, 소통, 공감이었다. 이야기를 하다가 뜻을 잘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한자로 써서 보여주고, 그 한자를 보고 의미를 알추 유추해내고, 음독도 꽤나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 재밌어하는 과정 속에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왔다면 서로에게 그저 '외국인'에 불과했겠지만, 캠퍼스 아시아라는 소속 아래에서,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세 나라라고 묶인 것이 알게 모르게 친밀감을 형성해주었던 것 같다. 이런 유대감, 친밀감이 없었다면 이렇게 갑작스럽

게 유학을 결정할 수 있었을지 사실 잘 모르겠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 일본 중국이 워낙 민감한 문제로 얽혀있는 관계인 만큼 당황스러운 상황도 자주 겪었다. 초등학생들이 독도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서양인들이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가볍게 말한다든지, 한국인으로서의 썩 기분이 좋지 않은 도쿄의 역사적 장소에 방문하게 된다든지 할 때마다, 내가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현명한 것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했다. 한국에 있었다면 그저 다른 사람들에 동의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 문제들, 우리 언론으로만 접하다보니 어찌면 편향된 시각으로만 보았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해보고 주체적으로 공부해나가는 것도, 꽤 유익한 배움의 과정이었다.

아직 유학생살은 조금 남았지만, 타지에서 2018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본다면, '가장 많은 것들을 사랑한 1년'이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내 자신도, 도쿄의 작은 동네에서의 소소한 생활도, 점점 실력이 늘고 있는 일본어도, 여기서 만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도, 어딜가든 순수한 초등학생들도 모두 모두 사랑스러웠다. 내년에 귀국할 때에는 일본인 친구들과 함께 서울여행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내가 도쿄에서 받은 이 사랑스러운 느낌을 서울에서 그들도 느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 이것이야말로 작은 의미의 '동아시아 상호이해 증진 및 글로벌 교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



# My studying and life in Korea University



Du Mengzhen

푸단대학교

사업단

고려대-고베대-푸단대

Time flies. In a twinkling of an eye, my semester in Korea university is over. I am very grateful to the school for providing us with this opportunity to exchange in Korea. And I am very grateful that I have such a wonderful learning and life experience. Although four months is a fleeting time, this experience is the most precious memory in my life.

## The studying in Korea university

Korea University, founded in 1905, is one of Korea's oldest and highest ranking universities. It is well known that this university enjoys a strong faculty team, a rigorous academic atmosphere, high-quality students, and sound foundation for development. It's beautiful and peaceful. This kind of surrounding is particularly suitable for studying.



To be honest, before I went to Korea, I always thought that courses would be easy. Although I only took two courses, each one was not easy and required a lot of effort. The one course is Planning for Uncertainty and Risk, taught by Prof. Cuz Potter. Every action and every decision incorporates risk and uncertainty. Thus, the formulation of plans, programs, and policies

ideally anticipate and address risk and uncertainty. This course I choose serves four primary purposes. First, it introduces and interrogates risk, uncertainty, and related concepts. Second, it conveys the basic quantitative techniques involved in cost-benefit analysis and risk analysis. Third, it compares and contrasts technocratic and democratic approaches to managing risk and uncertainty. Fourth, the course explores the ways in which risk shapes society and society in turn shapes risk. During class, we have encountered three approaches to risk: technical rationality, risk society, and govern mentality. By the end of this course, I am knowledgeable on: Basic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procedures for determining risk; Various theoretical approaches to conceptualizing risk; The role of citizen and expert knowledge in addressing risk.

There are a lot of reading materials for this course every week. Some English literature is very difficult for me to understand and takes a lot of time, but it benefits me a lot. Especially in class, the teacher encouraged us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bout our reading comprehension. I was lucky enough to hear the views of students from different countries and cultural backgrounds. This not only enriched my professional knowledge, but also enabled

me to analyze and understand problem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Through this course, I know that we should have our own opinions in class, and we should not follow the rules and blindly listen to the teacher's explanation. Only when I understand and have my own opinions can I prove that I fully understand theoretical knowledge and can apply it to practice.

The other course is Korean level one. Although English is used in daily class, I hope to have a command of Korean through half a year's exchange. To some extent, Korean is a way to understand Korean culture. Mastering Korean can help me acquire new knowledge better, communicate with local people and experience Korean culture better. I have been interested in Korean since watching Korean dramas. The students in Korean class come from different countries, and we all have little Korean foundation, but we all have full enthusiasm for learning. We start with the most basic pronunciation. It is not easy for students to learn a new language, but the Korean teacher is very patient to teach us. At the beginning of each class, the teacher will take us to review what we have learned in the last class to make sure that we have mastered it. In each class, the teacher gave us a lot of time to practice with our partners





and correct each other's mistakes, so as to ensure that we learned new sentences. At the end of each class, the teacher asked us if there was anything we did not understand, and patiently answered for us. So, at the end of the semester, we mastered some daily communication usage of Korean. When I first went to Korean restaurant for dinner, I had to rely on body language to communicate with the boss who could not speak English. But after taking Korean class, I am able to order food in Korean. Communication in daily



life is also much more convenient. Besides, I made many interesting friends in this course.

At the same time, I also attended some lectures in my spare time, such as "2018 Campus Asia Annual Symposium on New Risks and New Opportunities in East Asia". The novel viewpoints of professors and classmates have broadened my thinking and made me have a new understanding of the cutting-edge academic knowledge.

### The life in Korea

The most enjoyable thing here is that I have met many friends from all over the world. When I encountered difficulties, they were eager to help me. In the communication with them, I learned about the culture of different countries. This makes me curious about the world again.

Of course, the teachers here are also very caring for us. At the beginning of the school,



the teachers invited us to eat Korean barbecue to welcome us and bid farewell to us at the end of the semester. The care given by the teachers and classmates makes me feel as warm as at home. In the middle of the semester, we also participated in many activities. For example, a field trip to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established with a vision to promote peace. Such activities enrich our daily lives.

During a holiday in the semester, I went to the famous Jeju Island with my classmates. Jeju's temperate climate, natural scenery, and beaches make it a popular tourist destination for South Koreans as well as visitors from other parts of East Asia. The beautiful seascape of Niushima made me intoxicated, and the sunset of Mount Seong's Sunrise Peak made me unforgettable. The trip to Jeju Island made me feel more deeply



about Korea.

On the weekend, I also went to Gyeongbokgung Palace. I wore hanbok and experienced the history of Korea at Gyeongbokgung Palace. These were the pictures that were seen in the TV series before. Walking inside the palace is like going back to the past. This kind of experience is worth cherishing in my life.

Special thanks to Fudan University and Korea University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a new world. In the past four months, I have gained knowledge and experience. We must be brave enough to leave our comfort zone and try some new challenges and changes. Maybe only then, after we have experienced different cultures and lifestyles, we will discover what we really want. The world is very big, life is very short, so let us open our eyes, live in the moment, enjoy the youth.



# Fantastic Busan



Jiang  
Chunyan  
상해해양대학교

사업단

해양대 - 도쿄해양대 - 상해해양대

## A fantastic trip in Busan

Life is like a journey, we departure from a familiar city to a new city. On the May in 2018, the Asia CAMPUS recruited member in Shanghai Ocean University. Based on this good programs I have an opportunity to apply to be a DDP (double degree program) student. Firstly, I also faced some difficulties to contact supervisor who want to accept DDP exchange student. Fortunately, the Korean program teacher Miss Jeong helped me to do the supervisor requirement. I successfully contacted my Korean supervisor Prof. Shin. Then after the required documents exchanged, I got the visa to start my study in Korean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 1. A Chinese in Busan

I have traveled to different countries and

experienced marvelous traditional culture. Burt I never been to Korea before, so the first mission for me is to find out what the city is like. When I first came to campus I need to register my classes, there are really a little difficult for me to choose what classes to attend. After taken my supervisor's kindly suggestions I settle down of my classes. The communic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prepared different kinds of activities for international student, I had chance to experience Korean culture like international student day, Busan culture festival and Temple experience. I also spent many weekends in the museums, palaces and markets, where I got to know Korean people's living and thinking style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Since I am really interested in some local culture, according the campus buddy program I have a Korean friend.



He recommended many good sight-viewing in Busan. I have been in Gancheon Cultural Village, started from the entrance of the village, the first to reach the village museum, the enthusiastic South Korean uncle will tell you the most recent route to the cultural village. Leaved the village museum, I encountered a series of attractions, art shops, photo galleries, night houses, and many new and interesting attractions waiting for

visiting. In the art store, I also bought gadgets and small jewelry with village features; Night House can make everyone feel the silence surrounded by darkness. After living here for more than three months, I believe some kind of destiny has been built between us, which I would like to call "acceptance".

## 2. A student in KMOU

I must admit it's destiny to study in KMOU, I got my bachelor degree from Shanghai Maritime University and I am studying for master degree in Shanghai Ocean University. And now I am studying in KMOU as DDP exchange student. All of students and professor I have come across are so kind to me. Prof. Shin is so considerable for every student, she always takes care of me and give me valuable suggestions. If anyone ask me about this university, I would tell her or him that the students, professors and classes in KMOU are truly excellent. Now since the semester is

coming to an end, I can confidently say that the courses which I have chosen have helped me a lot in fulfilling my ambition. The advanced ship management, Prof. Ryoo illustrated us to think why ship company need to hire ship manager, and what's the most important reasons to choose a manager. Then we are able to understand many important questions such as why a ship company choose to flag out, what's the risk when a ship manager operating a ship and the obligation for ship-owner and ship manager, which is the famous contract between the two party. Then it's in my supervisor's class, she gives time to students to thinking about the thesis topic, and once time she invited another professor from other university to so special culture for us which is usefully for our master student, and I also got some sign from the lecture. Finally, it's the Korean class, nothing is more direct to understand the culture except to study Korean. The Korean teacher told us Korean is very gentle language, we never need pronounce too hard. That explain why foreigner always think Korean people as



gentle and kind. And I am really enjoying to study Korean and I do hope I can speak it frequently. Apart from professors and teacher, I also learned a lot from my classmates. In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we have student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that enables us to listen to Indian students' attitudes towards the shipping industry future trend, green port development and of course, Korean students' cognition of the challenges they are faced with. As students majoring in shipping management, we have had some international conference related port and shipping, where we can get the newest idea from the global wise-tank. Since the shipping industry



is decrease in the era, someone call us dinosaurs who study or work in the flied. Moreover, all the members of Campus-Asia Program in KMOU know each other, we can communicate and hang out together someday. Up to now, we have discuss the three countries' society,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dol culture and festival customs. Compared the culture diversity and I also can find some culture harmony, those three countries have common national boundaries, understand cultural differences, and

achieve common development through cultural harmony will be our ultimate goal. All in all, it is my pleasure to spend one semester in KMOU, which is both a continuation and an extension of my study in Shanghai Ocean University. I usually take a walk for ten or fifteen minutes in campus, sometime alone sometime with friends, and it will make me more gratitude and cherish everything I have experienced in that college.

### 3. Standing on world

So I came here to experience and by now, I have benefited a lot from the program and gain too much friendship. I still remember that time my laptop was dead, and I need summit a proposal to my home university, which make me very worried. Since I cannot speak Korean, I asked one of my Korean friends to help me, but he is too busy with mid exam, then I must find another guy to help me, finally a Russian student also had this problem last year. So he helped me to find a fix store. After that we become friend, I really appreciate his kindly help and



# Creation and Connection Study in Korea



Zhang  
Yongzhe

지린대학교

사업단

성균관대-오카야마대-지린대

warm heart. However, enjoying myself should not be the terminus of the journey. I find my interest topic during my study, I want to do more research about the green policy in shipbuilding industry. Nowadays the IMO already issued many regulations to protect marine environment that become very urgency to ship yard they must respond to the global market regulations. Besides a taker, I also ought to become a giver. Also, I want to finish my thesis as a gift to this journey. In addition, I have begun to discuss with other members of the program about what we can do after going back to China, we really want keep these friendships forever. First of all, we must consider how we can consolidate as a team among the members of Campus Asia. Of the three DDP exchange student participants in KMOU this semester, we have two of them from China, one from Japan. The good thing is that we can meet each other every day, but we still are worried about our friendship. In fact, OST

has devoted much effort to help us by organizing tours and meeting and discussions. But some details about the program and our graduate terms need to be announce clearly. Besides, if possible, an annual Campus Asia Forum can be held by the three countries in turn, which invites several student representatives and distinguished professors. As direct experiencers who live in the country for at least four months, I believe we have a say in how to deal with the trilateral relations in a more practical and effective way during the annual conference. We have promised each other to meet in own motherland. And I would like tell my experience in Korea, since I really have a tight friendship with Korean friend, Indonesian friend and Japanese friend, since all of us have Asian appearance, sometime other people always think we are from same country. Yes, at many moments like that, it does make feel that I have never gone abroad, and sometimes we forgot we are foreigner to each other.

When I wrote this passage, it was the 99th day that I came to Korea. As a China saying that when all is said and done(九九归一), I think the same is true of my exchange life—from curiosity to familiarity, from helplessness to calmness.

This exchange learning trip started with a very occasional opportunity. In my opinion, it is more a combination of luck and strength that eventually leads to the "Asian Campus" project. With some curiosity about the future, I set foot on the land of Korea.

Before I really arrived in Seoul, my impression of Korea focused on the beautiful food, the bright and unique Korean clothes, the dynamic K-pop, and the "Smith Da" which has become a cultural symbol. As a graduate student of public diplomacy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 also noticed the great advantages of Korea in

cultural export and national image building.

## Creation-New life and New understanding

I still remember that the day I arrived at Sungkyunkwan University was a rainy day, and the ancient buildings looming in the woods made me awe-inspired by the culture here. At the same time, in the international pavilion, students from all over the world can be seen everywhere, which gives the opportunity for cultural integration here.

With the beginning of my new life, my perception of the country began gradually from the side. In class, I have an opportunity to exchange my views and opinions on a certain issue with Korean students. I can also expand my contacts through various activities organized by the school. After class, I often visit the streets



of Seoul with my friends. From the street booth market to Guanhua Gate, many places in Seoul have left me behind.

I remember a clip that has been unforgettable for a long time. In Gwanghwamun subway station, I accidentally took such a picture.

On the blue Peninsula map, Seoul and Pyongyang were connected by a train ticket. The desire for peaceful reunification embodied in this picture makes me feel the same, facing similar situations. As a Chinese, I can also understand the meaning of "Reunification" for a country more deeply.

Perhaps some people think that the warming up of peninsula relations is a connection, but I think it is a creation. It's like welcoming a long-lost spring after a cold winter. We cannot deny that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in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and even integration of the peninsula, but I have reason and confidence to



believe in the wisdom of the people of Korea, and finally shake hands and say happy things.

My new life also began when I come into contact with my favorite K-pop. Before I arrived in Korea, my knowledge of Korean pop music focused on Love scenario, but after I got to know it, I think pop culture runs through the spirit of the whole Korean nation. At the same time, Korea also has a good way to promote pop culture, as well as world-renowned Korean pop stars (such as BTS). The development of this pop culture industry not only promotes economic growth, but also injects new connotations into Korean national spirit. The first stop of my trip to Seoul was in Hongdae, a place called Korea's highest art academy. There, even though I am just a passer-by, I can feel the passion and vitality



everywhere.

My new understanding of Korea is also rooted in the classroom at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emester, I took courses in Korean politics and economy, Korean population and elementary Korean. This is the first time that I have studied abroad as an exchange student. In my expectation, foreign classes will pay more attention to their own understanding and classroom participation. Every class, the professor will arrange a lot of reading tasks and fixed time classroom demonstrations. All of these may be a little tired, but I enjoy the learning process. As an international student, I had to admit that many people don't know enough about China. Faced with this cultural difference, I am happy to use the knowledge I have learned to answer my foreign friends' questions about China in class.

In my motto, creativity means the beginning of a challenge. During my study in Korea, I did



experience many difficulties, but I enjoyed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m. Studying abroad has always been a part of my life plan, because I think that if a student only lives in a comfortable circle that he is familiar with all the time, it will be difficult for him to have the ability to think deeply and put his ideas into practice when facing the test of society. I am grateful for this opportunity. At the same time,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your original choice.

### Connection-Learn more and Know more

In my opinion, for anything, only by learning more, can we know more. The same is true for a country, because I had studied the basic knowledge of the profession for one year before I came to Korea, and had a preliminary understanding of Korean diplomacy, but after all, these are only book knowledge. I want to know this country more deeply. In my life,



accompanied by Korean friends, I visited many places of interest about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learned more about the real side of Korean society in daily conversations, which greatly enriched my understanding of Korea and made the image of the country more viv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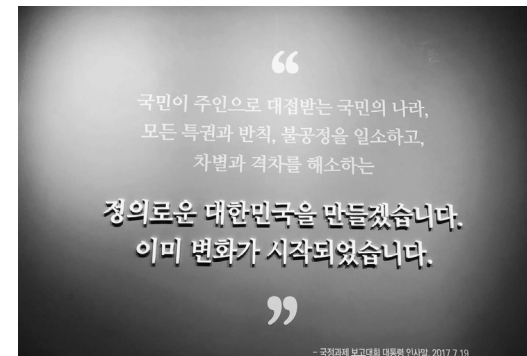
I was also impressed by the literary travel of the Campus Asia Project. In early October, we visited Chuncheon, the Museum of Traditional Arts and Animation. This trip is a collision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It is a collision between inheritance and innovation. The two-day trip made me feel like a messenger, involving Korea's past and future.

We also visited Cheongwadae in autumn, a place that witnessed the ups and downs of modern Korean politics. I have read "Park Geun-



hye's Diary" for many times. The various scenes mentioned in the diary are all seen in the visit. In fact, as far as I am concerned, my mood standing in front of the Guest House cannot be calm for a long time. It is a complex emotion that combines sigh, regret and excitement. At that time, breathing with the place that symbolizes the supreme power center of the Republic of Korea gave me a more authentic sense of the country.

Therefore, whether in big or small scenes, I can feel the constant shuttle of this country in



history and modern times.

From my professional point of view, South Korea's public diplomacy is undoubtedly successful, as Mr. Zhao Qizheng said in the "Jeju Forum" in 2011: "There are many Korean people in China, from the TV series, we know that Korean family life is very harmonious. The development of high-tech in Korea and the development of Korean economy can also be felt by the Chinese. There are too many people who like Korea and Jeju Island, which is the success of your public diplomacy." Therefore, as a neighbor, Korea's success is of great significance to China's public diplomacy.

In order to improve Korea's national image and international status, and to adapt to the changes of international diplomatic environment,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strategy

of cultural diplomacy to public diplomacy, and actively carried out the practice of public diplomacy through various channels, among which there are many experiences and measures worthy of our reference. As a neighboring country, China's rise is not only a matter of material prosperity, but also a process for the world to further understand China and China's Public diplomacy is of great significance to China's international discourse right. How to tell Chinese stories well is one of the major issues facing us in the new era. In the future, we should further tap the excellent traditional cultural resources, integrate the mechanism and system of public diplomacy, and lay the foundation for the further growth of China's public diplomacy.

Finally, I am very grateful for the wonderful time I have spent in Korea in the past six months, both in my study and in my life. I sincerely hope that the people of China, Japan and South Korea, especially the younger generation, can get along well with each other. There is a Chinese proverb that the friendship between nations lies in the intimacy of the people. (国之交在于民相亲) And I hope that China, Japan and South Korea will live in harmony and win-win situation in East Asia as soon as possible.

2018 CAMPUS Asia

# 한·일·중 사업 체험수기 수상집

Collection of CAMPUS Asia Korea-Japan-China Essay Prize Winners 2018

---

| 인 쇄 | 2019년 2월  
| 발 행 | 2019년 2월  
| 발행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08504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 A동 23층  
TEL. 02) 6919-3800  
| 인쇄처 | 경성문화사 TEL. 02) 786-2999  
| ISBN | 979-11-6004-491-1  
| 자료번호 | RM 2019-5-870

---

※ 이 책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전재할 수 없습니다.